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기초통계분석결과

제출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13년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기초통계분석 결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0.

문화리서치피오

요약

I.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는 2007년 조사에 이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무용수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전문무용수의 교육, 창작활동, 경제활동 등 삶의 중요한 단면을 파악함으로써 전문무용수만이 지닌 창작활동과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2013년 조사는 2007년 조사와 달리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임의 단체·면세사업자·동문단체·프리랜서 등으로 조사대상을 세분화 하였다. 조사대상자 리스트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회원리스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무용단체 리스트 및 국공립 단체 리스트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무용수 약1,500명, 전문무용단체 약200여 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전문무용수 총 1,476명, 무용단체 총 60기관이다.

조사는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면대면조사·전화조사·온라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II. 조사결과

1. 일반현황

1) 소속단체 특성

현재 속해 있는 무용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국/공립무용단체 35.0%, 프리랜서(독립무용수) 20.6%, 전문예술법인·단체 20.2%, 임의단체 15.2%, 공연장상주단체 11.0%, 동문단체 9.5%, 기타 8.8%, 면세사업자 7.7%, 사회적 기업 4.8%, 예비 사회적 기업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구분	응답자수	비율	응답비율
국/공립무용단체	499	25.9%	35.0%
공연장상주단체	156	8.1%	11.0%
사회적기업	69	3.6%	4.8%
예비 사회적기업	34	1.8%	2.4%
전문예술법인, 단체	288	15.0%	20.2%
임의단체	216	11.2%	15.2%
면세사업자	110	5.7%	7.7%
동문단체	135	7.0%	9.5%
프리랜서(독립무용수)	294	15.3%	20.6%
기타	125	6.5%	8.8%
합계	1,926	100.0%	135.3%

[그림 1]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 기타 : 학교 23명, 학생 7명 등 ※ 다중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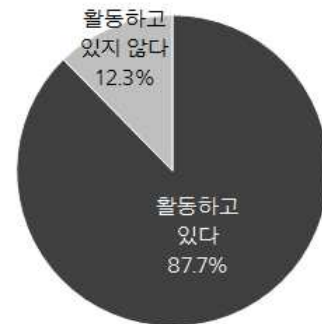
2) 무용수 활동 여부

현재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87.7%,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12.3%로 10명 중 약 8명의 응답자가 현재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무용수 활동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활동하고 있다	1,280	86.7%	87.7%
활동하고 있지 않다	180	12.2%	12.3%
계	1,460	98.9%	100.0%
응답하지 않음	16	1.1%	-
합계	1,476	100.0%	-

[그림 2] 무용수 활동여부



2.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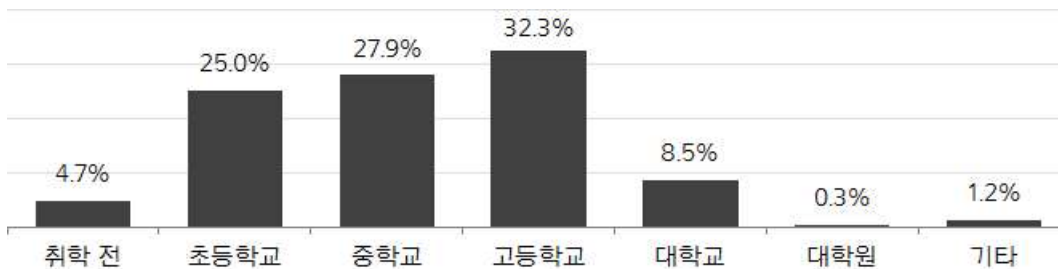
1)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고등학교 32.3%, 중학교 27.9%, 초등학교 25.0%, 대학교 8.5%, 취학 전 4.7%, 대학원 0.3% 순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입시준비가 시작되는 고등학교 시기 이전에 전문무용교육을 시작한 경우는 57.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른 나이에 진로를 정하고 전문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표 3]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취학 전	69	4.7%	4.7%
초등학교	364	24.7%	25.0%
중학교	406	27.5%	27.9%
고등학교	471	31.9%	32.3%
대학교	124	8.4%	8.5%
대학원	4	0.3%	0.3%
기타	18	1.2%	1.2%
계	1,456	98.6%	100.0%
응답하지 않음	20	1.4%	-
합계	1,476	100.0%	-

[그림 3]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3. 경제·직업 활동

1) 소속단체 고용형태

현재 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기간제·계약직 40.5%, 프리랜서 24.4%, 정규직 15.1%, 기타 10.2%, 단체장 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단체장	140	9.5%	9.8%
정규직	217	14.7%	15.1%
기간제·계약직	581	39.4%	40.5%
프리랜서	349	23.6%	24.4%
기타	146	9.9%	10.2%
계	1,433	97.1%	100.0%
응답하지 않음	43	2.9%	-
합계	1,476	100.0%	-

[그림 4]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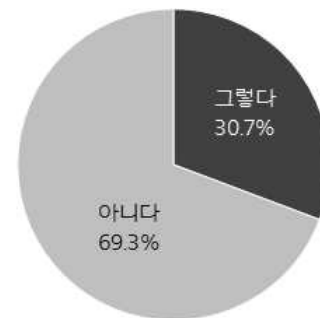
2) 최근 3년 간 무용활동을 통해 받은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 여부

최근 3년 간 무용 공연활동을 통해 받은 경제적 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적절하지 못하다 69.3%, 적절하다 30.7%로 나타났다.

[표 5]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적절하다	430	29.1%	30.7%
적절하지 못하다	969	65.7%	69.3%
계	1,399	94.8%	100.0%
응답하지 않음	77	5.2%	-
합계	1,476	100.0%	-

[그림 5]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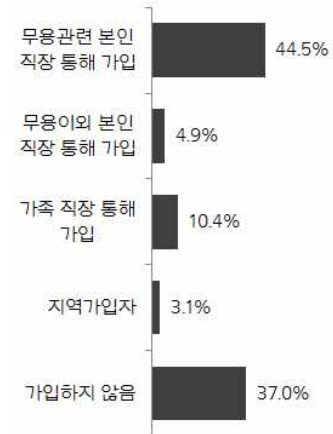
3)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사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63.0%, 비가입자가 37.0%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4.5%,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0.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9%, 지역가입자 3.1% 순으로 많았다.

[표 6]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국민연금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68	38.5%	44.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3	4.3%	4.9%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33	9.0%	10.4%
지역가입자	40	2.7%	3.1%
가입하지 않음	472	32.0%	37.0%
계	1,276	86.4%	100.0%
응답하지 않음	200	13.6%	
합계	1,476	100.0%	

[그림 6]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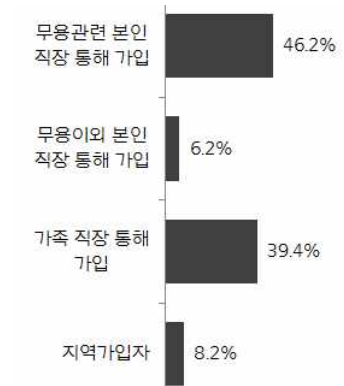
4)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사 결과,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6.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39.4%, 지역가입자 8.2%,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59	37.9%	46.2%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5	5.1%	6.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477	32.3%	39.4%
지역가입자	99	6.7%	8.2%
계	1,210	82.0%	100.0%
응답하지 않음	266	18.0%	-
합계	1,476	100.0%	-

[그림 7]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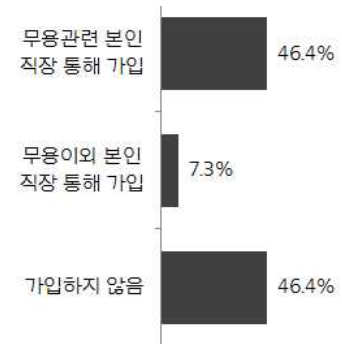
5)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가 53.6%, 비가입자가 46.4%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자의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6.4%, 가입하지 않음 4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75	39.0%	4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90	6.1%	7.3%
가입하지 않음	575	39.0%	46.4%
계	1,240	84.0%	100.0%
응답하지 않음	236	16.0%	-
합계	1,476	100.0%	-

[그림 8]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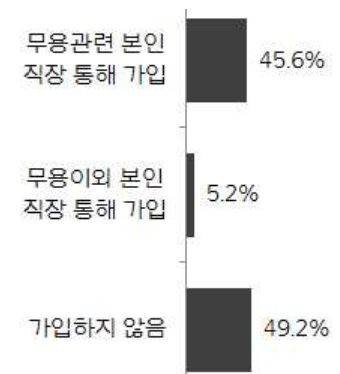
6)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50.8%, 비가입자가 49.2%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5.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 순이었다.

[표 9]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65	38.3%	45.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5	4.4%	5.2%
가입하지 않음	609	41.3%	49.2%
계	1,239	83.9%	100.0%
응답하지 않음	237	16.1%	-
합계	1,476	100.0%	-

[그림 9]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4.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1)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인지 여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49.1%, 설문조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30.8%,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다 20.1%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 ‘전혀 몰랐다’의 비율이 61.3%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13년 ‘전혀 몰랐다’의 비율은 30.5% 감소하여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설문조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444	30.1%	30.8%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708	48.0%	49.1%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다	290	19.6%	20.1%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10]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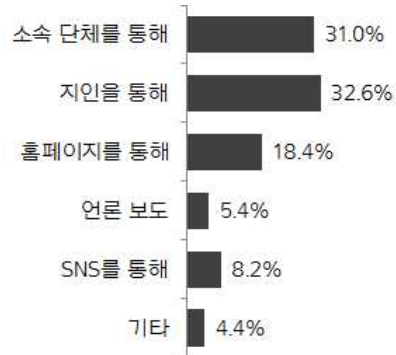
2) 지원센터 인지 경로

지원센터 인지 경로에 따른 조사 결과, 지인을 통해 32.6%, 소속 단체를 통해 31.0%, 홈페이지를 통해 18.4%, SNS를 통해 8.2%, 언론 보도 5.4%, 기타 4.4%로 나타났다.

[표 11]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구분	빈도수	비율
소속 단체를 통해	98	31.0%
지인을 통해	103	32.6%
홈페이지를 통해	58	18.4%
언론 보도	17	5.4%
SNS를 통해	26	8.2%
기타	14	4.4%
합계	316	100.0%

[그림 11]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 언론 보도 : 지면 2명, 인터넷 2명, 방송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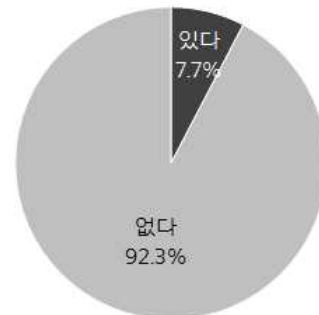
3)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조사 결과, ‘이용한적 없다’ 92.3%, ‘이용하고 있다’ 7.7%로 응답자 10명 중 약9명이 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있다	108	7.3%	7.7%
없다	1,303	88.3%	92.3%
계	1,411	95.6%	100.0%
응답하지 않음	65	4.4%	-
합계	1,476	100.0%	-

[그림 12]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4)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1순위)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대한 1순위 조사 결과,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32.8%,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30.3%,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9.2%,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423	28.7%	30.3%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88	6.0%	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18	8.0%	8.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76	11.9%	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28	8.7%	9.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459	31.1%	32.8%
기타	6	0.4%	0.4%
계	1,398	94.7%	100.0%
응답하지 않음	78	5.3%	-
합계	1,476	100.0%	-

5. 은퇴와 직업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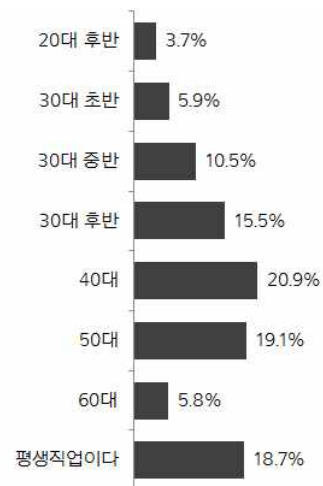
1) 은퇴 예상시기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40대 20.9%, 50대 19.1%, 평생 직업이다 18.7%, 30대 후반 15.5%, 30대 중반 10.5%, 30대 초반 5.9%, 60대 5.8%, 20대 후반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은퇴 예상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20대 후반	53	3.6%	3.7%
30대 초반	85	5.8%	5.9%
30대 중반	152	10.3%	10.5%
30대 후반	223	15.1%	15.5%
40대	301	20.4%	20.9%
50대	275	18.6%	19.1%
60대	84	5.7%	5.8%
평생 직업이다	269	18.2%	18.7%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13] 은퇴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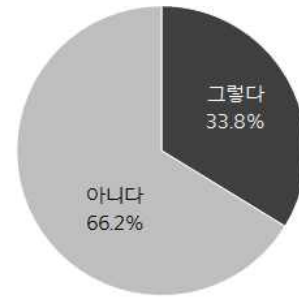
2)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조사 결과, 아니다 66.2%, 그렇다 33.8%로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은퇴 후 진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그렇다	485	32.9%	33.8%
아니다	952	64.5%	66.2%
계	1,437	97.4%	100.0%
응답하지 않음	39	2.6%	-
합계	1,476	100.0%	-

[그림 14]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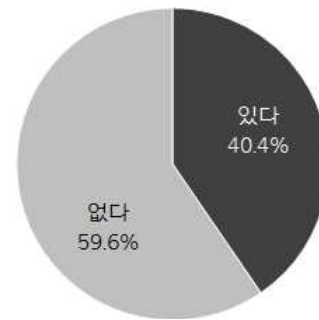
3)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직업전환 의향이 없다 59.6%, 직업전환 의향이 있다 40.4%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은퇴 후 직업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566	38.3%	40.4%
없다	834	56.5%	59.6%
계	1,400	94.9%	100.0%
응답하지 않음	76	5.1%	-
합계	1,476	100.0%	-

[그림 15]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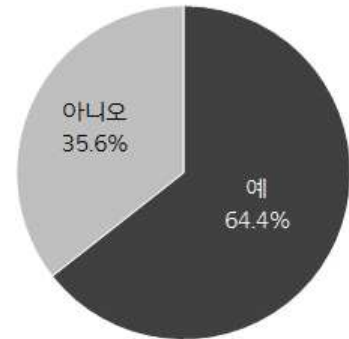
4)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조사 결과, 예 64.4%, 아니오 35.6%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	892	60.4%	64.4%
아니오	493	33.4%	35.6%
계	1,385	93.8%	100.0%
응답하지 않음	91	6.2%	-
합계	1,476	100.0%	-

[그림 16]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6. 상해재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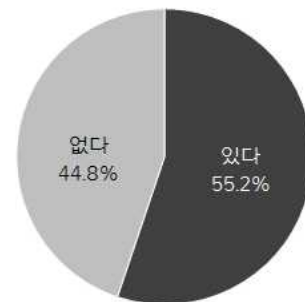
1) 무용 활동 중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 경험 여부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55.2%, '없다' 44.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무용 활동을 하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800	54.2%	55.2%
없다	650	44.0%	44.8%
계	1,450	98.2%	100.0%
응답하지 않음	26	1.8%	-
합계	1,476	100.0%	-

[그림 17]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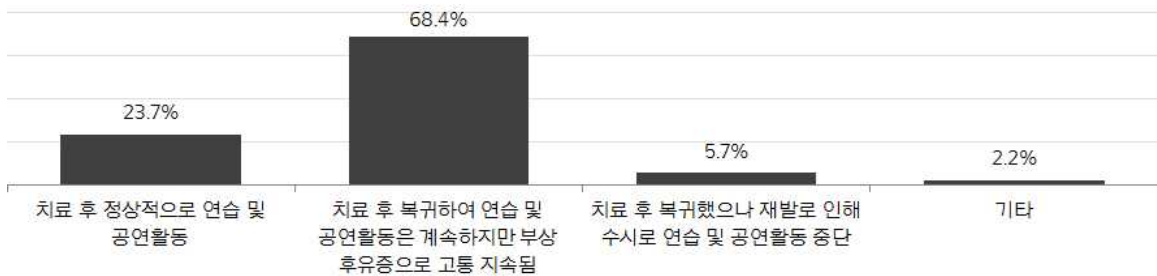
2) 부상이 연습이나 공연에 미치는 영향력

부상이 연습·공연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68.4%,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활동 23.7%,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5.7%,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부상이 연습/공연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활동	184	23.0%	23.7%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531	66.4%	68.4%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44	5.5%	5.7%
기타	17	2.1%	2.2%
계	776	97.0%	100.0%
응답하지 않음	24	3.0%	-
합계	800	100.0%	-

[그림 18]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7. 창작·예술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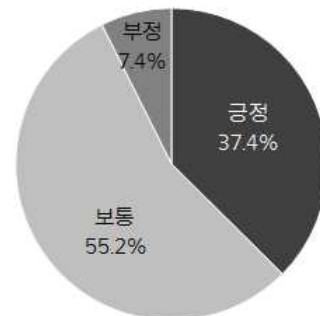
1) 공연활동 만족도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 37.4%,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 불만족) 7.4%로 나타났다.

[표 20]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만족	79	5.6%	37.4%
만족	449	31.8%	
보통	779	55.2%	55.2%
불만족	82	5.8%	7.4%
매우 불만족	22	1.6%	
합계	1,411	100.0%	100.0%

[그림 19]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 응답하지 않음 : 65명

2) 교육활동 분야(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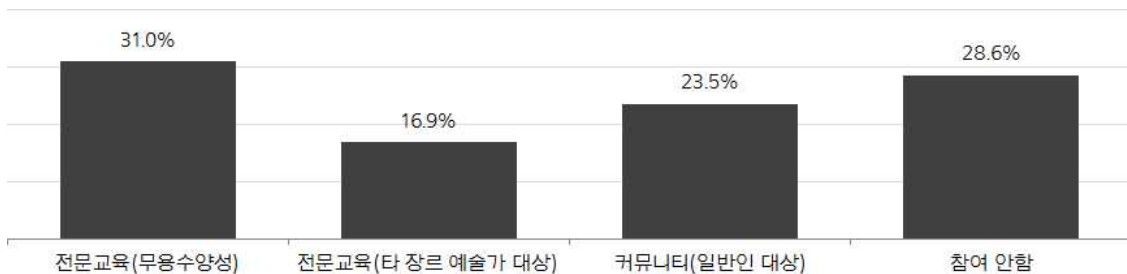
공연활동 외, 강사로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64.6%,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5.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강사로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교육(무용수양성) 38.3%, 커뮤니티(일반인 대상) 29.1%, 전문교육(타 장르 예술가 대상) 20.9% 순 이었다.

[표 21]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문교육(무용수양성)	519	31.0%	38.3%
전문교육(타 장르 예술가 대상)	283	16.9%	20.9%
커뮤니티(일반인 대상)	394	23.5%	29.1%
참여 안함	480	28.6%	35.4%
합계	1,676	100.0%	123.7%

※ 다중응답 허용

[그림 20]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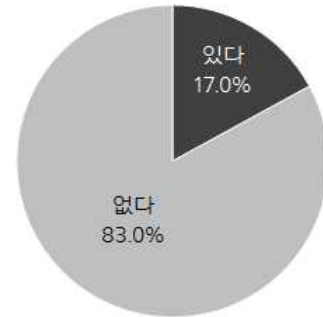
3) 최근 3년 간 지원금 수혜 여부

최근 3년 간 (소속된 단체 또는 개인) 지원금 수혜 여부 조사 결과, 없다 83.0%, 있다 17.0%로 응답자 10명 중 약8명이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최근 3년간 수혜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235	15.9%	17.0%
없다	1,145	77.6%	83.0%
계	1,380	93.5%	100.0%
응답하지 않음	96	6.5%	-
합계	1,476	100.0%	-

[그림 21] 최근 3년간 수혜경험 여부



4)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1순위)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1순위 조사 결과,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26.6%,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1.0%,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19.6%, 오디션 17.0%,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4.6%, 잡마켓·아트마켓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오디션	205	13.9%	17.0%
잡마켓/아트마켓	14	0.9%	1.2%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76	11.9%	14.6%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321	21.7%	26.6%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236	16.0%	19.6%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53	17.1%	21.0%
계	1,205	81.6%	100.0%
응답하지 않음	271	18.4%	-
합계	1,476	100.0%	-

8. 삶의 질

1) 전문무용수로서의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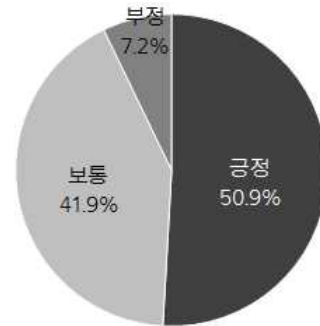
전문무용수로서의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조사 결과,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행복한 편) 50.9%, 행복하지 않다(전혀 행복하지 않다 + 행복하지 않은 편) 7.2%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전문무용수로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행복하다	89	6.1%	50.9%
행복한 편	649	44.8%	
보통	608	41.9%	41.9%
행복하지 않은 편	97	6.7%	7.2%
전혀 행복하지 않다	7	0.5%	
합계	1,450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26명

[그림 22]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2) 전문무용수들의 스트레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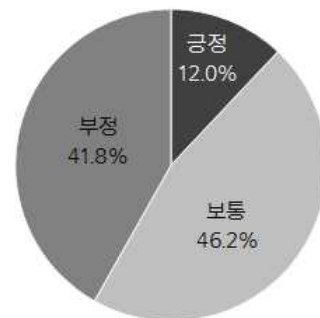
전문무용수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조사 결과, 심하다(매우 심하다 + 심한 편) 41.8%, 심하지 않다(전혀 심하지 않다 + 심하지 않은 편) 12.0%로 나타났다.

[표 25]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전혀 심하지 않다	10	0.7%	12.0%
심하지 않은 편	164	11.3%	
보통	667	46.2%	46.2%
심한 편	486	33.6%	41.8%
매우 심하다	118	8.2%	
합계	1,445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31명

[그림 23]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목차

I. 조사의 짜임 - 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1. 조사개요	1
2. 조사현황	1
3. 분석 참고 내용	1

II.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1) 성별	3
(2) 최종학력	4
(3) 연령	4
(4) 결혼여부 및 자녀	5
(5) 거주지	6
(6) 주 활동지	6
2. 전문 무용수 일반 현황	8
(1) 소속단체 특성	8
(2) 소속단체 창립년도	8
(3)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9
(4) 무용수 활동 여부	9
(5)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10
(6) 무용수 활동분야	11
(7) 안무가 활동 여부	12
(8)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차이	12
(9) 안무가 활동분야	13
(10) 활동경력	14
(11) 타 분야 작품 활동	15

3. 전문무용수 교육 현황 및 과정	16
(1)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16
(2)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여부	17
(3)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17
(4)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횟수	18

III.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1.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사업	20
(1)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인지 여부	20
(2) 지원센터 인지 경로	21
(3)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 지원제도	21
(4)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22
(5)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각 프로그램 이용 여부	22
(6)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전문무용수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	23
(7)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3
(8)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차이	26
(9)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28
(10) 직업전환관련 희망 프로그램	29
2. 은퇴와 직업전환 현황	30
(1) 은퇴 예상 시기	30
(2)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시기 차이	30
(3)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32
(4)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32
(5) 진로결정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32
(6)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33
(7) 전직 의향이 있는 이유	33
(8) 전직 예상 시기	34
(9) 전직 희망 직업	35
(10) 전직 고려 시 어려운 점	36
3. 무용공연활동에서 상해 현황 및 지원 현황	37

(1)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37
(2)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37
(3)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38
(4)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38
(5) 최초 부상 시기	39
(6) 부상 부위	40
(7)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40
(8)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41
(9) 상해 후 보험처리 하지 않은 이유	41
(10)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	42
(11)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42
4. 전문무용수들의 복지 실태	43
(1)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국민연금	43
(2)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43
(3)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44
(4)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44
(5)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이	45
(6)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이	50
5. 고용형태 실태 조사	54
(1) 무용공연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54
(2) 소속단체 고용형태	54
(3)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5
(4)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55
(5)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56
(6) 계약방식	57
(7)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7
(8)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차이	58
(9)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경제적 보상 적절 여부 차이	59
(10)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개런티 받은 비율	60
6. 무용수들의 교육 현황	61

(1)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61
(2) 강사로서 교육활동 비율	61
(3)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62

IV. 전문무용수 공연현황

1. 창작예술관련 활동	64
(1)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	64
(2) 안무가로서의 공연 작품 수	64
(3)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65
(4)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66.8점	65
(5) 공연활동 불만족 이유	66
2. 무용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현황	67
(1)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67
(2) 수혜 횟수	67
3. 무용공연활동에 참여 경로 현황	68
(1)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68
(2)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69
(3) 100석 규모/30분 공연/공연 전 3개월 기간 소요 조건일 시 출연료 적정 수준	70
(4) 무용공연활동 전반적 여건 만족도	70
(5) 공연활동여건 문제점/개선점	71
4. 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 현황	72
(1) 한 작품 당 공연준비 정도	72
(2) 공연준비 연습량 정도	72
(3) 평소 연습량 정도	73
(4)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주 평균)	73
(5)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하루 평균)	74

V. 전문무용수 경제 및 직업 현황

1. 전문 무용수들의 경제현황	76
(1) 월 평균 가구 소득	76
(2) 월 평균 본인 소득	76
(3)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77
(4)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78
(5)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79
(6) 월 평균 본인 지출	81
(7)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	81
(8) 월 평균 소득 비율	82
(9)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2
(10)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	83
(11)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	83
(12) 무용 이외 경제활동 시간투자 비율 : 평균 43.6%	84
(13)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5
(14)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85
(15)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87
(16)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88
2. 사회기여 활동 현황	91
(1) 사회기여활동 경험 여부	91
(2)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91

VI.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질

1. 전문무용수들의 행복 수준	93
(1)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3
(2)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93
(3)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4
(4)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94
(5)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95

2. 전문무용수들의 스트레스 수준	97
(1)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7
(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97
(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98
(4)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98
(5)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	99
(6)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	100
(7)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102
(8)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02

VII. 무용단체

1. 응답 결과	105
(1) 소재지	105
(2) 단체특성	106
(3) 창립년도	106
(4) 사업자등록 여부	107
(5) 주 활동 장르	107
2. 고용 현황	108
(1) 단체 총 인원	108
(2) 고용형태별 인원	108
(3) 조직별 인원	109
(4) 근무 형태별 인원	109
(5)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별 인원	110
3. 예술·공연 활동	111
(1) 최근 3년간 작품 수	111
(2) 한 공연 당 공연 횟수 및 무용수 수	111
(3)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112
4. 기타 지원	113

(1)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항목	113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건수 및 액수	113
(3)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114

〈붙이는 자료〉 설문지	117
---------------------------	-----

표 차례

[표 1] 응답자의 성별	3
[표 2] 2007년과 2013년의 응답자의 성별 비교	3
[표 3] 응답자의 최종학력	4
[표 4] 응답자의 연령	5
[표 5] 결혼 여부	5
[표 6] 자녀 유무	5
[표 7] 거주지 분포	6
[표 8] 주 활동지 분포	7
[표 9]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8
[표 10] 소속단체의 창립년도	9
[표 11]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파악 현황	9
[표 12] 무용수 활동여부	10
[표 13]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10
[표 14] 무용수의 활동분야	11
[표 15] 안무가 활동여부	12
[표 16]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13
[표 17] 안무가 활동분야	14
[표 18] 전문무용수의 활동경력	14
[표 19] 타 분야 작품 활동 현황	15
[표 20]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16
[표 21]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외에 무용교육 여부	17
[표 22]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현황	17
[표 23]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횟수	18
[표 24]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19
[표 25]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21
[표 26]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 지원제도	21
[표 27]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22
[표 28]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각 프로그램 이용자수	23
[표 29]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23
[표 30]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	24

[표 31]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24
[표 32]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25
[표 33]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	26
[표 34]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27
[표 35]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28
[표 36]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29
[표 37] 은퇴 예상 시기	30
[표 38]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 시기	31
[표 39]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32
[표 40]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32
[표 41] 진로준비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33
[표 42]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33
[표 43] 전직 의향이 있는 이유	34
[표 44] 전직 예상 시기	35
[표 45]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37
[표 46]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37
[표 47]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38
[표 48]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39
[표 49] 최초 부상 시기	39
[표 50] 부상 부위	40
[표 51]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41
[표 52]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41
[표 53]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41
[표 54]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42
[표 55]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42
[표 56] 전문무용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43
[표 57]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44
[표 58]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44
[표 59]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45
[표 60]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연금보험	46
[표 61]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47
[표 62]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48
[표 63]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50

[표 64]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51
[표 65]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52
[표 66]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53
[표 67]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53
[표 68] 무용공연 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54
[표 69]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54
[표 70]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5
[표 71]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6
[표 72]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56
[표 73] 전문무용수의 고용 계약방식	57
[표 74]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8
[표 75]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8
[표 76]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9
[표 77]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61
[표 78]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62
[표 79]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	63
[표 80]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	64
[표 81] 안무가로서의 공연 작품 수	65
[표 82]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65
[표 83]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66
[표 84]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67
[표 85] 수혜 횟수	67
[표 86]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1순위	68
[표 87]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2순위	68
[표 88]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3순위	69
[표 89]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70
[표 90] 100석 규모/30분 공연/공연 전 3개월 기간 소요 조건일 시 출연료 적정 수준	70
[표 91] 한 작품 당 공연 준비 정도	71
[표 92] 공연준비 연습량 정도	72
[표 93] 평소 연습량 정도	72
[표 94]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주 평균)	73
[표 95]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하루 평균)	74
[표 96] 월 평균 가구 소득	76

[표 97] 월 평균 본인 소득	77
[표 98]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78
[표 99]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79
[표 100]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80
[표 101] 월 평균 본인 지출	81
[표 102]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	82
[표 103] 월 평균 소득 비율	82
[표 104]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3
[표 105]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3
[표 106]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4
[표 107] 경제활동 최우선적 현안	85
[표 108]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7
[표 109]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8
[표 110]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9
[표 111] 사회기여활동 경험	91
[표 112]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91
[표 113]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3
[표 114]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94
[표 115]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4
[표 116]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95
[표 117]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96
[표 118]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7
[표 119]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7
[표 120]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98
[표 121]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99
[표 12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100
[표 12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101
[표 124]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102
[표 125]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02
[표 126] 무용단체 소재지	105
[표 127] 무용단체 특성	106
[표 128] 무용단체 창립년도	106
[표 129] 무용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107

[표 130] 무용단체 주 활동 장르	107
[표 131] 무용단체 총 인원	108
[표 132] 고용형태 별 인원	108
[표 133] 무용단체 조직별 인원	109
[표 134] 무용단체 근무 형태별 인원	109
[표 135]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별 인원	110
[표 136] 무용단체의 최근 3년간 작품 수	111
[표 137] 무용단체의 한 공연 당 공연 횟수 및 무용수 수	111
[표 138] 무용단체의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112
[표 139]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 항목	113
[표 140]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건수 및 액수	114
[표 141]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114

그림 차례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3
[그림 2] 2007년과 2013년의 응답자의 성별 비교	3
[그림 3] 응답자의 최종학력	4
[그림 4] 응답자의 연령	5
[그림 5] 결혼 여부	5
[그림 6] 자녀 유무	5
[그림 7] 거주지 분포	6
[그림 8] 주 활동지 분포	7
[그림 9]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8
[그림 10]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9
[그림 11]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9
[그림 12] 무용수 활동여부	10
[그림 13]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11
[그림 14] 무용수의 활동분야	12
[그림 15] 안무가 활동 여부	12
[그림 16]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13
[그림 17] 전문무용수의 타 분야 작품 활동 현황	17
[그림 18]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16
[그림 19]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외에 무용교육 여부	17
[그림 20]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현황	17
[그림 21]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20
[그림 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21
[그림 23]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의 지원제도	22
[그림 24]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22
[그림 25]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23
[그림 26]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5
[그림 27]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 순위)	26
[그림 28]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27
[그림 29]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28

[그림 30]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29
[그림 31] 은퇴 예상 시기	30
[그림 32]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 시기	31
[그림 33]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32
[그림 34]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32
[그림 35] 진로준비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33
[그림 36]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33
[그림 37] 전직 의향이 있는 경우	34
[그림 38] 전직 예상 시기	35
[그림 39] 전직 희망 직업	35
[그림 40] 전직 고려 시 어려운 점	36
[그림 41]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37
[그림 42]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37
[그림 43]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38
[그림 44]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39
[그림 45] 최초 부상 시기	39
[그림 46] 부상 부위	40
[그림 47]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41
[그림 48]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41
[그림 49]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42
[그림 50] 문무용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43
[그림 51]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44
[그림 52]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44
[그림 53]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45
[그림 54]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46
[그림 55]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47
[그림 56]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49
[그림 57]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50
[그림 58]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51
[그림 59]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52
[그림 60]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53
[그림 61]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53
[그림 62] 무용공연 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54

[그림 63]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54
[그림 64]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5
[그림 65]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6
[그림 66]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57
[그림 67] 전문무용수의 고용 계약방식	57
[그림 68]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8
[그림 69]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59
[그림 70]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60
[그림 71]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61
[그림 72]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61
[그림 73]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65
[그림 74]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66
[그림 75] 공연활동 불만족 이유	66
[그림 76]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67
[그림 77]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69
[그림 78]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70
[그림 79] 무용공연활동 전반적 여건 만족도	71
[그림 80] 공연활동여건 문제점/개선점	71
[그림 81] 월 평균 가구 소득	76
[그림 82] 월 평균 본인 소득	77
[그림 83]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78
[그림 84]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79
[그림 85]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80
[그림 86] 월 평균 본인 지출	81
[그림 87]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3
[그림 88]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3
[그림 89]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84
[그림 90]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5
[그림 91]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7
[그림 92]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88
[그림 93]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90
[그림 94] 사회기여활동 경험	91
[그림 95]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91

[그림 96]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3
[그림 97]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94
[그림 98]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94
[그림 99]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95
[그림 100]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96
[그림 101]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7
[그림 10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7
[그림 10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98
[그림 104]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99
[그림 105]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100
[그림 106]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101
[그림 107]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102
[그림 108]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03
[그림 109] 무용단체 소재지	105
[그림 110] 무용단체 특성	106
[그림 111] 무용단체 창립년도	106
[그림 112] 무용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107
[그림 113] 무용단체 주 활동 장르	107
[그림 114] 무용단체의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112
[그림 116]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 항목	113

I.

조사의 짜임

누구에게·언제·어떻게

I. 조사의 짜임 - 누구에게·언제·어떻게

1. 조사개요

- 조사명 :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 주 관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대 행 : 문화리서치 피오
- 계약기간 : 2013년 3월 ~ 8월, 약 6개월 간
- 조사기간 : 2013년 3월 ~ 7월, 약 5개월 간
- 조사목적 : 2007년 조사에 이어 국내 전문무용수의 교육, 창작활동, 경제활동 등 삶의 중요한 단면을 파악함으로써 전문무용수만이 지닌 창작활동과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활용하기 위함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면대면, 전화, 온라인, 팩스 등 활용)
- 조사규모 :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무용수 약 1,000~1,500명, 전문무용단체 200여개

2. 조사현황

구분	전문무용수	무용단체	계
목표	1,250	200	1,450
결과	1,476	60	1,536
목표달성도	118.1%	30.0%	105.9%

3. 분석 참고 내용

- 전문무용수
 - 횡수, 금액 응답의 경우 '셀 수 없음', '무수히 많음' 등과 같은 응답은 수치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별 이용여부 및 만족도는 응답자 수가 적어 이용여부만 간단하게 제시
- 무용단체
 - 무용단체 고용 현황의 경우 형태별 인원과 총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함.

II.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II.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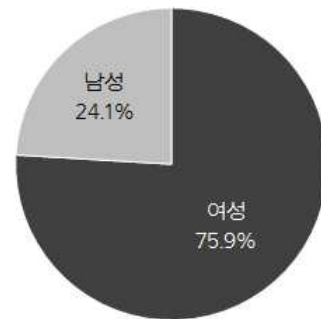
(1) 성별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여성이 75.9%, 남성이 24.1%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성별편중이 심한 장르적 특성과 더불어 남성 전문무용가에 대한 편견과 남아의 조기교육 비활성화와 같은 국내 무용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구분	응답자수	비율
여성	1,121	75.9%
남성	355	24.1%
합계	1,476	100.0%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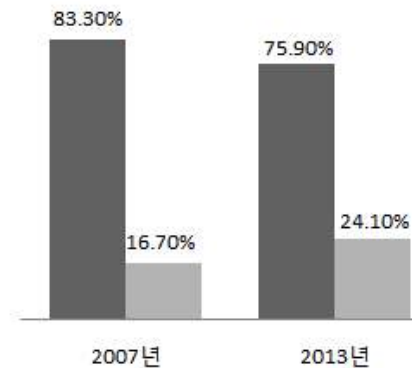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7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한 응답자의 남성비율이다. 이는 응답자 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남성 무용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표 2] 2007년과 2013년의 응답자의 성별 비교

구분	2007년		2013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여성	759	83.30%	1,121	75.90%
남성	152	16.70%	355	24.10%
합계	1,476	100.00%	1,476	100.00%

[그림 2] 2007년과 2013년의 응답자의 성별 비교



(2) 최종학력

최종학력에 따른 조사 결과, 대학교 졸업 43.4%, 대학교 재학 22.0%, 대학원 졸업 17.4%, 대학원 재학 14.7%, 고졸 이하 1.3%,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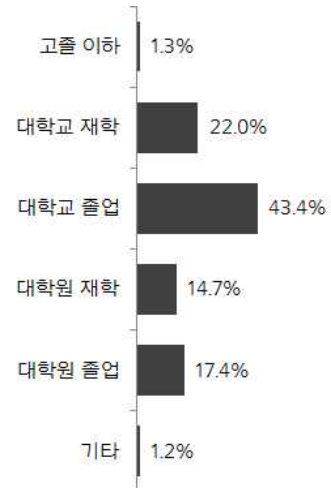
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무용장르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 양악과 무용의 경우는 기존 사례에서도 높게 나오는 편이다.

[표 3] 응답자의 최종학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고졸 이하	18	1.2%	1.3%
대학교 재학	306	20.7%	22.0%
대학교 졸업	603	40.9%	43.4%
대학원 재학	204	13.8%	14.7%
대학원 졸업	241	16.3%	17.4%
기타	16	1.1%	1.2%
계	1,388	94.0%	100.0%
응답하지 않음	88	6.0%	-
합계	1,476	100.0%	-

※ 대학원 졸업 : 석사 188명, 박사 28명

[그림 3] 응답자의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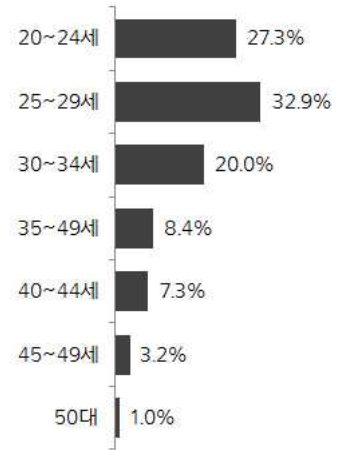
(3) 연령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25~29세 32.4%, 20~24세 26.8%, 30~34세 19.6%, 35~39세 8.3%, 40~44세 7.2%, 45~49세 3.2%, 50대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연령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20~24세	396	26.8%	27.3%
25~29세	478	32.4%	32.9%
30~34세	290	19.6%	20.0%
35~39세	122	8.3%	8.4%
40~44세	106	7.2%	7.3%
45~49세	47	3.2%	3.2%
50대	14	0.9%	1.0%
계	1,453	98.4%	100.0%
응답하지 않음	23	1.6%	-
합계	1,476	100.0%	-

[그림 4]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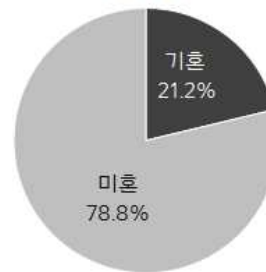
(4) 결혼여부 및 자녀

결혼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미혼 78.8%, 기혼 21.2% 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유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녀가 있다 16.3%, 자녀가 없다 83.7%로 응답하였다.

[표 5] 결혼 여부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기혼	308	20.9%	21.2%
미혼	1,142	77.4%	78.8%
계	1,450	98.2%	100.0%
응답하지 않음	26	1.8%	-
합계	1,47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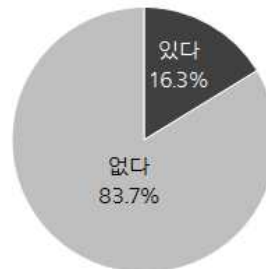
[그림 5] 결혼 여부



[표 6] 자녀 유무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자녀 있다	198	13.4%	16.3%
자녀 없다	1,019	69.0%	83.7%
계	1,217	82.5%	100.0%
응답하지 않음	259	17.5%	-
합계	1,476	100.0%	-

[그림 6] 자녀 유무



(5)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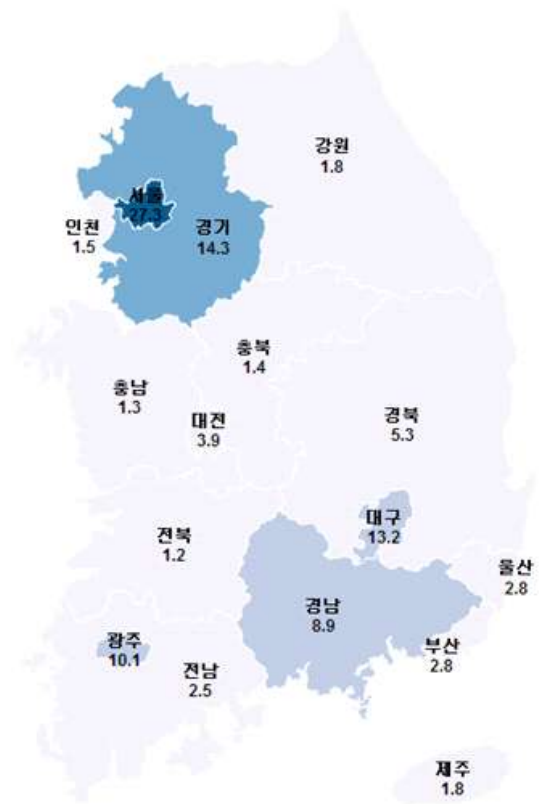
2007년 보고서는 서울과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16개 도시를 나누어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거주지 조사는 주 활동지와 비교를 위한 조사로 거주지와 활동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조사 결과, 서울 27.3%, 경기 14.3%, 대구 12.9%, 광주 10.1%, 경남 8.9%, 경북 5.3%, 대전 3.9%, 울산 2.8%, 부산 2.8%, 전남 2.4%, 강원 1.8%, 제주 1.8%, 인천 1.5%, 충북 1.4%, 충남 1.3%, 전북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거주지 분포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서울	396	26.8%	27.3%
경기	208	14.1%	14.3%
인천	22	1.5%	1.5%
대전	56	3.8%	3.9%
광주	146	9.9%	10.1%
대구	191	12.9%	13.2%
울산	40	2.7%	2.8%
부산	40	2.7%	2.8%
강원	26	1.8%	1.8%
충북	20	1.4%	1.4%
충남	19	1.3%	1.3%
전북	18	1.2%	1.2%
전남	36	2.4%	2.5%
경북	77	5.2%	5.3%
경남	129	8.7%	8.9%
제주	26	1.8%	1.8%
계	1,450	98.2%	100.0%
응답하지 않음	26	1.8%	-
합계	1,476	100.0%	-

[그림 7] 거주지 분포



(6) 주 활동지

주 활동 지역에 대한 조사는 2007년도 조사에서 없는 사항으로 전문무용수들의 주 활동지역을 파악하여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문무용수 주 활동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 35.7%, 경기 8.6%, 대구 12.1%, 광주 10.3%,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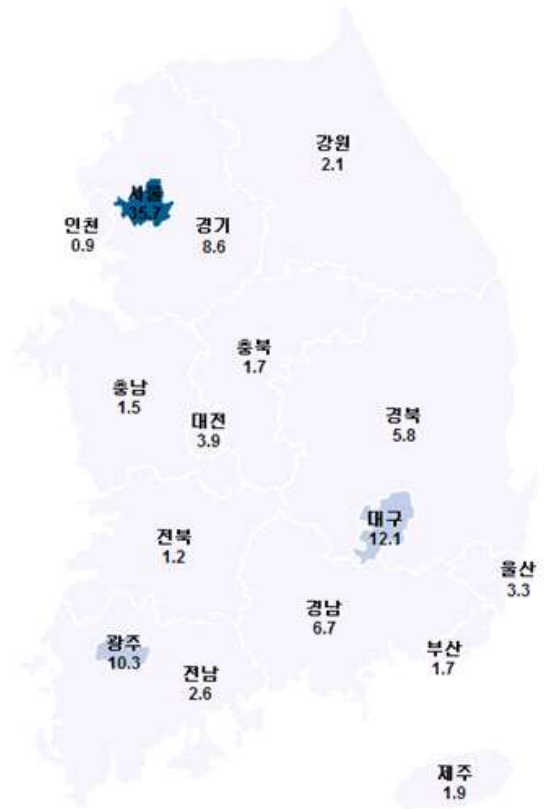
6.7%, 경북 5.8%, 대전 3.9%, 울산 3.3%, 전남 2.6%, 강원 2.1%, 제주 1.9%, 부산 1.7%, 충북 1.7%, 충남 1.5%, 전북 1.2%, 인천 0.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거주지로 응답한 경우가 27.3%, 경기도가 14.3%이나, 활동지의 경우 서울이 37%, 경기도가 8.6%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로 활동지 유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주 활동지 분포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서울	496	33.6%	35.7%
경기	119	8.1%	8.6%
인천	12	0.8%	0.9%
대전	54	3.7%	3.9%
광주	143	9.7%	10.3%
대구	168	11.4%	12.1%
울산	46	3.1%	3.3%
부산	24	1.6%	1.7%
강원	29	2.0%	2.1%
충북	24	1.6%	1.7%
충남	21	1.4%	1.5%
전북	17	1.2%	1.2%
전남	36	2.4%	2.6%
경북	81	5.5%	5.8%
경남	93	6.3%	6.7%
제주	26	1.8%	1.9%
계	1,389	94.1%	100.0%
응답하지 않음	87	5.9%	-
합계	1,476	100.0%	-

[그림 8] 주 활동지 분포



2. 전문 무용수 일반 현황

(1) 소속단체 특성

2007년 보고서는 소속 단체를 국립무용단체 단원, 광역시·도립무용단체 단원, 기초 시·군·구립 무용단체 단원·독립 무용수,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장 상주단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임의 단체, 면세사업자, 동문 단체, 프리랜서 등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소속단체 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 국/공립무용단체 35.0%, 프리랜서(독립무용수) 20.6%, 전문예술법인·단체 20.2%, 임의단체 15.2%, ‘공연장상주단체’ 11.0%, ‘동문단체’ 19.5%, ‘기타’ 8.8%, ‘면세사업자’ 7.7%, ‘사회적 기업’ 4.8%, ‘예비 사회적 기업’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구분	응답자수	비율	응답비율
국/공립무용단체	499	25.9%	35.0%
공연장상주단체	156	8.1%	11.0%
사회적기업	69	3.6%	4.8%
예비 사회적기업	34	1.8%	2.4%
전문예술법인, 단체	288	15.0%	20.2%
임의단체	216	11.2%	15.2%
면세사업자	110	5.7%	7.7%
동문단체	135	7.0%	9.5%
프리랜서(독립무용수)	294	15.3%	20.6%
기타	125	6.5%	8.8%
합계	1,926	100.0%	135.3%

[그림 9]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 기타 : 학교 23명, 학생 7명 등 ※ 다중응답 허용

(2) 소속단체 창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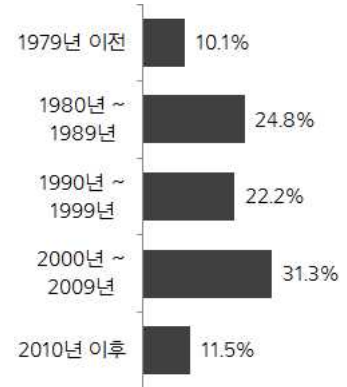
소속단체 창립년도에 따른 조사 결과, 10년 단위로 창립년도를 살펴보면 2000년~2009년이 전체 31.3%로 가장 많았고, 1980년~1989년 24.8%, 1990년~1999년 22.2%, 2010년 이후 11.5%, 1979년 이전 10.1%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소속 단체가 많이 창립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소속단체의 창립년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1979년 이전	99	6.7%	10.1%
1980년~1989년	243	16.5%	24.8%
1990년~1999년	218	14.8%	22.2%
2000년~2009년	307	20.8%	31.3%
2010년 이후	113	7.7%	11.5%
계	980	66.4%	100.0%
응답하지 않음	496	33.6%	-
합계	1,476	100.0%	-

[그림 10] 전문무용수의 단체 소속 현황



(3)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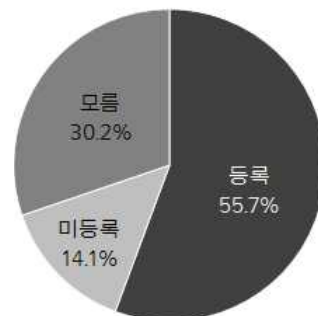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55.7%, ‘모른다’ 30.2%, ‘사업자 미등록’ 14.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들의 약 30%가 소속단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소속단체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문 무용수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11]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파악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등록	761	51.6%	55.7%
미등록	193	13.1%	14.1%
모름	413	28.0%	30.2%
계	1,367	92.6%	100.0%
응답하지 않음	109	7.4%	-
합계	1,476	100.0%	-

[그림 11] 소속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4) 무용수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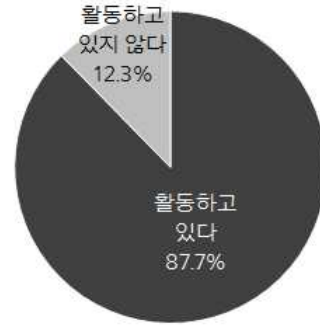
무용수 활동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87.7%,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12.3%로 응답하였다.

제1직업(본업)을 전문 무용수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여기는 비율이 12.3%라는 것으로, 응답자의 은퇴여부, 직업 형태, 기타 요인에 의해 응답자가 자신을 전문무용수로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무용수 활동여부

[표 12] 무용수 활동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활동하고 있다	1,280	86.7%	87.7%
활동하고 있지 않다	180	12.2%	12.3%
계	1,460	98.9%	100.0%
응답하지 않음	16	1.1%	-
합계	1,476	100.0%	-



(5)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20~2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83.1%, ‘활동하고 있지 않다’ 16.9% <25~2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90.7%, ‘활동하고 있지 않다’ 9.3% <30~3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89.9%, ‘활동하고 있지 않다’ 10.1% <35~3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89.3%, ‘활동하고 있지 않다’ 10.7% <40~4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88.7%, ‘활동하고 있지 않다’ 11.3% <45~4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73.9%, ‘활동하고 있지 않다’ 26.1% <50대> 경우, ‘활동하고 있다’ 76.9%, ‘활동하고 있지 않다’ 2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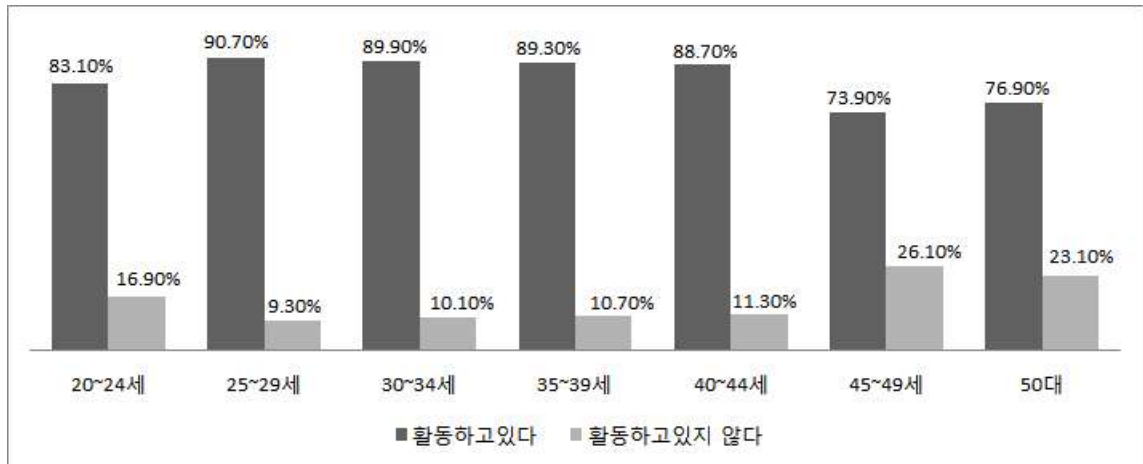
[표 13]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응답 자수	비율 %
활동하고 있다	325	83.1 %	429	90.7 %	259	89.9 %	108	89.3 %	94	88.7 %	34	73.9 %	10	76.9 %
활동하고 있지 않다	66	16.9 %	44	9.3% %	29	10.1% %	13	10.7 %	12	11.3% %	12	26.1 %	3	23.1 %
합계	391	100.0 %	473	100.0 %	288	100.0 %	121	100.0 %	106	100.0 %	46	100.0 %	13	100.0 %

조사 결과 ‘25~29세’에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45~49세’와 ‘50대’에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무용수들이 40대 중반 이후, 무용보다는 교육자로서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보고서에는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과 무용수의 활동 여부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세분화된 분석을 통한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여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연령에 따른 무용수 활동 여부 차이



(6) 무용수 활동분야

무용수 활동분야에 따른 조사 결과, 한국무용(창작) 45.2%, 한국무용(전통) 42.3%, 현대무용 28.5%, 기타 11.5%, 클래식 발레 10.9%, 창작 발레 10.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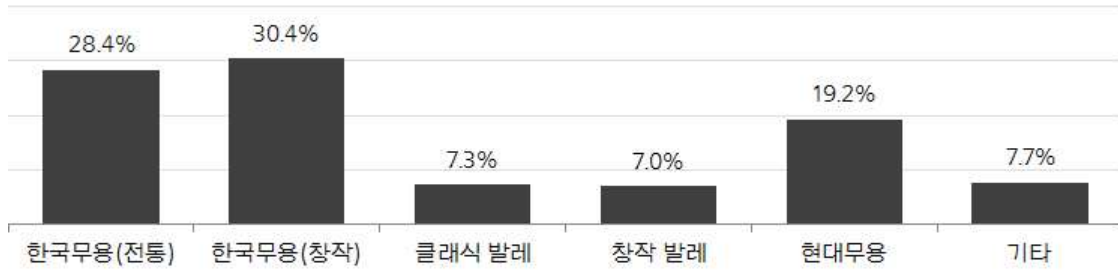
복수전공으로 활동분야가 하나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응답을 통해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14] 무용수의 활동분야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한국무용(전통)	516	28.4%	42.3%
한국무용(창작)	552	30.4%	45.2%
클래식 발레	133	7.3%	10.9%
창작 발레	128	7.0%	10.5%
현대무용	348	19.2%	28.5%
기타	140	7.7%	11.5%
합계	1,817	100.0%	148.8%

※ 다중응답 허용

[그림 14] 무용수의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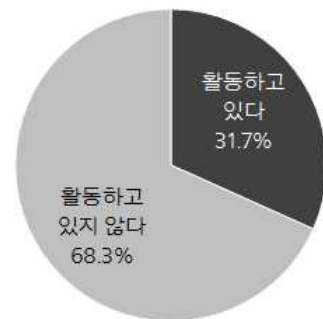
(7) 안무가 활동 여부

안무가 활동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활동하고 있지 않다 68.3%, 활동하고 있다 31.7%로 나타났다.

[표 15] 안무가 활동 여부

구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비율
활동하고 있다	448	30.4%	31.7%
활동하고 있지 않다	965	65.4%	68.3%
계	1,413	95.7%	100.0%
응답하지 않음	63	4.3%	-
합계	1,476	100.0%	-

[그림 15] 안무가 활동 여부



(8)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여부 차이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20~2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20.2%, 활동하고 있지 않다 79.8%로, '25~2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27.2%, 활동하고 있지 않다 72.8%로 응답하였다.

'30~3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41.7%, 활동하고 있지 않다 58.3%로, '35~3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41.4%, 활동하고 있지 않다 58.6%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47.5%, 활동하고 있지 않다 52.5%로 응답하였고, '45~49세' 경우, 활동하고 있다 48.9%, 활동하고 있지 않다 51.1%로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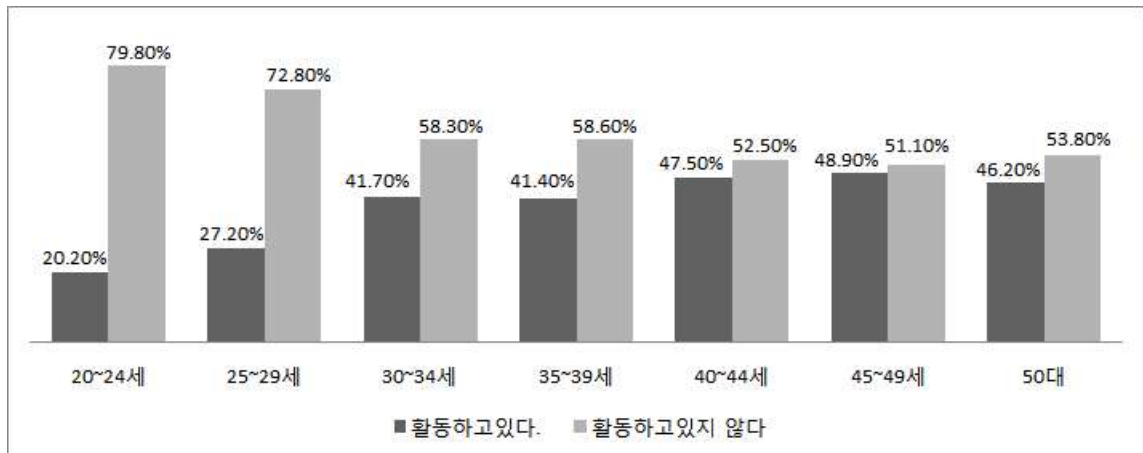
'50대' 경우, 활동하고 있다 46.2%, 활동하고 있지 않다 53.8%로 나타났다.

[표 16]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활동하고 있다	78	20.2%	126	27.2%	113	41.7%	46	41.4%	48	47.5%	22	48.9%	6	46.2%
활동하고 있지 않다	308	79.8%	338	72.8%	158	58.3%	65	58.6%	53	52.5%	23	51.1%	7	53.8%
합계	386	100.0%	464	100.0%	271	100.0%	111	100.0%	101	100.0%	45	100.0%	13	100.0%

2007년 보고서는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조사의 경우, 연령과 안무가 활동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여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림 16]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9) 안무가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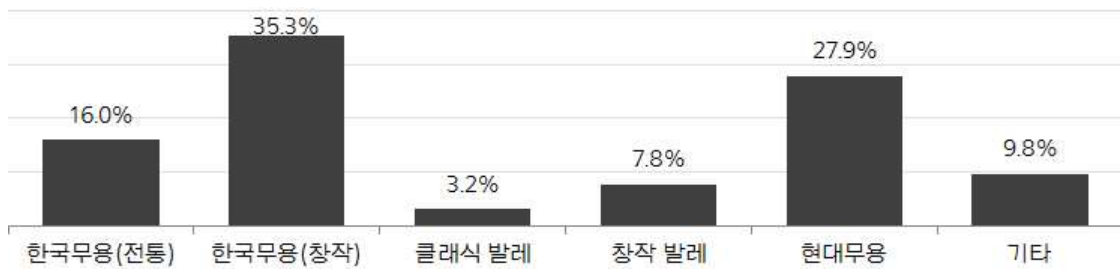
안무가 활동분야에 따른 조사 결과, 한국무용(창작) 44.3%, 현대무용 35.0%, 한국무용(전통) 20.0%, 기타 12.2%, 창작 발레 9.8%, 클래식 발레 4.0%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의 경우, 한국무용(창작)과 한국무용(전통)이 전체 58.8%였으나, 안무가 활동분야는 한국무용(창작)과 현대무용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였다.

[표 17] 안무가 활동분야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한국무용(전통)	90	16.0%	20.0%
한국무용(창작)	199	35.3%	44.3%
클래식 발레	18	3.2%	4.0%
창작 발레	44	7.8%	9.8%
현대무용	157	27.9%	35.0%
기타	55	9.8%	12.2%
합계	563	100.0%	125.4%

[그림 16] 연령에 따른 안무가 활동 여부



(10) 활동경력

활동경력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1개월, 최대 37년, 평균 7년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년 수는 5년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69명으로 나타났다.

[표 18] 전문무용수의 활동경력

구분	활동경력
최소	1개월
최대	37년
평균	약 7년
최다 빈도	5년
	69명(빈도)
	5.4%

(11) 타 분야 작품 활동

타 분야 작품 활동에 따른 조사 결과, 기타 공연예술이 48.9%로 가장 높았고, 한국무용 32.5%, 현대무용 26.6%, 연극 22.3%, 국악 20.9%, 오페라 19.7%, 발레 16.4%, 미술(전시관련 퍼포먼스) 8.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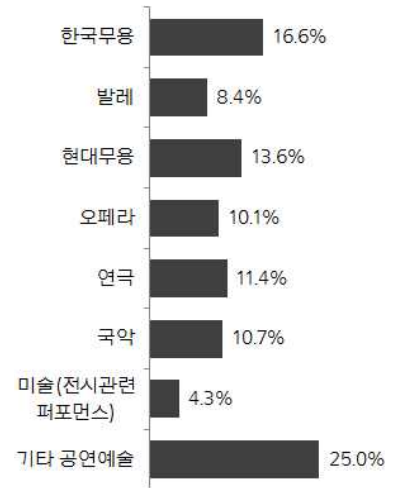
타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중 응답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19] 타 분야 작품 활동 현황

구분	빈도수	비율	응답비율
한국무용	412	16.6%	32.5%
발레	208	8.4%	16.4%
현대무용	337	13.6%	26.6%
오페라	250	10.1%	19.7%
연극	282	11.4%	22.3%
국악	265	10.7%	20.9%
미술(전시관련 퍼포먼스)	107	4.3%	8.4%
기타 공연예술	619	25.0%	48.9%
합계	2,480	100.0%	195.7%

※ 다중응답 허용

[그림 17] 전문무용수의 타 분야 작품 활동 현황



3. 전문무용수 교육 현황 및 과정

(1)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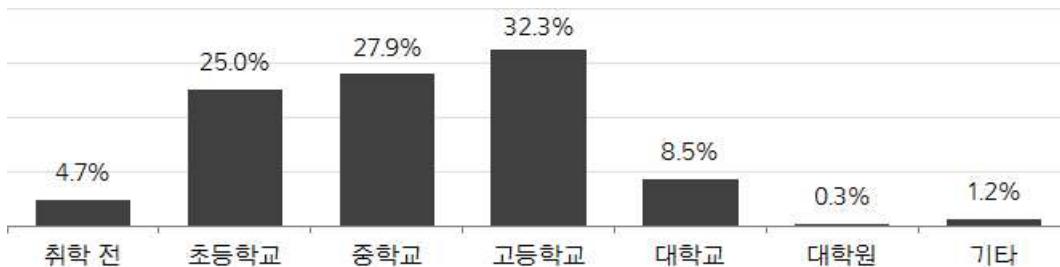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고등학교 32.3%, 중학교 27.9%, 초등학교 25.0%, 대학교 8.5%, 취학 전 4.7%, 대학원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 교육시기를 ‘고등학교’로 응답한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이전’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수가 56.9%임을 감안할 때, 전문무용수의 상당수가 이른 나이에 진로를 정하고 전문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0]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취학 전	69	4.7%	4.7%
초등학교	364	24.7%	25.0%
중학교	406	27.5%	27.9%
고등학교	471	31.9%	32.3%
대학교	124	8.4%	8.5%
대학원	4	0.3%	0.3%
기타	18	1.2%	1.2%
계	1,456	98.6%	100.0%
응답하지 않음	20	1.4%	-
합계	1,476	100.0%	-

[그림 18] 전문무용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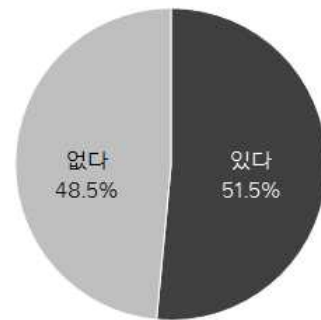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여부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51.5%, 없다 48.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종사자의 경우, 졸업 후 재교육 투자비율이 높은 만큼 다음, 전문무용수 응답자의 반 정도가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무용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외에 무용교육 여부

구분	응답지수	비율	유효비율
있다	740	50.1%	51.5%
없다	697	47.2%	48.5%
계	1,437	97.4%	100.0%
응답하지 않음	39	2.6%	-
합계	1,476	100.0%	-

[그림 19]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외에 무용교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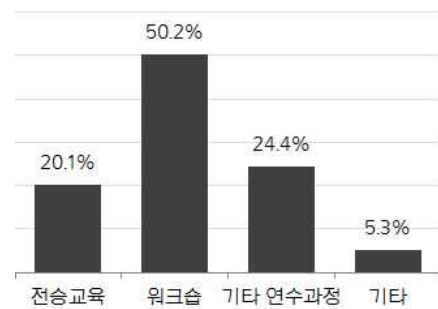
(3)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에 따른 조사 결과, 워크숍 63.9%, 기타 연수과정 31.0%, 전승교육 25.6%, 기타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다중 응답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22]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승교육	186	20.1%	25.6%
워크숍	464	50.2%	63.9%
기타 연수과정	225	24.4%	31.0%
기타	49	5.3%	6.7%
합계	924	100.0%	127.3%

[그림 20]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프로그램 현황



※ 다중응답 허용

(4)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횟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횟수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국내 수강 횟수는 1회, 국외 수강 횟수 1회로 나타났으며, ‘최대’ 국내 수강 횟수는 120회, 국외 수강 횟수는 10회로 나타났다.

평균 ‘국내 수강’ 횟수는 5.7회, ‘국외 수강’ 횟수는 2.0회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는 국내 수강 횟수 1회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22.7%가 응답하였다. 국외 수강의 경우 1회가 전체 응답자의 56.3%로 가장 많이 답하였다.

[표 23] 정규교육과정 이외 무용교육 수강 횟수

구분	국내 수강 횟수	국외 수강 횟수
최소	1회	1회
최대	120회	10회
평균	5.7회	2.0회
최빈	1회	1회
	96명	45명
	22.7%	56.3%

III.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III.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1.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사업

(1)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인지 여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49.1%, 설문조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30.8%,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다 20.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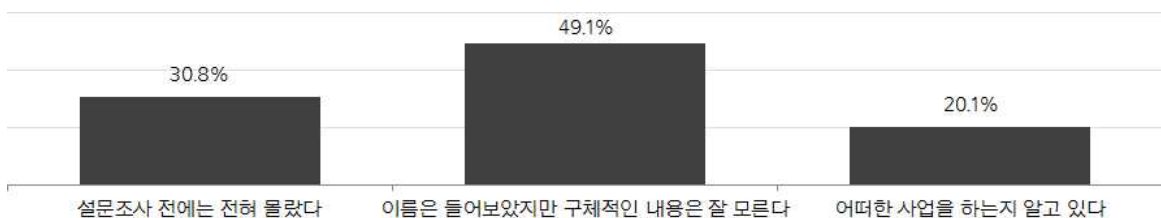
2007년의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전에 전혀 몰랐다 61.3%,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27.9%였으나, 2013년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전에 전혀 몰랐다 30.1%,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48.0%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이 2007년 10.8%에서 2013년 19.6%로 높아진 하였으나, 전체 인지도 상승에 비해서 부족한 상승률로 볼 수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사업소개 및 사업 활성화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표 24]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설문조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444	30.1%	30.8%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708	48.0%	49.1%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다	290	19.6%	20.1%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21]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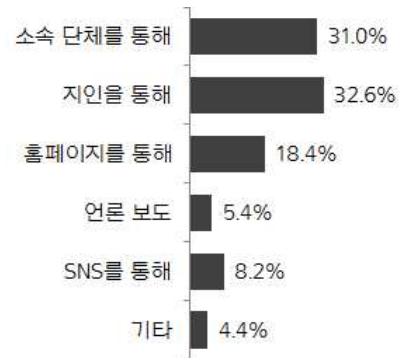
(2) 지원센터 인지 경로

지원센터 인지 경로에 따른 조사 결과, 지인을 통해 36.3%, 소속 단체를 통해 34.5%, 홈페이지를 통해 20.4%, SNS를 통해 9.2%, 언론 보도 6.0%, 기타 4.9%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인이나 소속단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언론보도 및 SNS를 통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표 25]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구분	빈도수	비율	응답비율
소속 단체를 통해	98	31.0%	34.5%
지인을 통해	103	32.6%	36.3%
홈페이지를 통해	58	18.4%	20.4%
언론 보도	17	5.4%	6.0%
SNS를 통해	26	8.2%	9.2%
기타	14	4.4%	4.9%
합계	316	100.0%	111.3%

[그림 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경로



※ 언론 보도 : 지면 2명, 인터넷 2명, 방송 1명

(3)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 지원제도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상해 재활 지원 73.1%,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지원 72.4%, 직업전환 지원 69.6%, 댄서스잡마켓 58.3%, 진료비 할인 54.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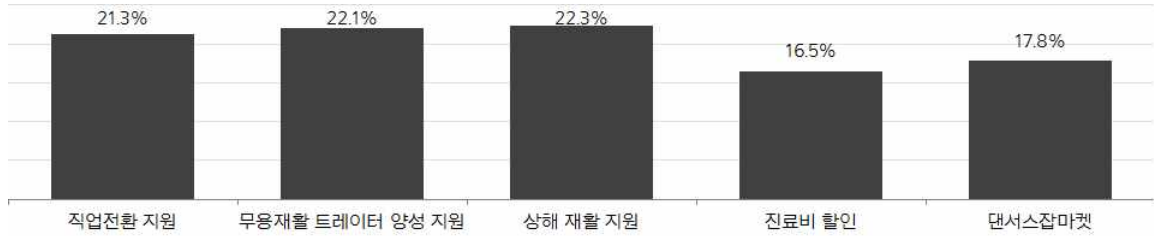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지원제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각 사업에 대해 고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26]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 지원제도

구분	빈도수	비율	응답비율
직업전환 지원	197	21.3%	69.6%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지원	205	22.1%	72.4%
상해 재활 지원	207	22.3%	73.1%
진료비 할인	153	16.5%	54.1%
댄서스잡마켓	165	17.8%	58.3%
합계	927	100.0%	327.6%

※ 다중응답 허용

[그림 23] 알고 있었던 지원센터의 지원제도



※ 다중응답 허용

(4)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이용한적 없다 92.3%, 이용하고 있다 7.7%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비해 직접 이용도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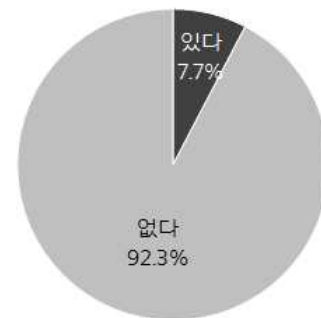
2007년 실태조사의 경우,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4%로 매우 높았다. 은퇴 후 종사하고 싶은 직업분야로 ‘무용 관련 직업 66.8%’,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직업 전환 재교육으로 ‘무용 관련 분야 54.3%’ 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무용수 상당수가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의지가 높은 데 반해,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무용수의 은퇴시기가 타 장르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강조되고 관련 지원제도와의 집중이 요구된다.

[표 27]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구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있다	108	7.3%	7.7%
없다	1,303	88.3%	92.3%
계	1,411	95.6%	100.0%
응답하지 않음	65	4.4%	-
합계	1,476	100.0%	-

[그림 24]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5)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각 프로그램 이용 여부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각 프로그램 별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댄서스잡마켓 21명, 상해재활 15명, 진료비 할인 12명, 직업전환 프로그램 5명,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각 프로그램 이용자수

구분	이용자 수
직업전환 프로그램	5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3
상해재활	15
진료비 할인	12
댄서스 잡마켓	21

(6)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전문무용수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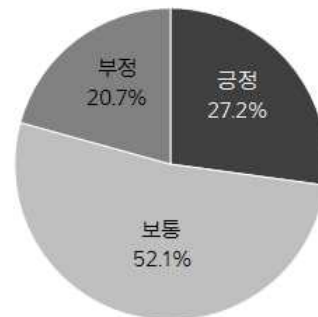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전문무용수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보통 52.1%, 도움이 되는 편 20.2%, 매우 도움 됨 7.0%, 도움 되지 않는 편 14.5%, 도움이 전혀 안됨 6.2%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센터 지원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29]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도움 됨	85	7.0%	27.2%
도움이 되는 편	247	20.2%	
보통	637	52.1%	52.1%
도움되지 않는 편	177	14.5%	20.7%
도움이 전혀 안됨	76	6.2%	
계	1,222	100.0%	100.0%

[그림 25]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



※ 응답하지 않음 : 254명

(7)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인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32.8%,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30.3%,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9.2%,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423	28.7%	30.3%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88	6.0%	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18	8.0%	8.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76	11.9%	12.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28	8.7%	9.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459	31.1%	32.8%
기타	6	0.4%	0.4%
계	1,398	94.7%	100.0%
응답하지 않음	78	5.3%	-
합계	1,476	100.0%	-

2순위인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9.6%,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7.9%,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17.1%,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6.0%,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4.6%,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4.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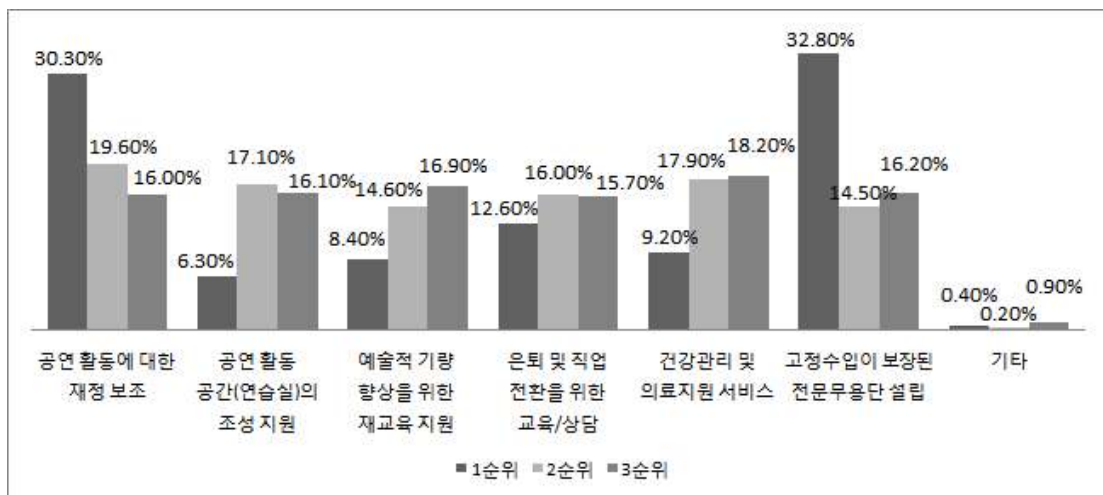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70	18.3%	19.6%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36	16.0%	17.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01	13.6%	14.6%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21	15.0%	16.0%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247	16.7%	17.9%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99	13.5%	14.5%
기타	3	0.2%	0.2%
계	1,377	93.3%	100.0%
응답하지 않음	99	6.7%	-
합계	1,476	100.0%	-

3순위인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에 따른 조사 결과,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8.2%,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6.9%,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6.2%,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16.1%,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6.0%,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5.7%,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17	14.7%	16.0%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18	14.8%	16.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229	15.5%	16.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13	14.4%	15.7%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246	16.7%	18.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219	14.8%	16.2%
기타	12	0.8%	0.9%
계	1,354	91.7%	100.0%
응답하지 않음	122	8.3%	-
합계	1,476	100.0%	-

[그림 26] 전문무용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전문무용수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로 꼽은 1순위는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32.8%)’이었고, 2순위는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19.6%)’, 3순위는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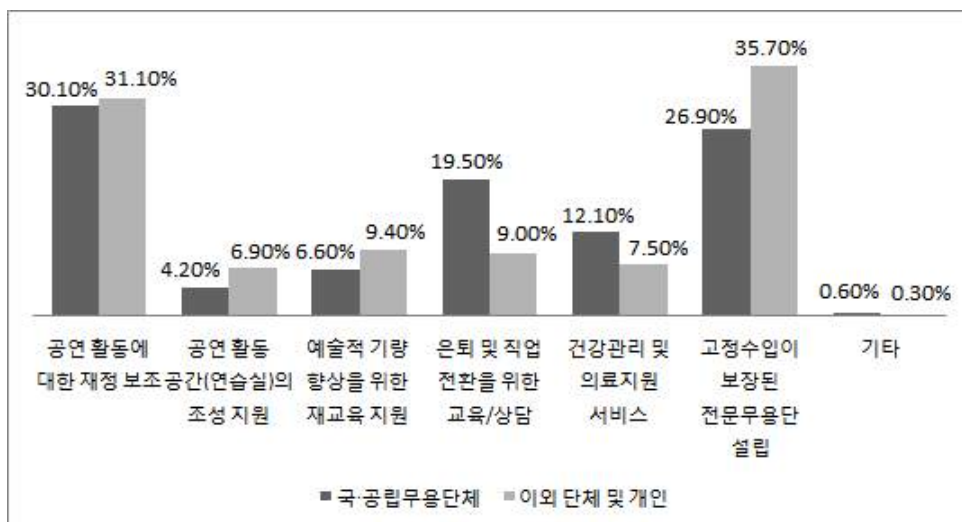
1순위인 경우,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30.1%,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26.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9.5%,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2.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6.6%,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4.2%,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35.7%,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31.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9.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9.0%,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7.5%,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6.9%,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순위)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42	30.1%	275	31.1%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0	4.2%	61	6.9%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31	6.6%	83	9.4%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92	19.5%	80	9.0%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57	12.1%	66	7.5%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27	26.9%	316	35.7%
기타	3	0.6%	3	0.3%
합계	472	100.0%	884	100.0%

[그림 27]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1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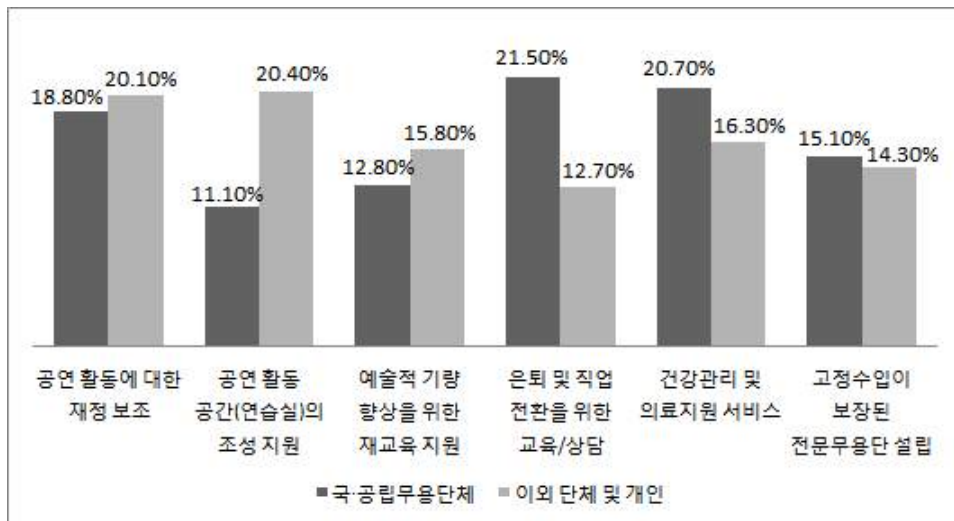
2순위인 경우,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21.5%,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20.7%,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8.8%,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5.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2.8%,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11.1%,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20.4%,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20.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5.8%,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4.3%,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6.3%,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2.7%, 기타 0.3% 로 나타났다.

[표 34]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88	18.8%	174	20.1%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52	11.1%	177	20.4%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60	12.8%	137	15.8%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01	21.5%	110	12.7%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97	20.7%	141	16.3%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71	15.1%	124	14.3%
기타	0	0.0%	3	0.3%
합계	469	100.0%	866	100.0%

[그림 28]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2순위)



3순위인 경우,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9.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9.2%,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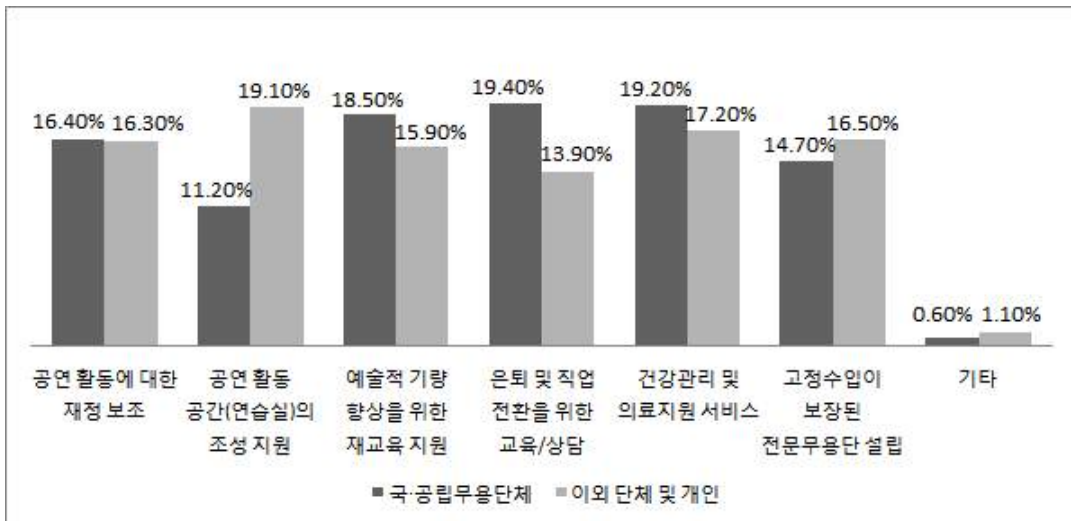
지원 18.5%,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6.4%,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4.7%,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11.2%,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19.1%,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17.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16.5%,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16.3%,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15.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13.9%,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연 활동에 대한 재정 보조	76	16.4%	138	16.3%
공연 활동 공간(연습실)의 조성 지원	52	11.2%	162	19.1%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원	86	18.5%	135	15.9%
은퇴 및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	90	19.4%	118	13.9%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서비스	89	19.2%	146	17.2%
고정수입이 보장된 전문무용단 설립	68	14.7%	140	16.5%
기타	3	0.6%	9	1.1%
합계	464	100.0%	848	100.0%

[그림 29] 소속단체에 따른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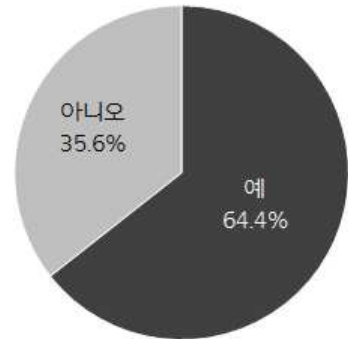
(9)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

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 이용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예 64.4%, 아니오 35.6%로 나타났다.

[그림 30]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표 36] 지원센터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용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	892	60.4%	64.4%
아니오	493	33.4%	35.6%
계	1,385	93.8%	100.0%
응답하지 않음	91	6.2%	-
합계	1,476	100.0%	-



(10) 직업전환관련 희망 프로그램

구분
35세이상 무용수에 대한 의료지원
경제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공연(객원) 아르바이트, 관련단체 구인구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직업 연결 시 취업능력 향상교육 무용관련 파트타임 소개 루트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노후보장이 가능한 무용 관련 직업을 다양화시켰으면
다양한 직업전환 프로그램개발, 시스템구축 예산확보
무용 관련된 직업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수외의 적성검사 및 진로방향 상담
무용과 관련된 통합적인 사업 아이템(외국에서 하고 있는) 소개 및 지
무용과 재학생들에게서 부터 인식변화를 시켜주면 어떨까요 오로지 무용만, 무용수로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믿고 있는 인식 구조가 바뀌면 추후에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이 수월하지 않을까.
무용수가 무용이외의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무용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
보통 회사원 처럼 대우 받으며 퇴직금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보험이 되었으면 한다
무용활동중에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의료비나 치료에 대한 사실이 많이 적용이 되었으면
사회전반적인 노인들의 프로그램의 교육이나 지도자로 나갈수 있는 공연이 있기를.
상해재활 및 진료비할인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현재 무용수들의 큰 힘이 됩니다. 직업 무용수들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관련서류나 행정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
전문무용단체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아카데미형식의 기관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합니다
합계

2. 은퇴와 직업전환 현황

2007년 실태조사 시 ‘무용수의 은퇴이유’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35.9%, 체력적 이유 17.9%, 상해로 인해 15.4%, 나이 때문에 5.1%, 경제적 이유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무용수의 은퇴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주변적 환경 혹은 신체적 요인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이번 조사의 경우 은퇴와 직업전환의 연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응답자의 70.3%가 전직 예상 시기를 은퇴 후 6개월 이내라고 답한 만큼, 은퇴시기 및 은퇴이유, 직업전환 부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1) 은퇴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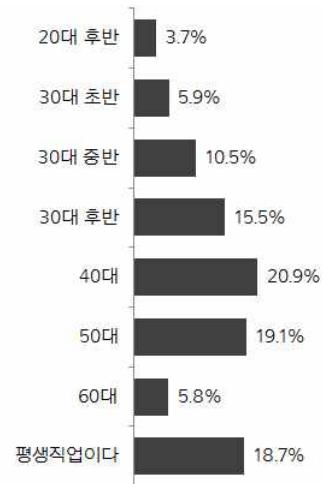
은퇴 예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평생 직업이다 18.7%, 40대 20.9%, 50대 19.1%, 30대 후반 15.5%, 30대 중반 10.5%, 30대 초반 5.9%, 60대 5.8%, 20대 후반 3.7%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시기를 40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2007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았다(25.2%). 하지만 ‘평생 직업’으로 응답한 경우도 18%이므로, 전문무용수로서 활동기간을 길게 예상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은퇴 예상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20대 후반	53	3.6%	3.7%
30대 초반	85	5.8%	5.9%
30대 중반	152	10.3%	10.5%
30대 후반	223	15.1%	15.5%
40대	301	20.4%	20.9%
50대	275	18.6%	19.1%
60대	84	5.7%	5.8%
평생 직업이다	269	18.2%	18.7%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31] 은퇴 예상 시기



(2)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시기 차이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시기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40대 28.8%, 50대 22.7%, 30대 후반 13.9%, 평생 직업이다 13.3%, 30대 중반 11.0%, 30대 초반 4.7%, 60대 4.3%, 20대 후반 16.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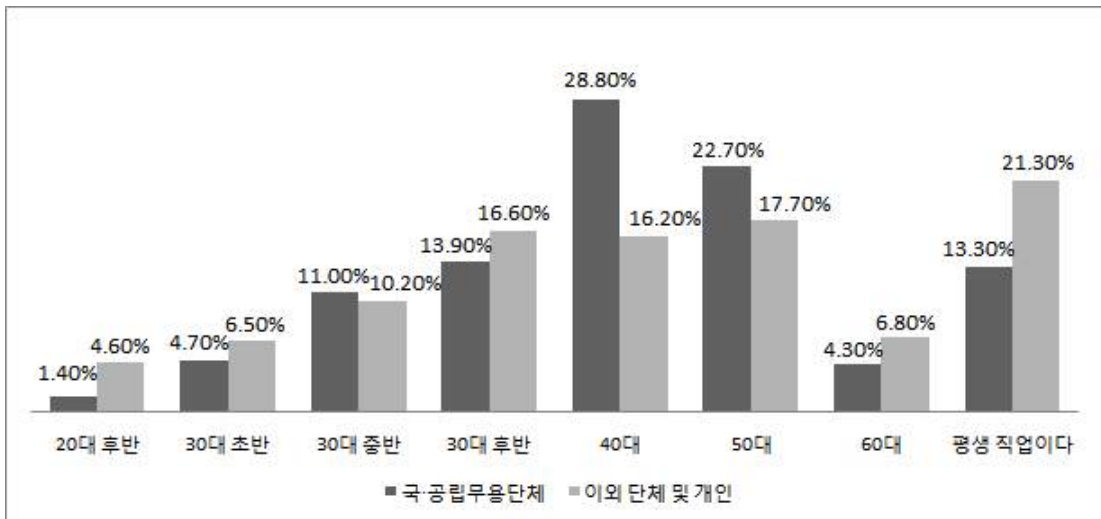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평생 직업이다 21.3%, 50대 17.7%, 30대 후반 16.6%, 40대 16.2%, 30대 중반 10.2%, 60대 6.8%, 30대 초반 6.5%, 20대 후반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공립무용단체 소속 응답자가 이외 단체 및 개인에 비해 은퇴시기를 이르게 잡고 있으며, 평생 직업이라는 인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 시기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대 후반	7	1.4%	42	4.6%
30대 초반	23	4.7%	59	6.5%
30대 중반	54	11.0%	93	10.2%
30대 후반	68	13.9%	151	16.6%
40대	141	28.8%	147	16.2%
50대	111	22.7%	161	17.7%
60대	21	4.3%	62	6.8%
평생 직업이다	65	13.3%	193	21.3%
합계	490	100.0%	908	100.0%

[그림 32] 소속단체에 따른 은퇴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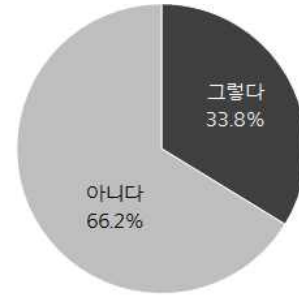
(3)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은퇴 후 진로준비가 되었는가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아니다 66.2%, 그렇다 3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그렇다	485	32.9%	33.8%
아니다	952	64.5%	66.2%
계	1,437	97.4%	100.0%
응답하지 않음	39	2.6%	-
합계	1,476	100.0%	-

[그림 33] 은퇴 후 진로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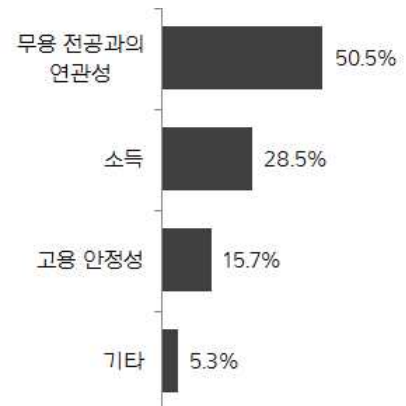
(4)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50.5%, 소득 28.5%, 고용 안정성 15.7%,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238	49.1%	50.5%
소득	134	27.6%	28.5%
고용 안정성	74	15.3%	15.7%
기타	25	5.2%	5.3%
계	471	97.1%	100.0%
응답하지 않음	14	2.9%	-
합계	485	100.0%	-

[그림 34] 진로준비 시 가장 중요한 요인



(5) 진로결정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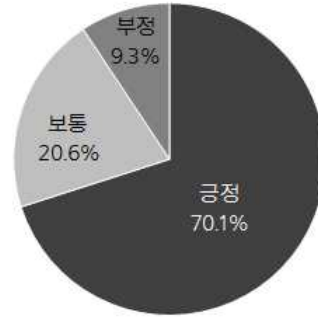
진로결정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편 45.2%, 매우 필요함 24.8%, 보통 20.6%, 필요 없는 편 5.3%, 전혀 필요 없음 4.0%로 나타났다.

[표 41] 진로준비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필요함	117	24.8%	70.1%
필요한 편	213	45.2%	
보통	97	20.6%	20.6%
필요 없는 편	25	5.3%	9.3%
전혀 필요 없음	19	4.0%	
계	471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14명

[그림 35] 진로준비 시 무용 전공과의 연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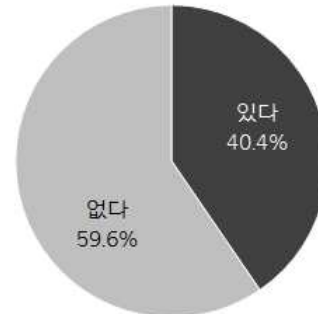
(6)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직업전환 의향이 없다 59.6%, 직업전환 의향이 있다 40.4%로 나타났다.

[표 42]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566	38.3%	40.4%
없다	834	56.5%	59.6%
계	1,400	94.9%	100.0%
응답하지 않음	76	5.1%	-
합계	1,476	100.0%	-

[그림 36] 은퇴 후 직업전환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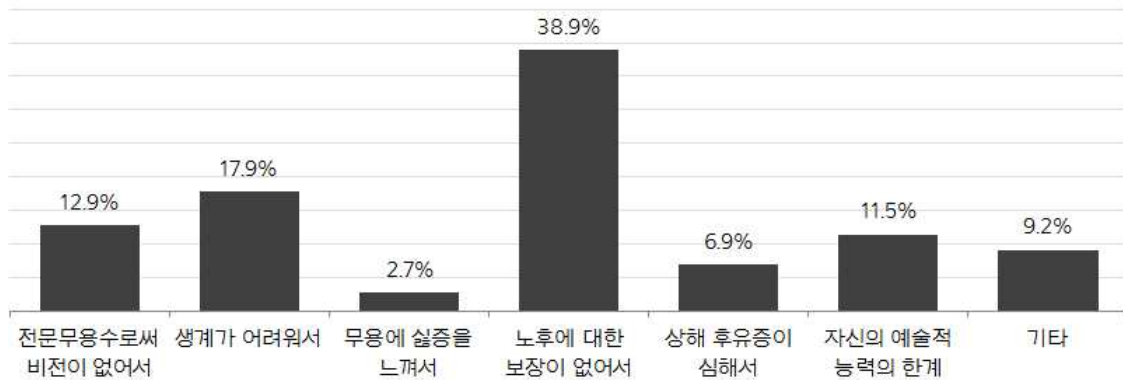
(7) 전직 의향이 있는 이유

전직 의향이 있는 이유에 따른 조사 결과,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44.9%, 생계가 어려워 20.7%, 전문무용수로서 비전이 없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14.9%,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13.2%, 기타 10.6%,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8.0%,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전직 의향이 있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문무용수로서 비전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80	12.9%	14.9%
생계가 어려워서	111	17.9%	20.7%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17	2.7%	3.2%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241	38.9%	44.9%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43	6.9%	8.0%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71	11.5%	13.2%
기타	57	9.2%	10.6%
합계	620	100.0%	115.5%

[그림 37] 전직 의향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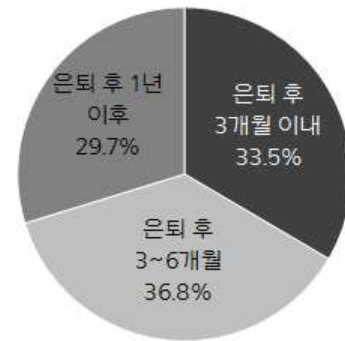
(8) 전직 예상 시기

전직 예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은퇴 후 3~6개월 36.8%, 은퇴 후 3개월 이내 33.5%, 은퇴 후 1년 이후 2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직 예상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은퇴 후 3개월 이내	171	30.2%	33.5%
은퇴 후 3~6개월	188	33.2%	36.8%
은퇴 후 1년 이후	152	26.9%	29.7%
계	511	90.3%	100.0%
응답하지 않음	55	9.7%	-
합계	566	100.0%	-

[그림 38] 전직 예상 시기



(9) 전직 희망 직업

전직 희망 직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받은 결과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림40]에서 보다시피 가장 많은 빈도의 단어는 ‘개인사업’, ‘자영업’, ‘강사·선생님·교사’ 등이었다. 전문 무용수가 전직 시 희망직업으로 전공 관련 교육에 외에 개인 사업으로의 전직 희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무용수들의 보수가 다른 예술계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9] 전직 희망 직업



(10) 전직 고려 시 어려운 점

전직 고려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받은 결과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등이다. 전직이 경제적인 면은 물론, 환경 변화에 대한 어려움 및 두려움에 대한 부담도 지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0] 전직 고려 시 어려운 점



3. 무용공연활동에서 상해 현황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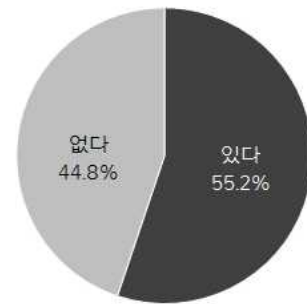
(1)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55.2%, '없다' 44.8% 로 나타났다. 2007년 경우, 90.2%의 무용수가 무용 활동 중 부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 부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년간의 부상 빈도 결과 1회 이상의 부상을 응답한 경우가 98.4%로 대부분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주 이내 치료 후 연습 및 공연 복귀함의 비율이 45.0%임을 감안할 때, 경미하다고 여기는 부상에 대한 전문무용수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45]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800	54.2%	55.2%
없다	650	44.0%	44.8%
계	1,450	98.2%	100.0%
응답하지 않음	26	1.8%	-
합계	1,476	100.0%	-

[그림 41] 무용 활동 중 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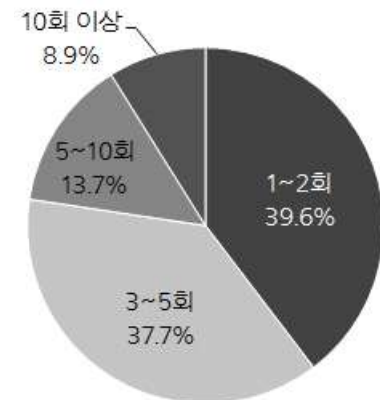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최근 3년간 부상 빈도에 따른 조사 결과, 1~2회 39.6%, 3~5회 37.7%, 5~10회 13.7%, 10회 이상 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1~2회	312	39.0%	39.6%
3~5회	297	37.1%	37.7%
5~10회	108	13.5%	13.7%
10회 이상	70	8.8%	8.9%
계	787	98.4%	100.0%
응답하지 않음	13	1.6%	-
합계	800	100.0%	-

[그림 42] 최근 3년간 부상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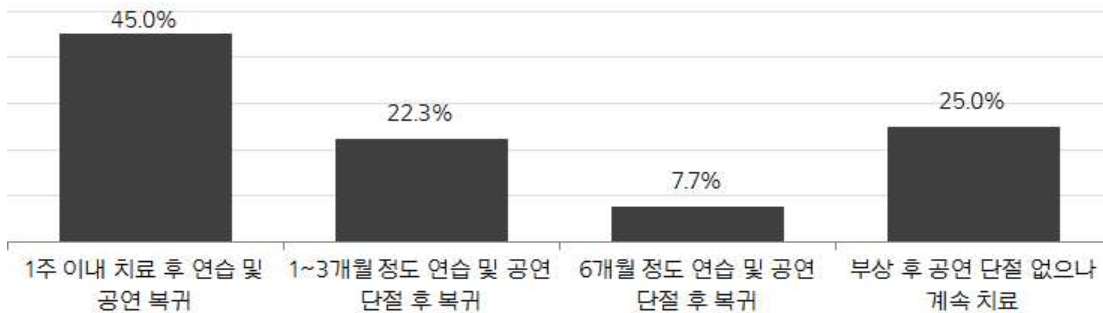
(3)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최근 3년간 부상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1주 이내 치료 후 연습 및 공연 복귀 45.0%, 부상 후 공연 단절 없으나 계속 치료 25.0%, 1~3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22.3%, 6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1주 이내 치료 후 연습 및 공연 복귀	351	43.9%	45.0%
1~3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174	21.8%	22.3%
6개월 정도 연습 및 공연 단절 후 복귀	60	7.5%	7.7%
부상 후 공연 단절 없으나 계속 치료	195	24.4%	25.0%
계	780	97.5%	100.0%
응답하지 않음	20	2.5%	-
합계	800	100.0%	-

[그림 43] 최근 3년간 부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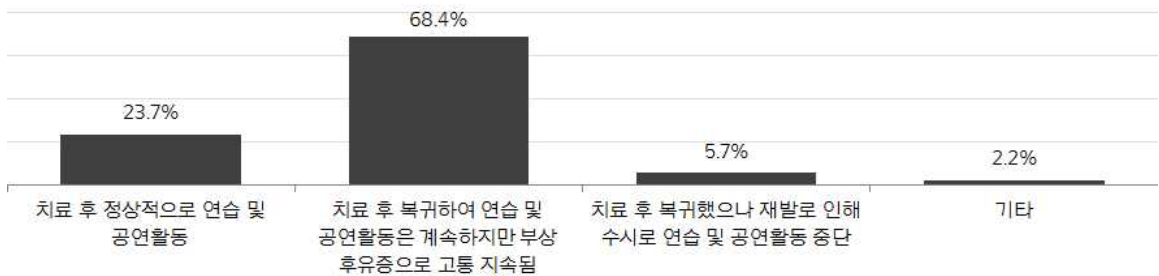
(4)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조사 결과,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68.4%,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활동 23.7%,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5.7%,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치료 후 정상적으로 연습 및 공연활동	184	23.0%	23.7%
치료 후 복귀하여 연습 및 공연활동은 계속하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지속됨	531	66.4%	68.4%
치료 후 복귀했으나 재발로 인해 수시로 연습 및 공연활동 중단	44	5.5%	5.7%
기타	17	2.1%	2.2%
계	776	97.0%	100.0%
응답하지 않음	24	3.0%	-
합계	800	100.0%	-

[그림 44] 부상이 공연/연습에 미치는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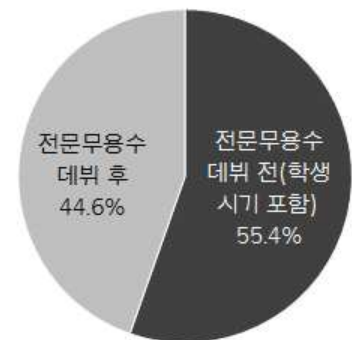
(5) 최초 부상 시기

최초 부상 시기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무용수 데뷔 전(학생 시기 포함) 55.4%, 전문무용수 데뷔 후 4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최초 부상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전문무용수 데뷔 전(학생 시기 포함)	422	52.8%	55.4%
전문무용수 데뷔 후	340	42.5%	44.6%
계	762	95.3%	100.0%
응답하지 않음	38	4.8%	-
합계	800	100.0%	-

[그림 45] 최초 부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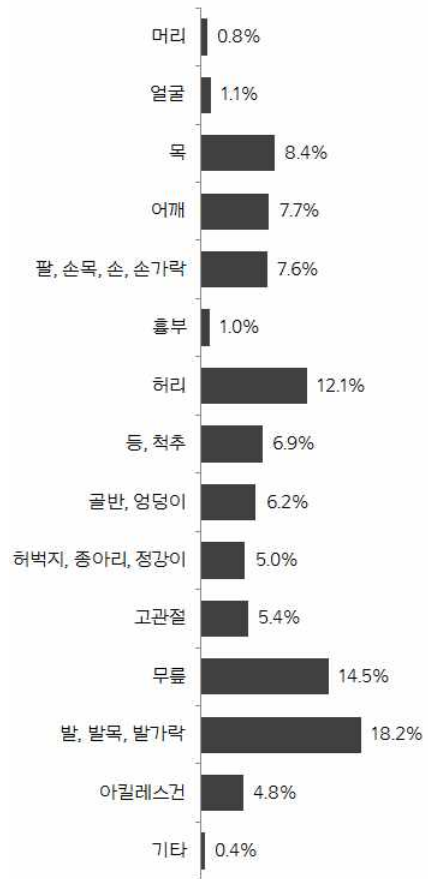
(6) 부상 부위

부상 부위에 따른 조사 결과, 발·발목·발가락 66.8%, 무릎 53.3%, 허리 44.4%, 목 30.8%, 어깨 28.3%, 팔·손목·손·손가락 27.8%, 등·척추 25.5%, 골반·엉덩이 22.9%, 허벅지·종아리·정강이 18.4%, 아킬레스건 17.8%, 고관절 19.8%, 얼굴 4.0%, 흉부 3.6%, 머리 2.8%,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부상 부위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머리	22	0.8%	2.8%
얼굴	31	1.1%	4.0%
목	239	8.4%	30.8%
어깨	220	7.7%	28.3%
팔, 손목, 손, 손가락	216	7.6%	27.8%
흉부	28	1.0%	3.6%
허리	345	12.1%	44.4%
등, 척추	198	6.9%	25.5%
골반, 엉덩이	178	6.2%	22.9%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143	5.0%	18.4%
고관절	154	5.4%	19.8%
무릎	414	14.5%	53.3%
발, 발목, 발가락	519	18.2%	66.8%
아킬레스건	138	4.8%	17.8%
기타	11	0.4%	1.4%
합계	2,856	100.0%	367.6%

[그림 46] 부상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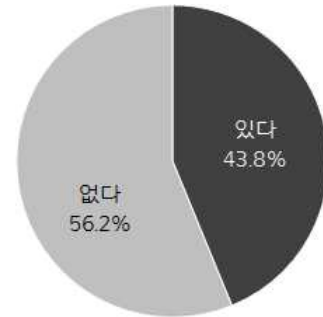
(7)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없다 56.2%, 있다 4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618	41.9%	43.8%
없다	793	53.7%	56.2%
계	1,411	95.6%	100.0%
응답하지 않음	65	4.4%	-
합계	1,476	100.0%	-

[그림 47] 상해대비 보험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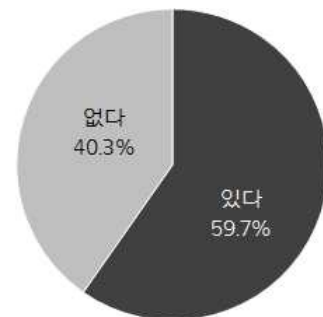
(8)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있다 59.7%, 없다 40.3%로 나타났다.

[표 52]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338	54.7%	59.7%
없다	228	36.9%	40.3%
계	566	91.6%	100.0%
응답하지 않음	52	8.4%	-
합계	618	100.0%	-

[그림 48]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9) 상해 후 보험처리 하지 않은 이유

상해 후 보험처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부상이라는 41명, 잘 몰라서 9명, 복잡한 절차 8명, 귀찮아서 3명, 금전적인 이유 3명, 바빠서 1명으로 대답하였다.

[표 53]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구분	빈도
경미한 부상	41
잘 몰라서	9
복잡한 절차	8
귀찮아서	3
금전적인 이유	3
바빠서	1

(10)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따른 조사 결과, 바쁘고 귀찮아서 29.6%, 경제적 부담 때문 28.1%, 부상 정도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해야하는 상태라 보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 가입 포기 24.3%, 기타 14.8%, 무용수가 부상 고위험군이므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원치 않음 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상해 후 보험처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경제적 부담 때문	171	27.1%	28.1%
무용수가 부상 고 위험군이므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원치 않음	43	6.8%	7.1%
부상 정도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해야하는 상태라 보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 가입 포기	148	23.4%	24.3%
바쁘고 귀찮아서	180	28.5%	29.6%
기타	90	14.2%	14.8%
합계	632	100.0%	103.8%

※ 기타 : 몰랐다 19명, 학생이라서 6명, 다른 보험 가입 5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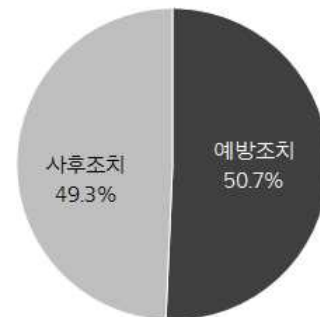
(11)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에 따른 조사 결과, 예방조치가 먼저다 50.7%, 사후조치가 먼저다 4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방조치가 먼저	688	46.6%	50.7%
사후조치가 먼저	669	45.3%	49.3%
계	1,357	91.9%	100.0%
응답하지 않음	119	8.1%	-
합계	1,476	100.0%	-

[그림 49] 예방, 사후조치 우선순위



4. 전문무용수들의 복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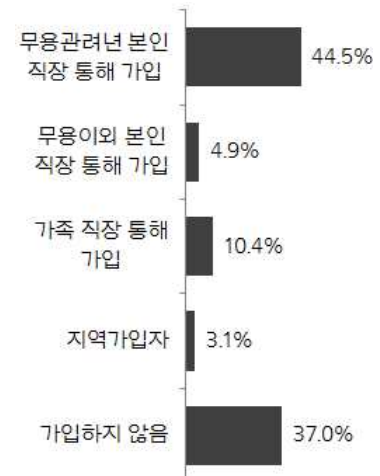
(1)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4.5%, 가입하지 않음 37.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0.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9%, 지역가입자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입하지 않음 40.8%와 유사한 결과로 국민연금의 비가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전문무용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68	38.5%	44.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3	4.3%	4.9%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33	9.0%	10.4%
지역가입자	40	2.7%	3.1%
가입하지 않음	472	32.0%	37.0%
계	1,276	86.4%	100.0%
응답하지 않음	200	13.6%	
합계	1,476	100.0%	

[그림 50] 전문무용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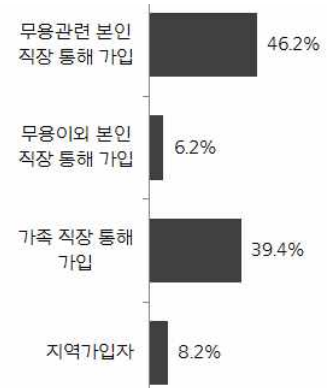
(2)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6.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39.4%, 지역가입자 8.2%,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무용 관련 직장을 통해 가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39.4%)가 많기 때문에 가입률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다.

[표 57]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59	37.9%	46.2%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5	5.1%	6.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477	32.3%	39.4%
지역가입자	99	6.7%	8.2%
계	1,210	82.0%	100.0%
응답하지 않음	266	18.0%	-
합계	1,476	100.0%	-

[그림 51]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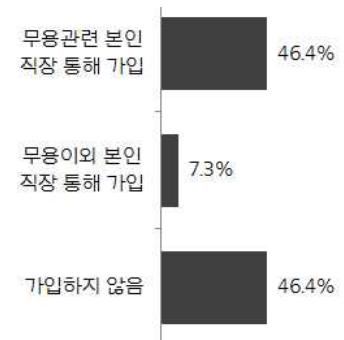
(3)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6.4%, 가입하지 않음 4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75	39.0%	4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90	6.1%	7.3%
가입하지 않음	575	39.0%	46.4%
계	1,240	84.0%	100.0%
응답하지 않음	236	16.0%	-
합계	1,476	100.0%	-

[그림 52]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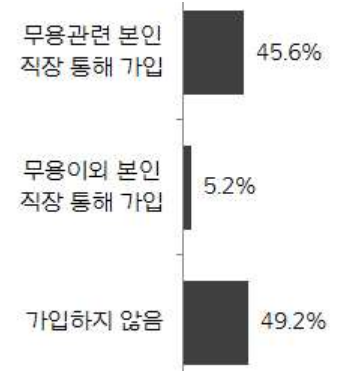
(4)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에 따른 조사 결과, 가입하지 않음 49.2%,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5.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65	38.3%	45.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5	4.4%	5.2%
가입하지 않음	609	41.3%	49.2%
계	1,239	83.9%	100.0%
응답하지 않음	237	16.1%	-
합계	1,476	100.0%	-

[그림 53] 4대 사회보험 가입유형 - 고용보험



(5)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이

2007년 보고서는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령과 가입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통한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가입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① 국민연금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차이 결과, '20~24세' 경우, 가입하지 않음 54.3%,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2.6%,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7.9%,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8%, 지역 가입자 15.7%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9.0%, 가입하지 않음 35.1%, '가족 직장 통해 가입' 9.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3%, '지역가입자' 1.6%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1.6%, 가입하지 않음 36.7%, 가족 직장 통해 가입 5.1%, 지역가입자 3.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1% 순으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9.0%, 가입하지 않음 20.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9.0%, 지역가입자 7.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0%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6.3%, 가입하지 않음 13.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8%, 지역가입자 8.8%, 가족 직장 통해 가입 2.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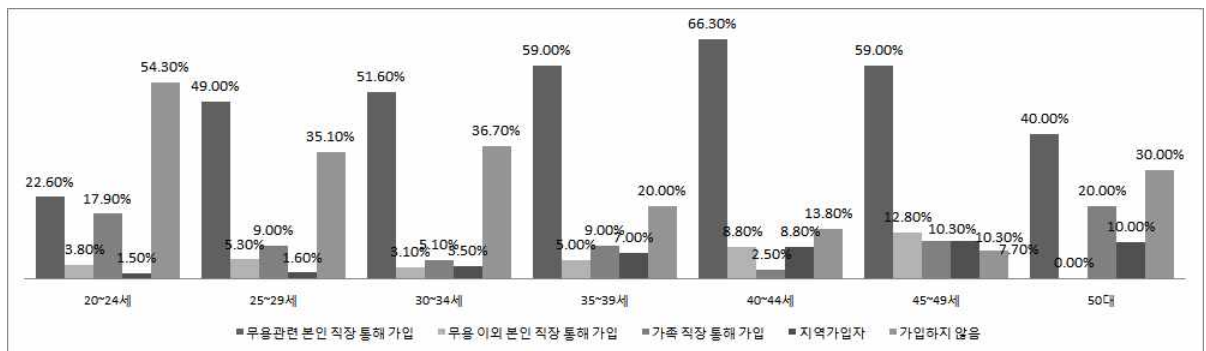
'45~4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9.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2.8%,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0.3%, 지역가입자 10.3%, 가입하지 않음 7.7%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0.0%, 가입하지 않음 30.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20.0%, 지역가입자 10.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0]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7	22.6%	212	49.0%	132	51.6%	59	59.0%	53	66.3%	23	59.0%	4	40.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3	3.8%	23	5.3%	8	3.1%	5	5.0%	7	8.8%	5	12.8%	0	0.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61	17.9%	39	9.0%	13	5.1%	9	9.0%	2	2.5%	4	10.3%	2	20.0%
지역가입자	5	1.5%	7	1.6%	9	3.5%	7	7.0%	7	8.8%	4	10.3%	1	10.0%
가입하지 않음	185	54.3%	152	35.1%	94	36.7%	20	20.0%	11	13.8%	3	7.7%	3	30.0%
합계	341	100.0%	433	100.0%	256	100.0%	100	100.0%	80	100.0%	39	100.0%	10	100.0%

[그림 54]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차이 결과, '20~24세' 경우, 가족 직장 통해 가입 68.5%,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1.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8%, 지역가입자 3.9%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0.5%, 가족 직장 통해 가입 35.8%, 지역가입자 7.7%,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0%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30.0%, 지역가입자 11.7%,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1% 순으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5.3%,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9.8%, 지역가입자 7.9%,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9%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8.6%, 지역가입자 11.6%,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0.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9.3% 순으로 나타났다.

‘45~4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1.2%, 가족 직장 통해 가입 29.3%, 지역가입자 14.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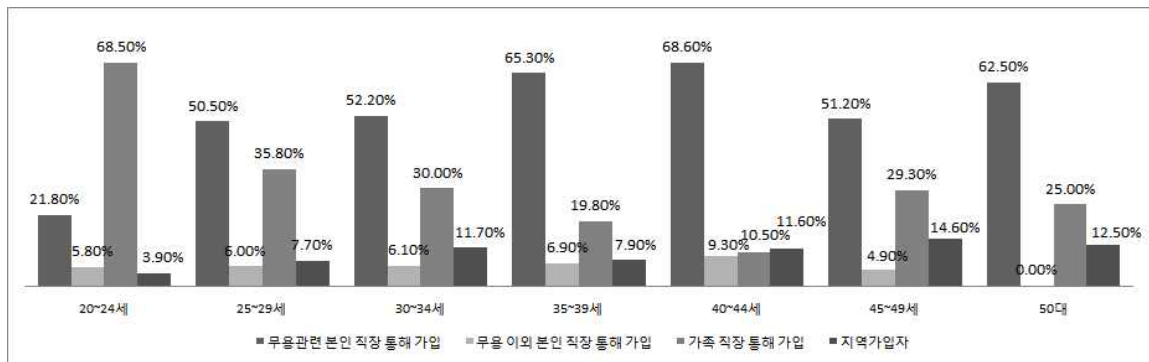
‘50대’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2.5%, 가족 직장 통해 가입 25.0%, 지역가입자 12.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0%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와 ‘50대’의 경우, 가족 직장 통해 가입한 경우가 각각 68.5%와 25.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외의 세대의 경우, 본인직장을 통해 가입한 경우가 높았으나, 다른 보험과 달리 가족 직장을 통한 가입률이 높아 전체 가입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표 61]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7	21.8%	203	50.5%	129	52.2%	66	65.3%	59	68.6%	21	51.2%	5	62.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8	5.8%	24	6.0%	15	6.1%	7	6.9%	8	9.3%	2	4.9%	0	0.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211	68.5%	144	35.8%	74	30.0%	20	19.8%	9	10.5%	12	29.3%	2	25.0%
지역가입자	12	3.9%	31	7.7%	29	11.7%	8	7.9%	10	11.6%	6	14.6%	1	12.5%
소계	308	100.0%	402	100.0%	247	100.0%	101	100.0%	86	100.0%	41	100.0%	8	100.0%

[그림 55]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연령에 따른 산재보험 차이 결과, '20~2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5.3%,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7%, 가입하지 않음 3.9%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0.0%, 가입하지 않음 42.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2%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1.0%, 가입하지 않음 41.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0% 순으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7.0%, 가입하지 않음 24.7%,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2%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3.9%, 가입하지 않음 27.7%,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4% 순으로 나타났다.

'45~4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1.1%, 가입하지 않음 27.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1.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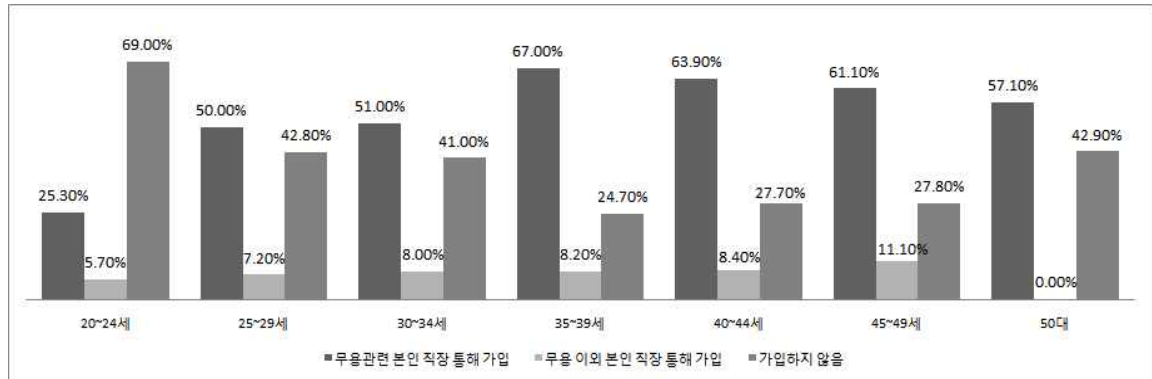
'50대'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7.1%, 가입하지 않음 42.9%,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0.0%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와 '50'대를 제외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2]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4	25.3%	208	50.0%	128	51.0%	65	67.0%	53	63.9%	22	61.1%	4	57.1%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9	5.7%	30	7.2%	20	8.0%	8	8.2%	7	8.4%	4	11.1%	0	0.0%
가입하지 않음	229	69.0%	178	42.8%	103	41.0%	24	24.7%	23	27.7%	10	27.8%	3	42.9%
소계	332	100.0%	416	100.0%	251	100.0%	97	100.0%	83	100.0%	36	100.0%	7	100.0%

[그림 56]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연령에 따른 고용보험 차이 결과, ‘20~24세’ 경우, 가입하지 않음 69.9%,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4.9%,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가입하지 않음 47.9%,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7.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8%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8%, 가입하지 않음 42.1%,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2% 순으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5.3%, 가입하지 않음 31.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2%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5.0%, 가입하지 않음 27.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5% 순으로 나타났다.

‘45~49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2.2%, 가입하지 않음 27.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0.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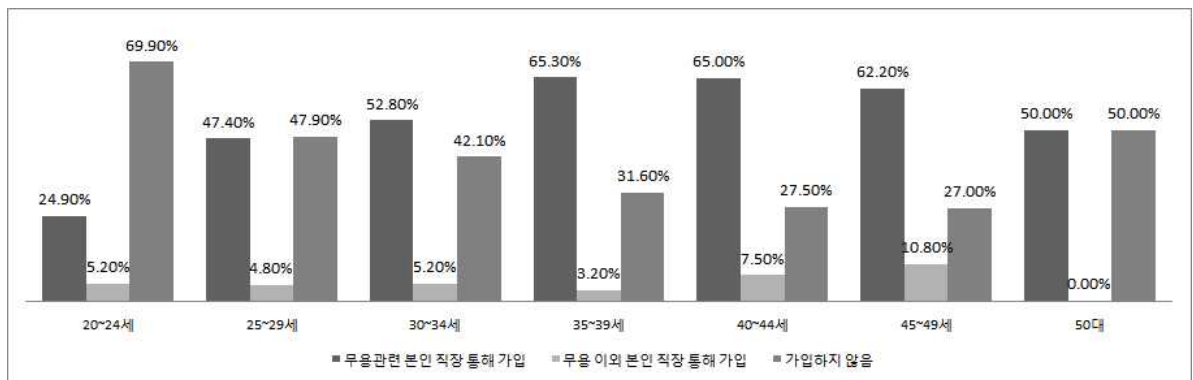
‘50대’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0.0%, 가입하지 않음 50.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0.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24세’와 ‘25~29세’가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69.9%와 47.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의 경우, 본인 직장(무용관련·비관련 모두)을 통해 가입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으며,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각각 30~34세(42.1%), 35~39세(31.6%), 40~44세(27.5%), 45~49세(27.8%), 50대(5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전문무용수들이 실직 및 이직에 관련하여 실업급여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63]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2	24.9%	199	47.4%	133	52.8%	62	65.3%	52	65.0%	23	62.2%	4	50.0%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7	5.2%	20	4.8%	13	5.2%	3	3.2%	6	7.5%	4	10.8%	0	0.0%
가입하지 않음	230	69.9%	201	47.9%	106	42.1%	30	31.6%	22	27.5%	10	27.0%	4	50.0%
소계	329	100.0%	420	100.0%	252	100.0%	95	100.0%	80	100.0%	37	100.0%	8	100.0%

[그림 57]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6)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이

① 국민연금

소속단체에 따른 건강보험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5.5%, 가입하지 않음 13.9%,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4.5%, 가족 직장 통해 가입 4.5%, 지역가입자 1.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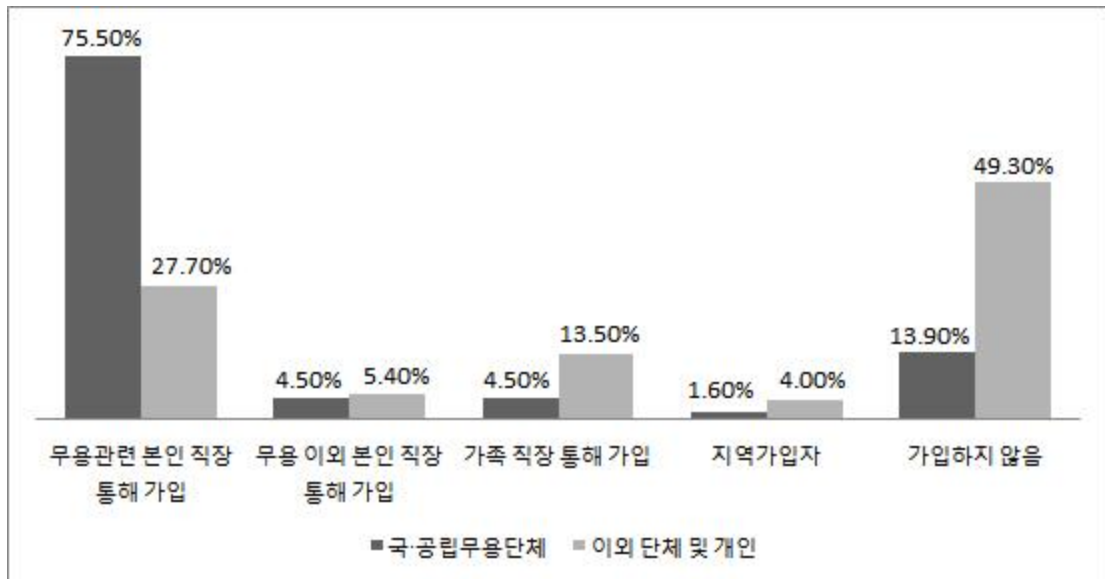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가입하지 않음 49.3%,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7.7%,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3.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5.4%, 지역가입자 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체 및 개인’의 경우 ‘국·공립무용단체’ 응답자에 비해 미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외 단체 및 개인 13.9%, 국·공립무용단체 49.3%).

[표 64]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21	75.5%	226	27.7%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9	4.5%	44	5.4%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9	4.5%	110	13.5%
지역가입자	7	1.6%	33	4.0%
가입하지 않음	59	13.9%	402	49.3%
합계	425	100.0%	815	100.0%

[그림 58]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소속단체에 따른 건강보험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8.4%, 가족 직장 통해 가입 11.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0%, 지역가입자 2.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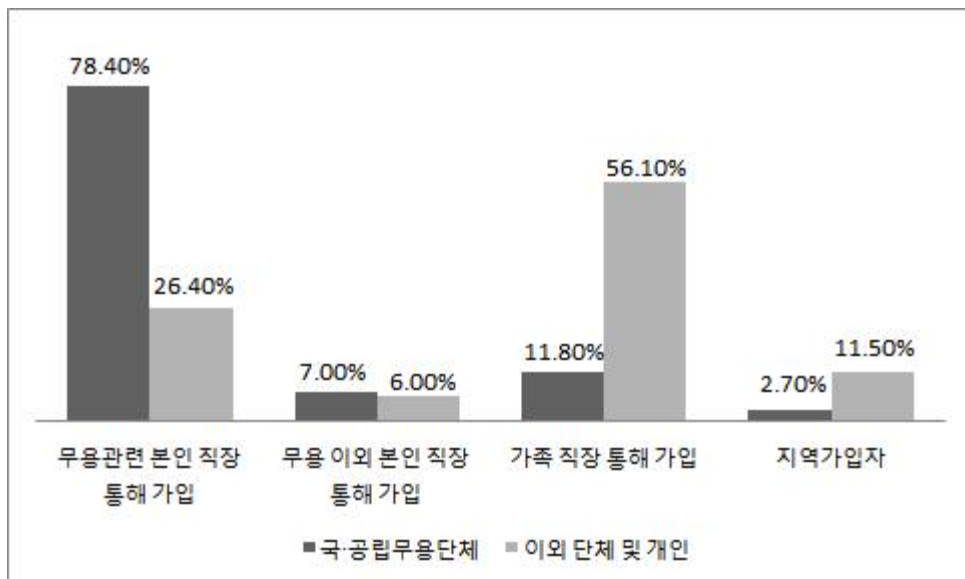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가족 직장 통해 가입 56.1%,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6.4%, 지역가입자 11.5%,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체 및 개인’의 경우 ‘국·공립무용단체’ 응답자에 비해 가족 직장을 통해 가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45	78.4%	195	2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1	7.0%	44	6.0%
가족 직장 통해 가입	52	11.8%	414	56.1%
지역가입자	12	2.7%	85	11.5%
합계	440	100.0%	738	100.0%

[그림 59]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소속단체에 따른 산재보험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81.6%, 가입하지 않음 11.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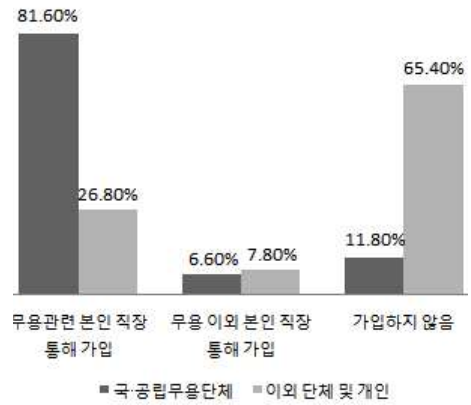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가입하지 않음 65.4%,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6.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8%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국·공립무용단체 소속 무용수의 47%가 가입했던데 비해, 2013년 현재 국·공립무용단체 소속 무용수의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한 경우가 81.6%에 달한다. 국·공립무용단체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2011년 10월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표 66]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45	81.6%	209	26.8%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8	6.6%	61	7.8%
가입하지 않음	50	11.8%	511	65.4%
합계	423	100.0%	781	100.0%

[그림 60]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소속단체에 따른 고용보험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76.7%, 가입하지 않음 19.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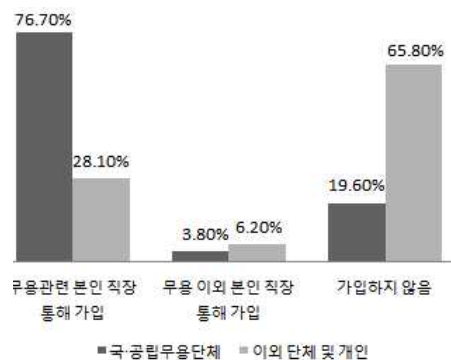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가입하지 않음 65.8%,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28.1%,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체 및 개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이 65.8%로 매우 높은 편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의 경우 관련 법안 실행이 어렵다. 실업이 잦은 예술인의 특성상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 및 일 반근로자에 부담증가를 이유로 예술인 대한 특례적용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7]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325	76.7%	219	28.1%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16	3.8%	48	6.2%
가입하지 않음	83	19.6%	513	65.8%
합계	424	100.0%	780	100.0%

[그림 61] 소속단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5. 고용형태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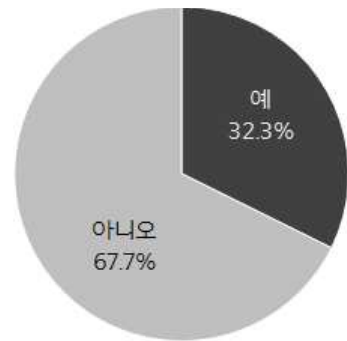
(1) 무용공연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무용공연활동 근로 및 노동 인식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아니오 67.7%, 예 32.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실태조사 항목 중 ‘무용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문항으로, 당시 예술활동을 근로 및 노동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55.1%, 그렇지 않다는 44.9%로 나타났다.

[표 68] 무용공연 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예	466	31.6%	32.3%
아니오	976	66.1%	67.7%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62] 무용공연 활동 근로/노동 인식 여부



(2) 소속단체 고용형태

소속단체 고용형태에 따른 조사 결과, 기간제·계약직 40.5%, 프리랜서 24.4%, 정규직 15.1%, 기타 10.2%, 단체장 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단체장	140	9.5%	9.8%
정규직	217	14.7%	15.1%
기간제·계약직	581	39.4%	40.5%
프리랜서	349	23.6%	24.4%
기타	146	9.9%	10.2%
계	1,433	97.1%	100.0%
응답하지 않음	43	2.9%	-
합계	1,476	100.0%	-

[그림 63]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 내 고용형태



※ 기타 : 상임단원 17명, 학생 15명, 학교 10명 등

(3)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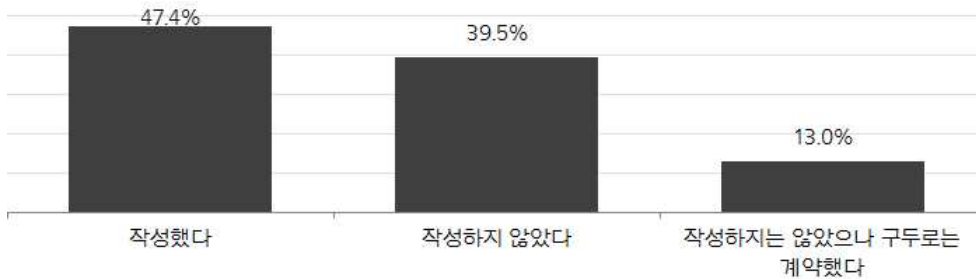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작성했다 47.4%, 작성하지 않았다 39.5%,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한 경우가 52.5%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전문무용수에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표 70]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작성했다	666	45.1%	47.4%
작성하지 않았다	555	37.6%	39.5%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183	12.4%	13.0%
계	1,404	95.1%	100.0%
응답하지 않음	72	4.9%	-
합계	1,476	100.0%	-

[그림 64]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4)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작성했다 86.1%, 작성하지 않았다 9.2%,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4.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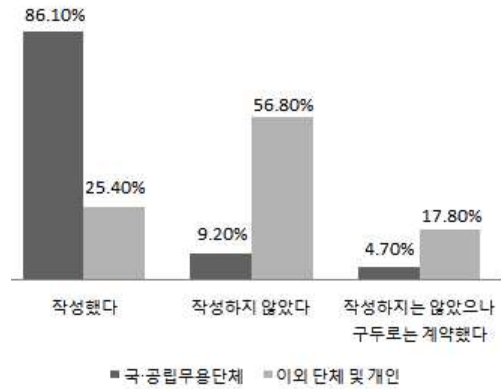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작성하지 않았다 56.8%, 작성했다 25.4%,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17.8%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무용단체와 이외 단체 및 개인과 비교 했을 때, ‘국·공립무용단체’가 ‘이외 단체 및 개인’ 보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71]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작성했다	422	86.1%	221	25.4%
작성하지 않았다	45	9.2%	495	56.8%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23	4.7%	155	17.8%
합계	490	100.0%	871	100.0%

[그림 65] 소속단체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5)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결과, ‘단체장’인 경우, 작성하지 않았다 69.9%, 작성했다 25.7%,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4.4%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경우, 작성했다 78.9%, 작성하지 않았다 15.0%,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6.1%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작성했다 69.5%, 작성하지 않았다 21.1%,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9.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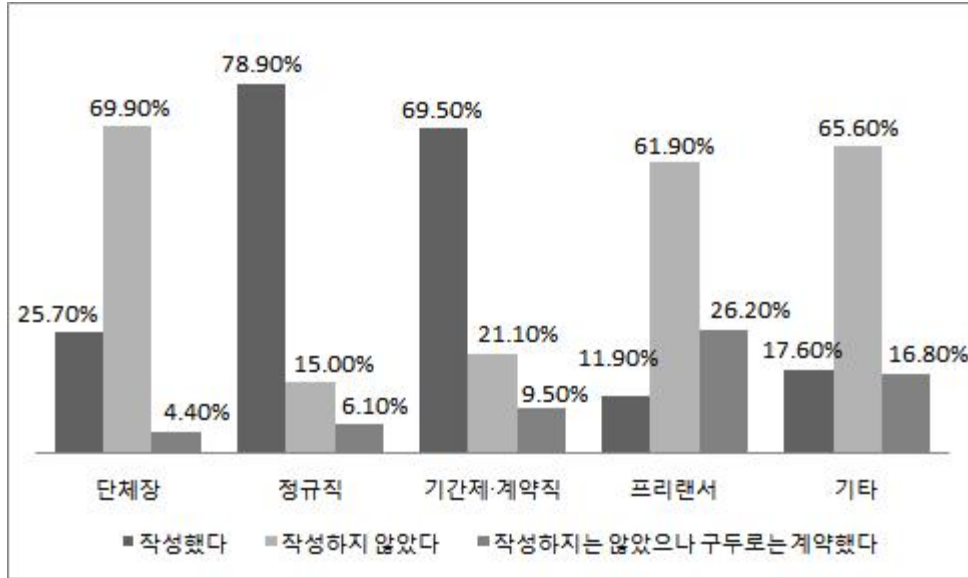
‘프리랜서’인 경우, 작성하지 않았다 61.9%,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26.2%, 작성했다 11.9%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표준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리랜서와 단체장인 경우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했다는 프리랜서와 기간제·계약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작성했다	35	25.7%	168	78.9%	396	69.5%	39	11.9%	23	17.6%
작성하지 않았다	95	69.9%	32	15.0%	120	21.1%	203	61.9%	86	65.6%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6	4.4%	13	6.1%	54	9.5%	86	26.2%	22	16.8%
합계	136	100.0%	213	100.0%	570	100.0%	328	100.0%	131	100.0%

[그림 66] 고용형태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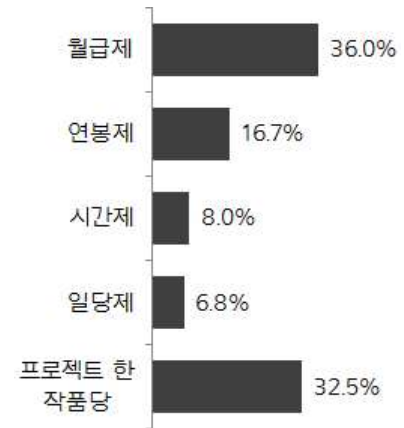
(6) 계약방식

계약방식에 따른 조사 결과, 월급제 36.0%, 프로젝트 한 작품 당 32.5%, 연봉제 16.7%, 시간제 8.0%, 일당제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73] 전문무용수의 고용 계약방식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월급제	475	32.2%	36.0%
연봉제	220	14.9%	16.7%
시간제	105	7.1%	8.0%
일당제	90	6.1%	6.8%
프로젝트 한 작품 당	429	29.1%	32.5%
계	1,319	89.4%	100.0%
응답하지 않음	157	10.6%	-
합계	1,476	100.0%	-

[그림 67] 전문무용수의 고용 계약방식



(7)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최근 3년간 무용 활동의 경제적 보상이 적절성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적절하지 못하다 69.3%, 적절하다 30.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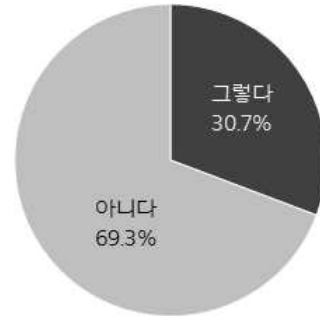
전문무용수들의 경제적 보상 여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2007년 실태조사 시 ‘무용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낮음 58.7%, 다소 낮음 28.5%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74]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적절하다	430	29.1%	30.7%
적절하지 못하다	969	65.7%	69.3%
계	1,399	94.8%	100.0%
응답하지 않음	77	5.2%	-
합계	1,476	100.0%	-

[그림 68]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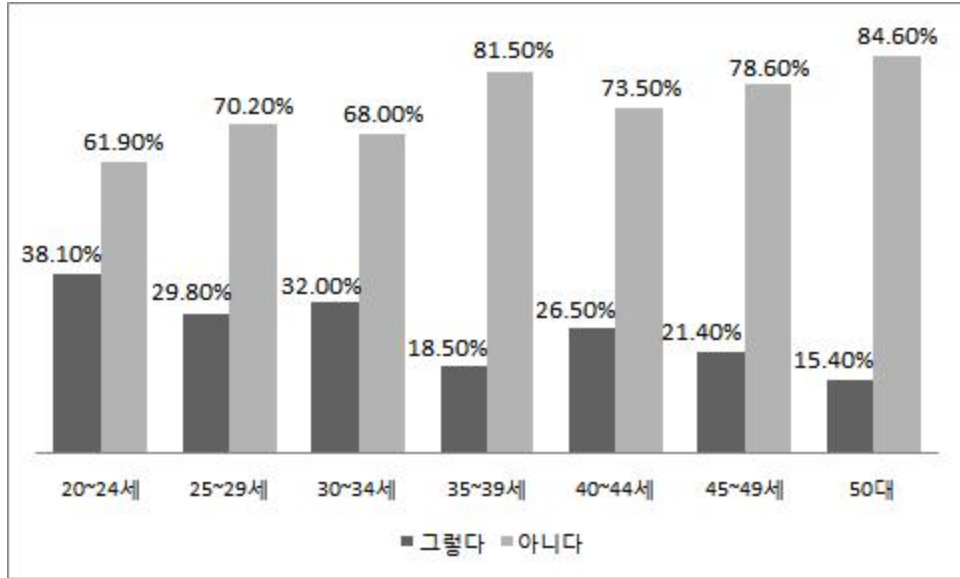
(8)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차이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경제적 보상 적절 여부 차이 결과, ‘20~24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61.9%, 적절하다 38.1% 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0.2%, 적절하다 29.8% 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68.0%, 적절하다 32.0% 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81.5%, 적절하다 18.5% 로 나타났으며, ‘40~44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3.5%, 적절하다 26.5% 로, ‘45~49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8.6%, 적절하다 21.4% 로, ‘50대’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84.6%, 적절하다 15.4% 로 나타났다.

[표 75]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137	38.1%	139	29.8%	89	32.0%	22	18.5%	27	26.5%	9	21.4%	2	15.4%
아니다	223	61.9%	327	70.2%	189	68.0%	97	81.5%	75	73.5%	33	78.6%	11	84.6%
소계	360	100.0%	466	100.0%	278	100.0%	119	100.0%	102	100.0%	42	100.0%	13	100.0%

[그림 69] 연령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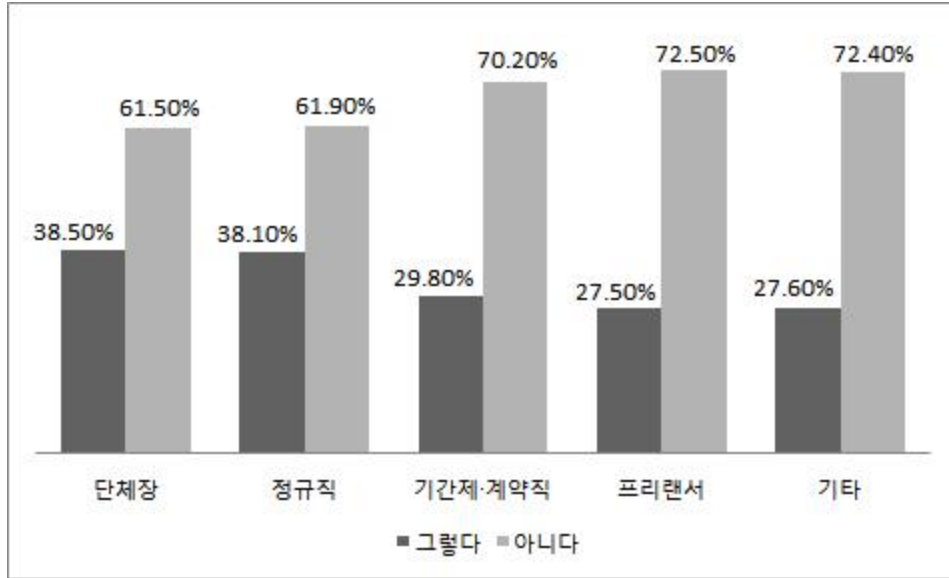
(9)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경제적 보상 적절 여부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경제적 보상 적절 여부 차이 결과, ‘단체장’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61.5%, 적절하다 38.5% 로 나타났고, ‘정규직’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61.9%, 적절하다 38.1% 로,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0.2%, 적절하다 29.8% 로 나타났고 ‘프리랜서’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2.5%, 적절하다 93명(27.5%)로 나타났고 기타인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72.4%, 적절하다 27.6% 로 나타났다.

[표 76]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절하다	52	38.5%	80	38.1%	169	29.8%	93	27.5%	35	27.6%
적절하지 못하다	83	61.5%	130	61.9%	399	70.2%	245	72.5%	92	72.4%
소계	135	100.0%	210	100.0%	568	100.0%	338	100.0%	127	100.0%

[그림 70]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년간 무용활동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 여부



(10)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개런티 받은 비율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개런티를 받은 비율에 조사 결과, 평균 51.7%가 무용활동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런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무용수가 전반적으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6. 무용수들의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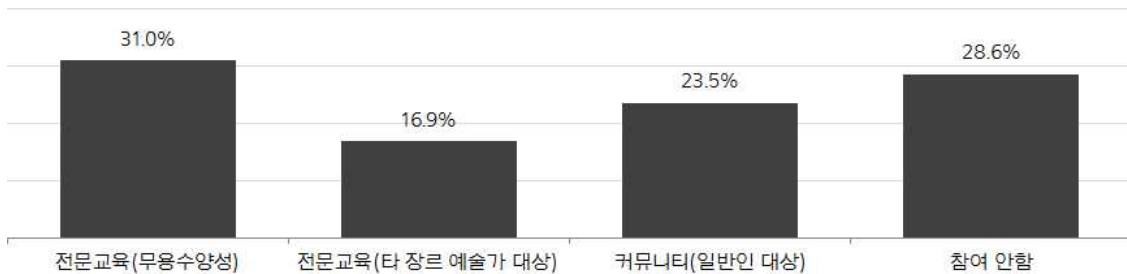
(1)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교육(무용수양성) 38.3%, 참여 안함 35.4%, 커뮤니티(일반인 대상) 29.1%, 전문교육(타 장르 예술가 대상) 20.9% 순으로 나타났다. 1곳 이상에서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중응답을 통해 설문을 분석하였다.

[표 77]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전문교육(무용수양성)	519	31.0%	38.3%
전문교육(타 장르 예술가 대상)	283	16.9%	20.9%
커뮤니티(일반인 대상)	394	23.5%	29.1%
참여 안함	480	28.6%	35.4%
합계	1,676	100.0%	123.7%

[그림 71] 전문무용수의 강사로서 교육활동 분야



(2) 강사로서 교육활동 비율

강사로서 교육활동을 하는 무용수는 52.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실태조사의 경우 무용교육 활동의 참여 경험이 전체의 34.4%이었으나, 다원예술영역의 증가로 무용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해진 점을 들 때, 이 비율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계약형, 혹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때, 강사로서의 교육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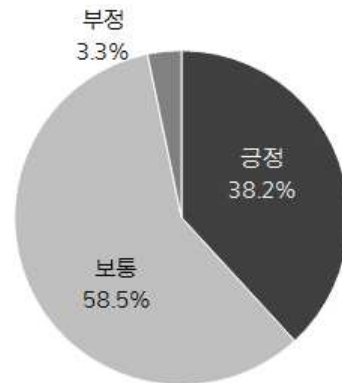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에 따른 조사 결과, 보통 58.5%, 만족 32.0%, 매우 만족 6.2%, 불만족 3.1%, 매우 불만족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만족	45	6.2%	38.2%
만족	234	32.0%	
보통	428	58.5%	58.5%
불만족	23	3.1%	3.3%
매우 불만족	1	0.1%	
합계	731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144명

[그림 72] 강사로서 교육활동 만족도



IV.

전문 무용수

공연현황

IV. 전문무용수 공연현황

1. 창작·예술관련 활동

(1)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에 따른 조사 결과, 공연 작품 수 ‘최소’는 한국무용(전통) 1회, 한국무용(창작) 1회, 클래식 발레 1회, 창작 발레 1회, 현대무용 1회, 기타 1회로 나타났다.

공연 작품 수 ‘최대’는 한국무용(전통) 900회, 한국무용(창작) 3,000회, 클래식 발레 300회, 창작 발레 400회, 현대무용 150회, 기타 500회로 나타났다.

공연 작품 수 ‘평균’은 한국무용(전통) 40.8회, 한국무용(창작) 43.2회, 클래식 발레 30.8회, 창작 발레 12.9회, 현대무용 12.2회, 기타 18.2회로 나타났다. ‘최빈값’은 한국무용(전통) 10회, 한국무용(창작) 10회, 클래식 발레 2회, 창작 발레 1회, ‘현대무용 10회’, ‘기타 2회’로 나타났다.

[표 79] 무용수로서의 공연 작품 수

구분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클래식 발레	창작 발레	현대무용	기타
최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최대	900회	3,000회	300회	400회	150회	500회
평균	40.8회	43.2회	30.8회	12.9회	12.2회	18.2회
최빈	10회	10회	2회	1회	10회	2회
	78명	79명	27명	41명	53명	39명
	13.2%	12.9%	16.8%	24.0%	13.9%	25.2%

(2) 안무가로서의 공연 작품 수

안무가로서의 공연 작품 수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한국무용(전통) 1회, 한국무용(창작) 1회, 클래식 발레 1회, 창작 발레 1회, 현대무용 1회, 기타 1회로 나타났다.

안무가로서 공연 작품 수의 ‘최대’는 한국무용(전통) 100회, 한국무용(창작) 100회, 클래식 발레 40회, 창작 발레 60회, 현대무용 100회, 기타 100회로 나타났다.

안무가로서 공연 작품 수 ‘평균’은 한국무용(전통) 5.8회, 한국무용(창작) 4.3회, 클래식 발레 3.8회, 창작 발레 4.3회, 현대무용 4.6회, 기타 10.2회로 나타났다. ‘최빈값’은 한국무용(전통) 1회, 한국무용(창작)

1회, 클래식 발레 1회, 창작 발레 1회, 현대무용 1회, 기타 1회로 나타났다.

[표 80] 안무가로서의 공연 작품 수

구분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클래식 발레	창작 발레	현대무용	기타
최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최대	100회	100회	40회	60회	100회	100회
평균	5.8회	4.3회	3.8회	4.3회	4.6회	10.2회
최빈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30명	66명	10명	24명	38명	16명
	24.4%	31.1%	40.0%	38.1%	23.0%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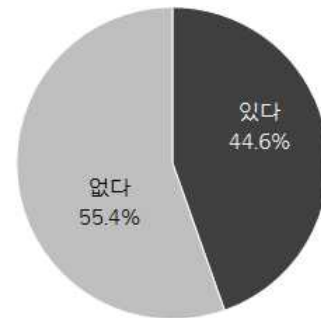
(3)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없다 55.4%, 있다 44.6%로 나타났다.

[표 81]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635	43.0%	44.6%
없다	789	53.5%	55.4%
계	1,424	96.5%	100.0%
응답하지 않음	52	3.5%	-
합계	1,476	100.0%	-

[그림 73] 최근 3년간 해외 무용공연 여부



※ 해외 공연 횟수 : 최소 1회, 최대 200회, 평균 5.4회, 최빈 1회(162명,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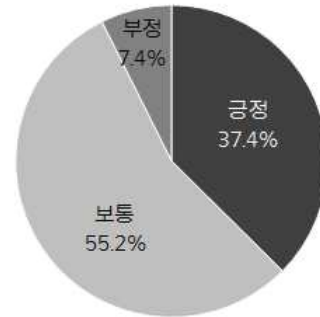
(4)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66.8점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에 따른 조사 결과, 보통 55.2%, 만족 31.8%, 불만족 5.8%, 매우 만족 5.6%, 매우 불만족 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만족	79	5.6%	37.4%
만족	449	31.8%	
보통	779	55.2%	55.2%
불만족	82	5.8%	7.4%
매우 불만족	22	1.6%	
합계	1,411	100.0%	100.0%

[그림 74] 현재 공연활동 만족도



※ 응답하지 않음 : 65명

(5) 공연활동 불만족 이유

공연활동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받은 결과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경제적’, ‘무용수’, ‘전문성’, ‘열악’ 등이다.

[그림 75] 공연활동 불만족 이유



2. 무용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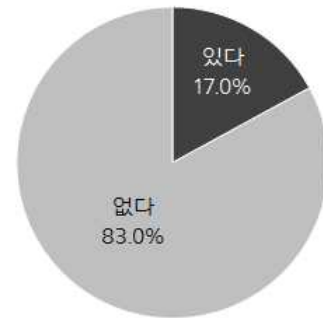
(1)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없다 83.0%, 있다 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84]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있다	235	15.9%	17.0%
없다	1,145	77.6%	83.0%
계	1,380	93.5%	100.0%
응답하지 않음	96	6.5%	-
합계	1,476	100.0%	-

[그림 76] 최근 4년간 수혜경험 여부



(2) 수혜 횟수

수혜 횟수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국고(지자체 포함) 지원 1회, 협찬 1회, 후원 1회, 기타 1회로 나타났다. '최대'는 국고(지자체 포함)지원 500회, 협찬 10회, 후원 10회, 기타 10회로 나타났다.

'평균'의 경우, 국고(지자체 포함)지원 8.2회, 협찬 2.5회, 후원 2.6회, 기타 2.9회 나타났으며, '최빈값'으로는 국고(지자체 포함)지원 1회 29.1%, 협찬 2회 52.0%, 후원 2회 37.2%, 기타 1회 52.9%으로 나타났다.

[표 85] 수혜 횟수

구분	국고(지자체 포함) 지원	협찬	후원	기타
최소	1회	1회	1회	1회
최대	500회	10회	10회	10회
평균	8.2회	2.5회	2.6회	2.9회
최빈	1회	2회	2회	1회
	32명	13명	16명	9명
	29.1%	52.0%	37.2%	52.9%

3. 무용공연활동에 참여 경로 현황

(1)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1순위에 따른 조사 결과,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26.6%,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1.0%,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19.6%, 오디션 17.0%,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4.6%, 잡마켓·아트마켓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6]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오디션	205	13.9%	17.0%
잡마켓/아트마켓	14	0.9%	1.2%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76	11.9%	14.6%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321	21.7%	26.6%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236	16.0%	19.6%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53	17.1%	21.0%
계	1,205	81.6%	100.0%
응답하지 않음	271	18.4%	-
합계	1,476	100.0%	-

-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2순위에 따른 조사 결과,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32.9%,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6.3%,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21.5%,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0.5%, 오디션 6.6%, 잡마켓/아트마켓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7]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2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오디션	73	4.9%	6.6%
잡마켓/아트마켓	24	1.6%	2.2%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16	7.9%	10.5%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237	16.1%	21.5%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363	24.6%	32.9%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90	19.6%	26.3%
계	1,103	74.7%	100.0%
응답하지 않음	373	25.3%	-
합계	1,47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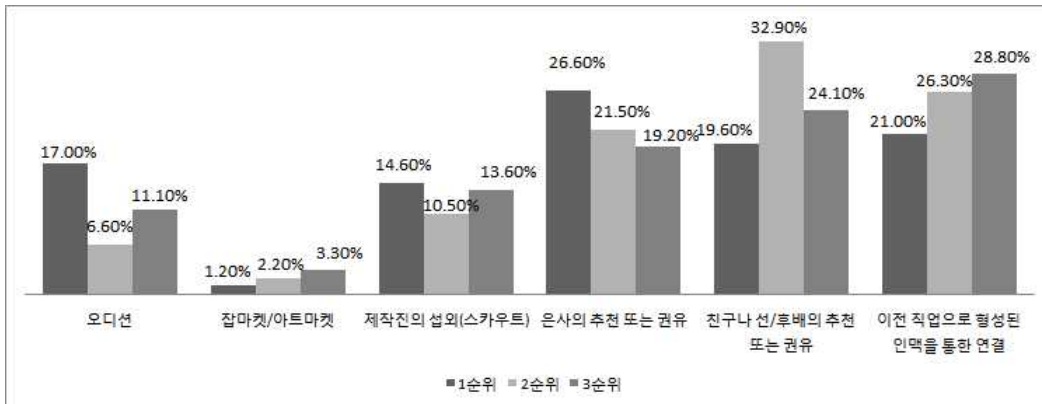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3순위에 따른 조사 결과,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8.8%, 친구

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24.1%,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19.2%,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3.6%, 오디션 11.1%, 잡마켓/아트마켓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88]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오디션	112	7.6%	11.1%
잡마켓/아트마켓	33	2.2%	3.3%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137	9.3%	13.6%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194	13.1%	19.2%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244	16.5%	24.1%
이전 직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291	19.7%	28.8%
계	1,011	68.5%	100.0%
응답하지 않음	465	31.5%	-
합계	1,476	100.0%	-

[그림 77] 무용공연활동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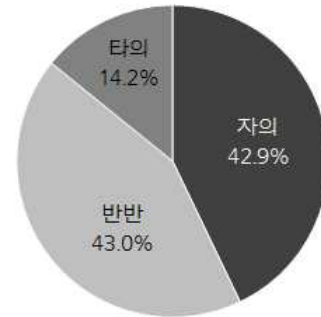
(2)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자의반 타의반 43.0%, 자의인 편 28.2%, 자의에 의한 출연 결정 14.7%, 타의인 편 7.1%, 타의에 의한 출연 결정 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89]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자의/타의
자의에 의한 출연 결정	197	14.7%	42.9%
자의인 편	378	28.2%	
자의반 타의반	576	43.0%	43.0%
타의인 편	95	7.1%	14.2%
타의에 의한 출연 결정	95	7.1%	
합계	1,341	100.0%	100.0%

[그림 78] 무용공연 출연결정 자의성 정도



※ 응답하지 않음 : 135명

(3) 100석 규모/30분 공연/공연 전 3개월 기간 소요 조건일 시 출연료 적정 수준

100석 규모/30분 공연/공연 전 3개월 기간 소요 조건일 시 출연료 적정 수준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적정 출연료 10,000원, 최대 적정 출연료 50,000,000원, 평균 적정 출연료 2,265,519.1원, 최빈 적정 출연료 3,000,000원이었으며, 응답자는 204명(16.9%)으로 나타났다.

[표 90] 100석 규모/30분 공연/공연 전 3개월 기간 소요 조건일 시 출연료 적정 수준

구분	적정 출연료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00원
평균	2,265,519.1원
최빈	3,000,000원
	204명
	16.9%

(4) 무용공연활동 전반적 여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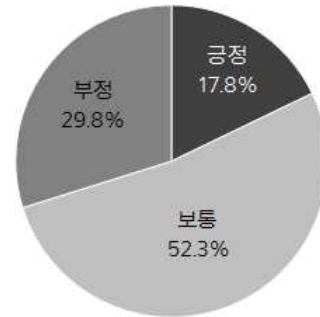
무용공연활동의 전반적 여건 만족도에 따른 조사 결과, 보통 52.3%, 만족 16.6%, 불만족 25.2%, 매우 불만족 4.7%, 매우 만족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무용공연활동 전반적 여건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만족	17	1.2%	17.8%
만족	232	16.6%	
보통	730	52.3%	52.3%
불만족	351	25.2%	29.8%
매우 불만족	65	4.7%	
합계	1,395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81명

[그림 79] 무용공연활동 전반적 여건 만족도



(5) 공연활동여건 문제점/개선점

공연활동여건 문제점/개선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받은 결과 아래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부족’, ‘지원’, ‘경제적’, ‘월급’ 등으로 나타났다. 여러 의견들 중 금액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0] 공연여건 문제점/개선점



4. 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 현황

(1) 한 작품 당 공연준비 정도

한 작품 당 공연준비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주 평균 일수 1일로 나타났으며,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 1시간으로 나타났고, ‘최대’는 주 평균 일수 7일이며, 하루 평균 시간 2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의 경우 주 평균 일수 4.8일이며,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 5.0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빈값’은 주 평균 일수 5일이며, 하루 평균 시간은 4시간이다.

[표 91] 한 작품 당 공연 준비 정도

구분	주 평균 일수	하루 평균 시간
최소	1일	1시간
최대	7일	20시간
평균	4.8일	5.0시간
최빈	5일	4시간
	617명	275명
	45.9%	20.8%

(2) 공연준비 연습량 정도

공연준비 연습량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주 평균 일수 1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의 경우 주 평균 7일이며, 하루 평균 시간 2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일수는 주 평균 4.8일, 하루 평균 시간 5.4시간이며. ‘최빈값’은 주 평균 일수 5일이며, 하루 평균 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92] 공연준비 연습량 정도

구분	주 평균	하루 평균
최소	1일	1시간
최대	7일	20시간
평균	4.8일	5.4시간
최빈	5일	4시간
	619명	281명
	45.8%	21.0%

(3) 평소 연습량 정도

평소 연습량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주 평균 1일이며, 하루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났고 ‘최대’는 주 평균 7일이며, 하루 평균 시간 2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습 일수는 주 평균 4.1일이며, 하루 평균 5.4시간으로 나타났고, ‘최빈값’으로는 주 평균 5일이며, 하루 평균 2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93] 평소 연습량 정도

구분	주 평균	하루 평균
최소	1일	1시간
최대	7일	20시간
평균	4.1일	3.9시간
최빈	5일	2시간
	533명	373명
	41.7%	29.7%

(4)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주 평균)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 1시간, 무용 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계발 1시간, 무용 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 1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의 경우,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 64시간, 무용 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계발 100시간, 무용 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 5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는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 8.8시간, 무용 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계발 5.8시간, 무용 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 7.4시간으로 나타났고, ‘최빈값’으로는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은 2시간 응답자가 159명(15.8%)으로 나타났으며, 무용 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계발 시간은 2시간으로 응답자가 263명(27.3%)으로 나타났으며, 무용 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은 2시간으로 응답자 98명(21.3%)이 답하였다.

[표 94]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주 평균)

구분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	무용 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계발	무용 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
최소	1시간	1시간	1시간
최대	64시간	100시간	50시간
평균	8.8시간	5.8시간	7.4시간
최빈	2시간	2시간	2시간
	159명	263명	98명
	15.8%	27.3%	21.3%

(5)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하루 평균)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순수여가 시간 1시간이며, 가사활동 시간 1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는 순수여가 시간 24시간, 가사활동 시간 21시간으로 나타났고, ‘평균’의 경우, 순수여가 시간 3.7시간이며, 가사활동 시간 2.7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빈값’으로는 순수여가 시간 2시간이며, 응답자 319명(30.6%)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339명(36.3%)가 가사활동 시간 1시간으로 답하였다.

[표 95] 평소 연습시간 외 시간활용 (단위 : 하루 평균)

구분	순수여가 시간	가사활동 시간
최소	1시간	1시간
최대	24시간	21시간
평균	3.7시간	2.7시간
최빈	2시간	1시간
	319명	339명
	30.6%	36.3%

V.
전문무용수
경제 및 직업
현황

V. 전문무용수 공연현황

1. 전문 무용수들의 경제현황

(1)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조사 결과, 200~300만원 미만 17.7%, 600만원 이상 17.5%, 300~400만원 미만 14.0%, 100~200만원 미만 12.8%, 400~500만원 미만 11.8%, 500~600만원 미만 11.7%, 소득 없음 8.0%, 100만원 미만 6.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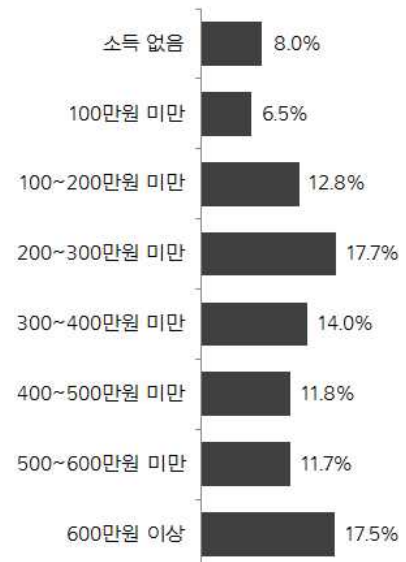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600만원 이상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부모나 부인, 기타 외부 소득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없음과 100만원 미만은 14.5%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용수들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6] 월 평균 가구 소득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소득 없음	98	6.6%	8.0%
100만원 미만	80	5.4%	6.5%
100~200만원 미만	158	10.7%	12.8%
200~300만원 미만	218	14.8%	17.7%
300~400만원 미만	172	11.7%	14.0%
400~500만원 미만	145	9.8%	11.8%
500~600만원 미만	144	9.8%	11.7%
600만원 이상	216	14.6%	17.5%
계	1,231	83.4%	100.0%
응답하지 않음	245	16.6%	-
합계	1,476	100.0%	-

[그림 81] 월 평균 가구 소득



(2) 월 평균 본인 소득

월 평균 본인 소득에 따른 조사 결과, 100~200만원 미만 37.3%, 100만원 미만 23.2%, 200~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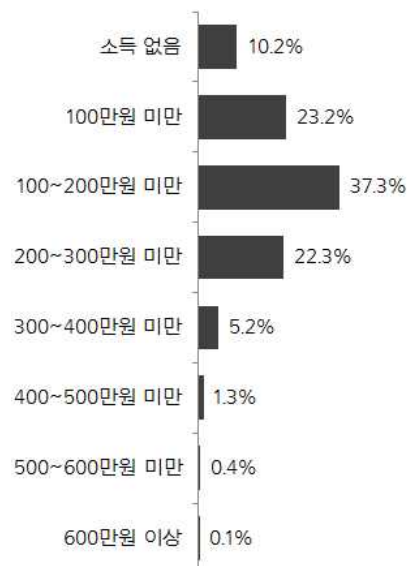
미만 22.3%, 소득 없음 10.2%, 300~400만원 미만 5.2%, 400~500만원 미만 1.3%, 500~600만원 미만 0.4%, 600만원 이상 0.1%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에 대한 조사이므로 월 평균 가구 소득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월 평균 본인 소득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소득 없음	140	9.5%	10.2%
100만원 미만	320	21.7%	23.2%
100~200만원 미만	514	34.8%	37.3%
200~300만원 미만	307	20.8%	22.3%
300~400만원 미만	72	4.9%	5.2%
400~500만원 미만	18	1.2%	1.3%
500~600만원 미만	6	0.4%	0.4%
600만원 이상	2	0.1%	0.1%
계	1,379	93.4%	100.0%
응답하지 않음	97	6.6%	-
합계	1,476	100.0%	-

[그림 82] 월 평균 본인 소득



(3)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결과, ‘국·공립무용단체’는 100~200만원 미만 43.0%, 200~300만원 미만 37.8%, 300~4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 8.7%, 소득 없음 1.2%, 400~500만원 미만 1.7%, 500~600만원 미만 0.4%, 600만원 이상 0.1% 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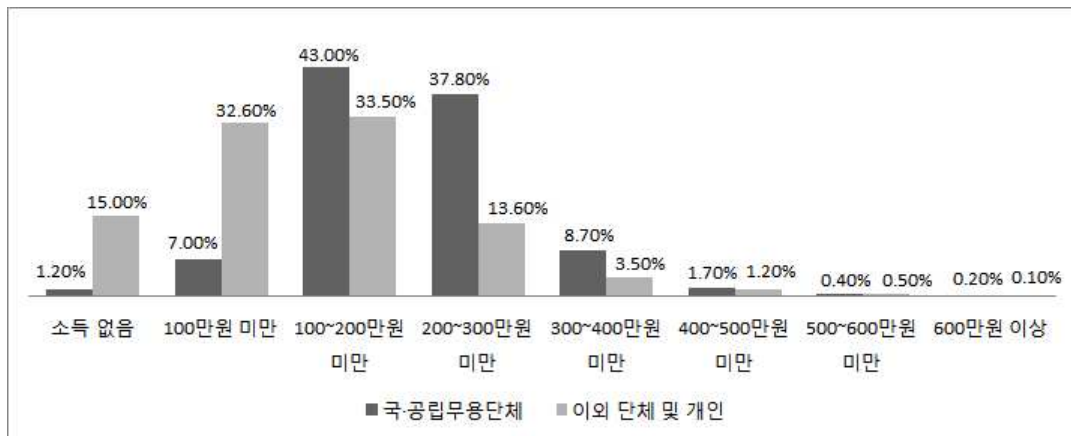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은 100~200만원 미만 33.5%, 100만원 미만 32.6%, 200~300만원 미만 13.6%, 소득 없음 15.0%, 300~400만원 미만 3.5%, 400~500만원 미만 1.2%, 500~600만원 미만 0.5%, 600만원 이상 0.1% 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무용단체가 이외 단체 및 개인 보다 소득 면에서 안정적인 편이라 할 수 있고, 200~300만원 미만이 국·공립무용단체가 이외 단체 및 개인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없음	6	1.2%	129	15.0%
100만원 미만	34	7.0%	280	32.6%
100~200만원 미만	208	43.0%	288	33.5%
200~300만원 미만	183	37.8%	117	13.6%
300~400만원 미만	42	8.7%	30	3.5%
400~500만원 미만	8	1.7%	10	1.2%
500~600만원 미만	2	0.4%	4	0.5%
600만원 이상	1	0.2%	1	0.1%
합계	484	100.0%	859	100.0%

[그림 83] 소속단체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4)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결과, ‘무용수’는 100~200만원 미만 37.3%, 200~300만원 미만 23.8%, 100만원 미만 22.0%, 소득 없음 9.6%, 300~400만원 미만 5.3%, 400~500만원 미만 1.3%, 500~600만원 미만 0.5%, 600만원 이상 0.2% 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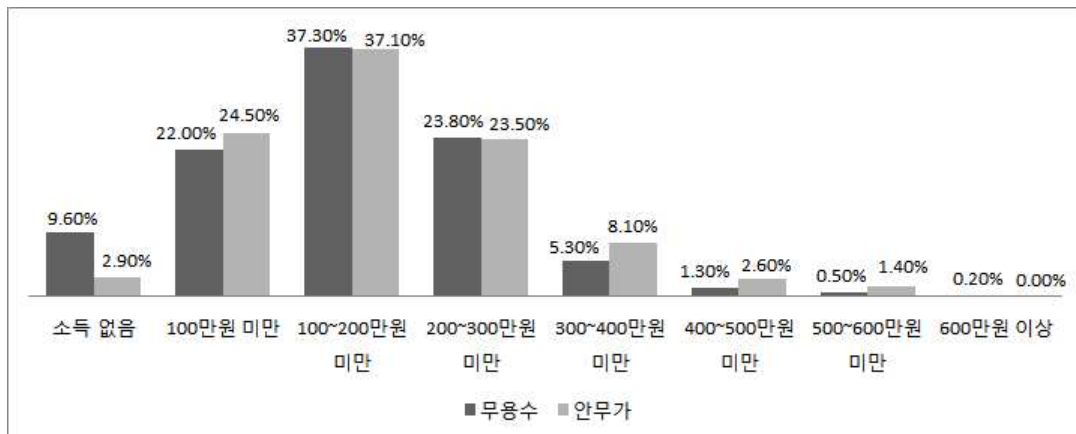
‘안무가’는 100~200만원 미만 37.1%, 100만원 미만 24.5%, 200~300만원 미만 23.5%, 300~400만원 미만 8.1%, 소득 없음 2.9%, 400~500만원 미만 2.6%, 500~600만원 미만 1.4%, 600만원 이상 0.0% 으로 나타났다.

무용수와 안무가를 비교해 보면, 무용수가 안무가 보다 소득이 없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 소득과 200~300만원 미만 소득이 무용수가 안무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구분	무용수		안무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없음	116	9.6%	12	2.9%
100만원 미만	265	22.0%	103	24.5%
100~200만원 미만	449	37.3%	156	37.1%
200~300만원 미만	287	23.8%	99	23.5%
300~400만원 미만	64	5.3%	34	8.1%
400~500만원 미만	16	1.3%	11	2.6%
500~600만원 미만	6	0.5%	6	1.4%
600만원 이상	2	0.2%	0	0.0%
합계	1205	100.0%	421	100.0%

[그림 84] 활동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5)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차이 결과, ‘단체장’은 100만원 미만 38.6%, 소득 없음 26.8%, 100~200만원 미만 17.3%, 200~300만원 미만 11.0%, 300~400만원 미만 4.7%, 400~500만원 미만 0.8%, 500~600만원 미만 0.8%, 600만원 이상 0%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00~200만원 미만 38.9%, 200~300만원 미만 37.5%, 100만원 미만 8.7%, 300~400만원 미만 8.7%, 400~500만원 미만 3.8%, 소득 없음 1.9%, 500~600만원 미만 0.5%, 600만원 이상 0.0%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은 100~200만원 미만 45.7%, 200~300만원 미만 28.1%, 100만원 미만 16.5%, 300~400만원 미만 5.5%, 소득 없음 2.7%, 400~500만원 미만 0.9%, 500~600만원 미만 0.4%, 600만

원 이상 0.4% 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는 100만원 미만 35.0%, 100~200만원 미만 34.7%, 200~300만원 미만 13.9%, 소득 없음 10.9%, 300~400만원 미만 3.6%, 400~500만원 미만 1.2%, 500~600만원 미만 0.6%, 600만원 이상 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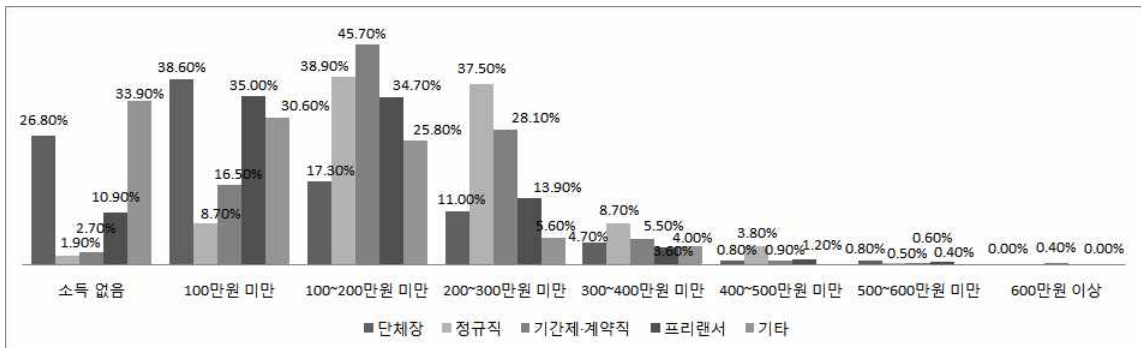
‘기타’는 100만원 미만 30.6%, 소득 없음 33.9%, 100~200만원 미만 25.8%, 200~300만원 미만 5.6%, 300~400만원 미만 4.0%, 400~500만원 미만 0%, 500~600만원 미만 0%, 600만원 이상 0.0%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음은 프리랜서와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0만 미만은 프리랜서와 기간제·계약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이 고용형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2]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 없음	34	26.8%	4	1.9%	15	2.7%	36	10.9%	42	33.9%
100만원 미만	49	38.6%	18	8.7%	93	16.5%	116	35.0%	38	30.6%
100~200만원 미만	22	17.3%	81	38.9%	258	45.7%	115	34.7%	32	25.8%
200~300만원 미만	14	11.0%	78	37.5%	159	28.1%	46	13.9%	7	5.6%
300~400만원 미만	6	4.7%	18	8.7%	31	5.5%	12	3.6%	5	4.0%
400~500만원 미만	1	0.8%	8	3.8%	5	0.9%	4	1.2%	0	0.0%
500~600만원 미만	1	0.8%	1	0.5%	2	0.4%	2	0.6%	0	0.0%
600만원 이상	0	0.0%	0	0.0%	2	0.4%	0	0.0%	0	0.0%
합계	127	100.0 %	208	100.0 %	565	100.0 %	331	100.0 %	124	100.0 %

[그림 85] 고용형태에 따른 월 평균 본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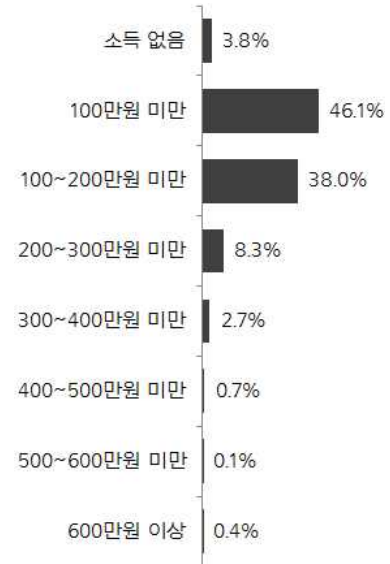
(6) 월 평균 본인 지출

월 평균 본인 지출에 따른 조사 결과, 100만원 미만 46.1%, 100~200만원 미만 38.0%, 200~300만원 미만 8.3%, 소득 없음 3.8%, 300~400만원 미만 2.7%, 400~500만원 미만 0.7%, 600만원 이상 0.4%, 500~600만원 미만 0.1%로 나타났다.

[표 101]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소득 없음	51	3.5%	3.8%
100만원 미만	620	42.0%	46.1%
100~200만원 미만	511	34.6%	38.0%
200~300만원 미만	112	7.6%	8.3%
300~400만원 미만	37	2.5%	2.7%
400~500만원 미만	9	0.6%	0.7%
500~600만원 미만	1	0.1%	0.1%
600만원 이상	5	0.3%	0.4%
계	1,346	91.2%	100.0%
응답하지 않음	130	8.8%	-
합계	1,476	100.0%	-

[그림 86] 월 평균 본인 지출



(7)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는 일반 생활비 10만원,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 1만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최대’는 일반 생활비 600만원,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 600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평균’의 경우, 일반 생활비 102.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 48.7만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최빈값’으로는 일반 생활비 100만원으로 응답인원이 228명(21.6%)으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으며,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20만원으로 응답인원 132명(16.8%)으로 조사되었다.

[표 102] 월 평균 본인 지출 구분

구분	일반 생활비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
최소	10만원	1만원
최대	600만원	600만원
평균	102.9만원	48.7만원
최빈	100만원	20만원
	228명	132명
	21.6%	16.8%

(8) 월 평균 소득 비율

월 평균 소득 비율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수 활동을 통한 수입 평균은 51.0%, 무용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수입 평균은 30.1%, 예술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수입 평균은 11.3%, 기타 예술 활동(이벤트 포함한 타 장르) 평균은 7.0% 순으로 나타났다.

무용활동을 통한 수입에 의존 하는 무용수가 81.1%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수입으로 월 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무용수도 11.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3] 월 평균 소득 비율

구분	무용수 활동을 통한 수입	무용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수입	기타 예술 활동 (이벤트 포함한 타 장르)	예술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수입
평균	51.0%	30.1%	7.0%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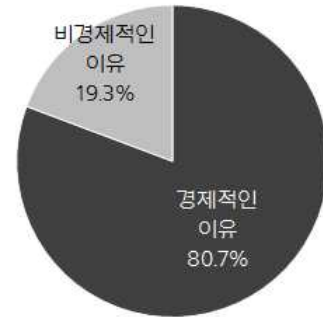
(9)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에 따른 조사 결과, 경제적인 이유 80.7%, 비경제적인 이유 19.3%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무용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무용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4]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경제적인 이유	360	67.8%	80.7%
비경제적인 이유	86	16.2%	19.3%
계	446	84.0%	100.0%
응답하지 않음	85	16.0%	-
합계	531	100.0%	-

[그림 87]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10)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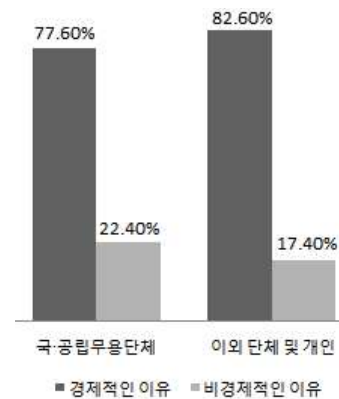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에 경우 경제적인 이유 77.6%, 비 경제적인 이유 22.4% 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82.6%, 비 경제적인 이유 17.4% 로 나타났다.

이는 이외 단체 및 개인의 경우 국·공립무용단체 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공립무용단체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유로 무용 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77.6%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8]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표 105]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인 이유	90	77.6%	266	82.6%
비경제적인 이유	26	22.4%	56	17.4%
합계	116	100.0%	322	100.0%



(11)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단체장’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90.0%, 비 경제적인 이유 10.0% 순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72.9%, 비 경제적인 이유 27.1%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86.2%, 비 경제적인 이유 13.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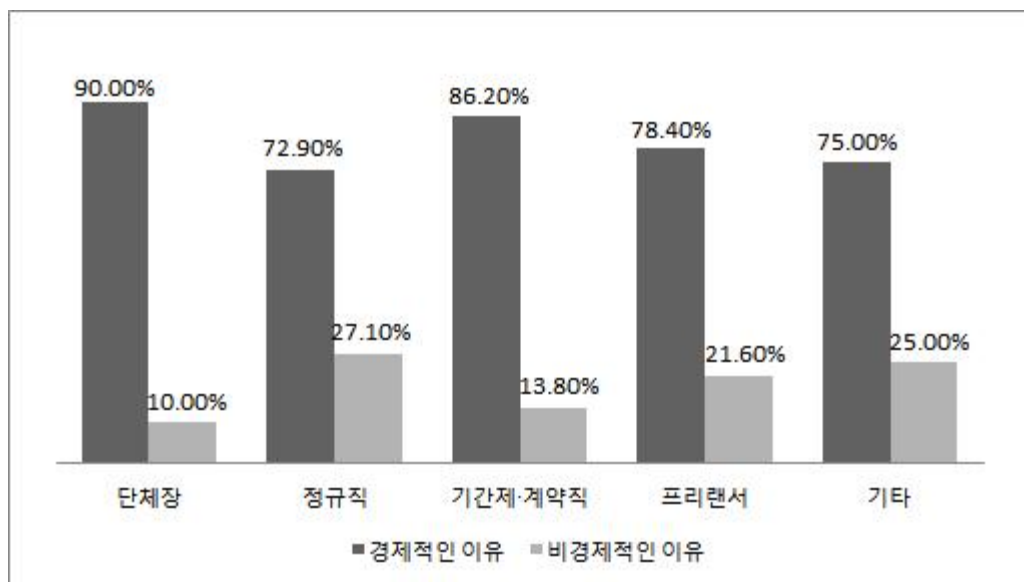
로 나타났고, ‘프리랜서’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78.4%, 비 경제적인 이유 2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75.0%, 비 경제적인 이유 25.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무용 이외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6]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인 이유	36	90.0%	43	72.9%	119	86.2%	127	78.4%	33	75.0%
비경제적인 이유	4	10.0%	16	27.1%	19	13.8%	35	21.6%	11	25.0%
합계	40	100.0%	59	100.0%	138	100.0%	162	100.0%	44	100.0%

[그림 89] 고용형태에 따른 무용 이외 경제활동 이유



(12) 무용 이외 경제활동 시간투자 비율 : 평균 43.6%

무용 이외 경제 활동 시간 투자 비율은 평균 43.6%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8.6%, 노후대비 20.5%, 무용 활동 경비마련 19.7%,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1.2%, 주택문제 5.2%, 채무 해결 3.6%, 자녀 교육비 3.5%, 의료비 1.3%, 기타 6.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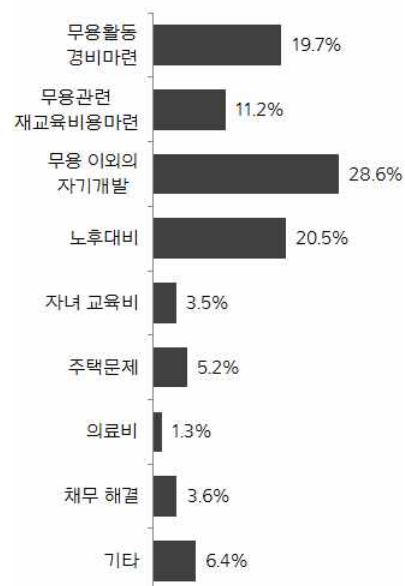
이 답변을 통해, 전문무용수들은 무용 이외의 자기 계발에 최우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후대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현안은 무용관련 활동비용과 무용관련 재 교육비용 마련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무용 활동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무용수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투자 비용이 큰 문화예술계 직종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재투자 비용이 기본 소득에 비해 높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무용수들의 자기 계발비용은 일종의 딜레마인 셈이다.

[그림 90]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표 107]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구분	빈도	비율	유호비율
무용 활동 경비마련	282	19.1%	19.7%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61	10.9%	11.2%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409	27.7%	28.6%
노후대비	293	19.9%	20.5%
자녀 교육비	50	3.4%	3.5%
주택문제	74	5.0%	5.2%
의료비	19	1.3%	1.3%
채무 해결	52	3.5%	3.6%
기타	92	6.2%	6.4%
계	1,432	97.0%	100.0%
응답하지 않음	44	3.0%	-
합계	1,476	100.0%	-



※ 기타 : 기타 경제적인 현안 44명 등

(14)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20~24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38.7%, 무용 활동 경비마련 19.4%, 노후대비 15.7%,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4.1%, 기타 6.0%, 채무 해결 2.1%, 주택문제 2.1%, 의료비 1.6%, 자녀 교육비 0.3% 순으로 나타났다.

‘25~29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9.5%, 무용 활동 경비마련 22.8%,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4.2%, 노후대비 15.5%, 기타 7.1%, 주택문제 4.7%, 채무 해결 3.4%, 의료비 1.5%, 자녀 교육비 1.3%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5.5%, 무용 활동 경비마련 20.3%, 노후대비 18.9%, 주택문제 9.4%,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8.7%, 기타 8.0%, 채무 해결 4.9%, 자녀 교육비 3.1%, 의료비 1.0% 순으로 나타났다.

‘35~39세’ 경우, 노후대비 33.1%,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1.5%, 무용 활동 경비마련 12.4%, 자녀 교육비 9.1%, 주택문제 6.6%, 채무 해결 6.6%,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5.8%, 기타 4.1%, 의료비 0.8%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 경우, 노후대비 43.0%, 무용 활동 경비마련 17.0%,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9.0%, 자녀 교육비 9.0%, 주택문제 8.0%,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5.0%, 기타 4.0%, 채무 해결 3.0%, 의료비 2.0% 순으로 나타났다.

‘45~49세’ 경우, 자녀 교육비 30.2%, 노후대비 25.6%, 무용 활동 경비마련 14.0%,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14.0%,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4.7%, 채무 해결 4.7%, 기타 4.7%, 주택문제 2.3%, 의료비 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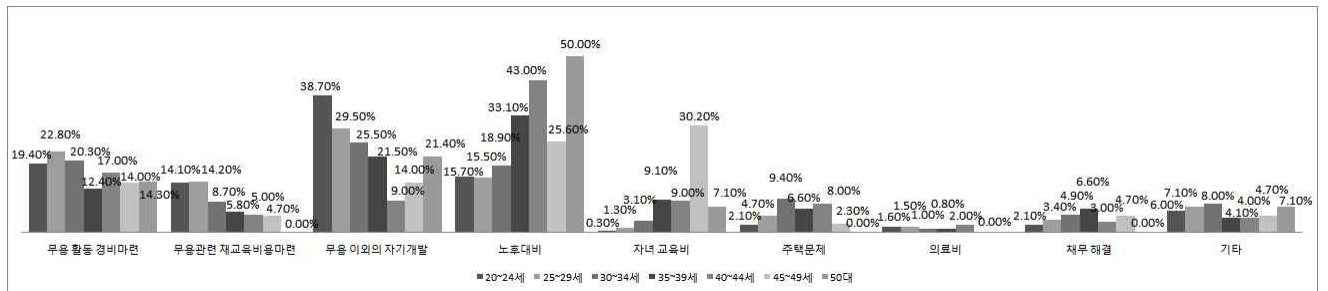
‘50대’ 경우, 노후대비 50.0%,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1.4%, 무용 활동 경비마련 14.3%, 자녀 교육비 7.1%, 기타 7.1%,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주택문제, 의료비, 채무 해결이 각 0.0%로 답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20대~34대 미만은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무용 활동 경비마련,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에 최우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35~50대 이상은 노후대비, 자녀 교육기가 최우선 현안으로 나타났다.

[표 108]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 활동 경비마련	74	19.4%	106	22.8%	58	20.3%	15	12.4%	17	17.0%	6	14.0%	2	14.3%
무용관련 재교육비용 마련	54	14.1%	66	14.2%	25	8.7%	7	5.8%	5	5.0%	2	4.7%	0	0.0%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148	38.7%	137	29.5%	73	25.5%	26	21.5%	9	9.0%	6	14.0%	3	21.4%
노후대비	60	15.7%	72	15.5%	54	18.9%	40	33.1%	43	43.0%	11	25.6%	7	50.0%
자녀 교육비	1	0.3%	6	1.3%	9	3.1%	11	9.1%	9	9.0%	13	30.2%	1	7.1%
주택문제	8	2.1%	22	4.7%	27	9.4%	8	6.6%	8	8.0%	1	2.3%	0	0.0%
의료비	6	1.6%	7	1.5%	3	1.0%	1	0.8%	2	2.0%	0	0.0%	0	0.0%
채무 해결	8	2.1%	16	3.4%	14	4.9%	8	6.6%	3	3.0%	2	4.7%	0	0.0%
기타	23	6.0%	33	7.1%	23	8.0%	5	4.1%	4	4.0%	2	4.7%	1	7.1%
합계	382	100.0%	465	100.0%	286	100.0%	121	100.0%	100	100.0%	43	100.0%	14	100.0%

[그림 91] 연령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15)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노후대비 29.0%,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8.2%, 무용 활동 경비마련 12.7%,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8.9%, 주택문제 5.6%, 기타 5.0%, 자녀 교육비 4.8%, 채무 해결 4.1%, 의료비 1.7% 순으로 나타났다.

‘의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8.7%, 무용 활동 경비마련 23.8%, 노후대비 16.3%,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1.8%, 기타 7.0%, 주택문제 4.9%, 채무 해결 3.3%, 자녀 교육비 3.0%,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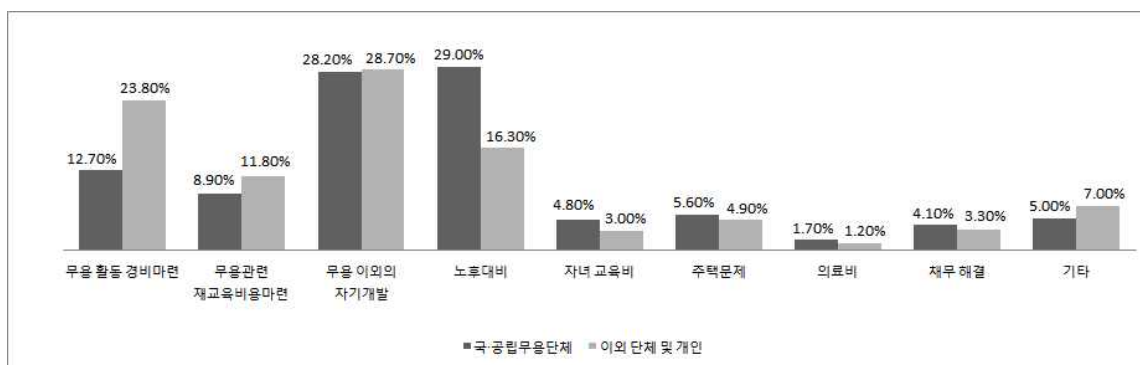
비 1.2%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무용단체와 이외 단체 및 개인의 공통점은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과 노후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해결과 의료비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09]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구분	국·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 활동 경비마련	61	12.7%	216	23.8%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43	8.9%	107	11.8%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136	28.2%	260	28.7%
노후대비	140	29.0%	148	16.3%
자녀 교육비	23	4.8%	27	3.0%
주택문제	27	5.6%	44	4.9%
의료비	8	1.7%	11	1.2%
채무 해결	20	4.1%	30	3.3%
기타	24	5.0%	63	7.0%
합계	482	100.0%	906	100.0%

[그림 92] 소속단체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16)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단체장’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34.8%, 무용 활동 경비마련 21.0%, 노후대비 17.4%,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1.6%, 기타 5.8%, 자녀 교육비 5.1%, 채무 해결 2.2%, 의료비 1.4%, 주택문제 0.7%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5.7%, 노후대비 25.7%, 무용 활동 경비마련 16.7%,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9.0%, 자녀 교육비 7.6%, 기타 6.2%, 주택문제 4.3%, 의료비 2.4%, 채무 해결 2.4%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8.8%, 노후대비 24.3%, 무용 활동 경비마련 15.6%,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0.9%, 주택문제 7.7%, 채무 해결 4.4%, 기타 4.0%, 자녀 교육비 2.8%, 의료비 1.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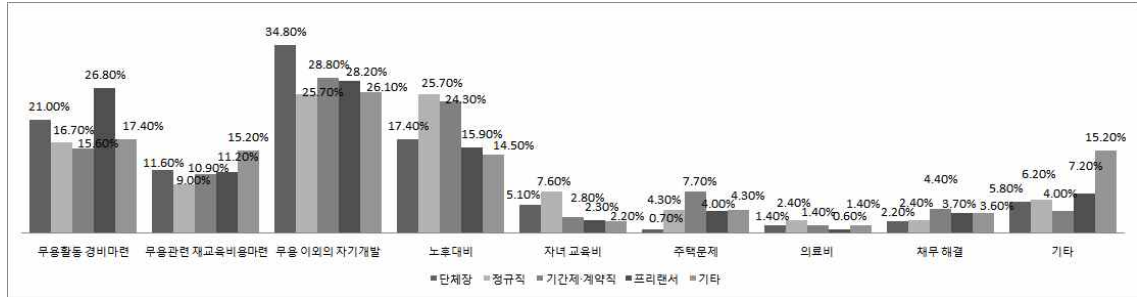
‘프리랜서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8.2%, 무용 활동 경비마련 26.8%, 노후대비 15.9%,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1.2%, 기타 7.2%, 주택문제 4.0%, 채무 해결 3.7%, 자녀 교육비 2.3%, 의료비 0.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26.1%, 무용 활동 경비마련 17.4%,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15.2%, 기타 15.2%, 노후대비 14.5%, 주택문제 4.3%, 채무 해결 3.6%, 자녀 교육비 2.2%, 의료비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0]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용활동 경비마련	29	21.0%	35	16.7%	89	15.6%	93	26.8%	24	17.4%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 련	16	11.6%	19	9.0%	62	10.9%	39	11.2%	21	15.2%
무용 이외의 자기계발	48	34.8%	54	25.7%	164	28.8%	98	28.2%	36	26.1%
노후대비	24	17.4%	54	25.7%	138	24.3%	55	15.9%	20	14.5%
자녀 교육비	7	5.1%	16	7.6%	16	2.8%	8	2.3%	3	2.2%
주택문제	1	0.7%	9	4.3%	44	7.7%	14	4.0%	6	4.3%
의료비	2	1.4%	5	2.4%	8	1.4%	2	0.6%	2	1.4%
채무 해결	3	2.2%	5	2.4%	25	4.4%	13	3.7%	5	3.6%
기타	8	5.8%	13	6.2%	23	4.0%	25	7.2%	21	15.2%
합계	138	100.0%	210	100.0%	569	100.0%	347	100.0%	138	100.0%

[그림 93]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생활 최우선적 현안



2. 사회기여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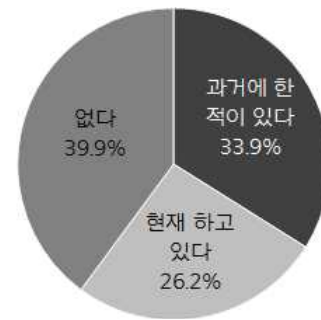
(1) 사회기여활동 경험 여부

사회기여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없다 39.9%, 과거에 한 적이 있다 33.9%, 현재 하고 있다 2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 사회기여활동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과거에 한 적이 있다	489	33.1%	33.9%
현재 하고 있다	378	25.6%	26.2%
없다	575	39.0%	39.9%
계	1,442	97.7%	100.0%
응답하지 않음	34	2.3%	-
합계	1,476	100.0%	-

[그림 94] 사회기여활동 경험



(2)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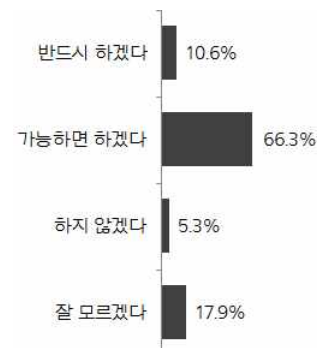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에 따른 조사 결과, 가능하면 하겠다 66.3%, 잘 모르겠다 17.9%, 반드시 하겠다 10.6%, 하지 않겠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가의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기여 활동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사라 할 수 있다.

[표 112]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반드시 하겠다	153	10.4%	10.6%
가능하면 하겠다	957	64.8%	66.3%
하지 않겠다	76	5.1%	5.3%
잘 모르겠다	258	17.5%	17.9%
계	1,444	97.8%	100.0%
응답하지 않음	32	2.2%	-
합계	1,476	100.0%	-

[그림 95] 향후 사회기여활동 참여 의향



VI.

전문무용수

삶의 질

VI.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질

1. 전문무용수들의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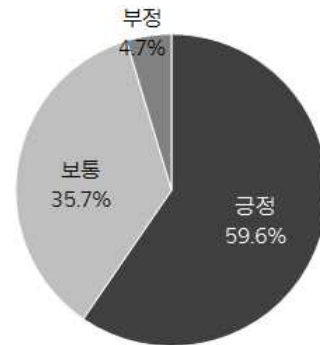
(1)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에 따른 조사 결과, 매우 행복하다 6.5%, 행복한 편 53.1%, 보통 35.7%, 행복하지 않은 편 4.3%, 전혀 행복하지 않다 0.3% 으로 나타났다.

[표 113]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행복하다	93	6.5%	59.6%
행복한 편	762	53.1%	
보통	513	35.7%	35.7%
행복하지 않은 편	62	4.3%	4.7%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0.3%	
합계	1,435	100.0%	100.0%

[그림 96]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 응답하지 않음 : 41명

(2)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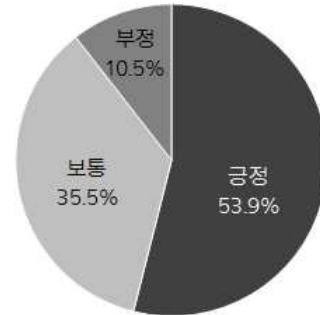
행복수준이 전문 무용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조사 결과, 매우 크다 12.9%, 큰 편 41.0%, 보통 35.5%, 작은 편 9.2%, 매우 작다 1.3% 으로 나타났다.

[표 114]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크다	185	12.9%	53.9%
큰 편	588	41.0%	
보통	509	35.5%	35.5%
작은 편	132	9.2%	10.5%
매우 작다	19	1.3%	
합계	1,433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43명

[그림 97] 행복수준이 전문무용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3)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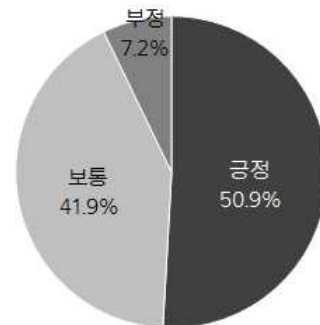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에 따른 조사 결과, 매우 행복하다 6.1%, 행복한 편 44.8%, 보통 41.9%, 행복하지 않은 편 6.7%, 전혀 행복하지 않다 0.5% 으로 나타났다.

[표 115]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행복하다	89	6.1%	50.9%
행복한 편	649	44.8%	
보통	608	41.9%	41.9%
행복하지 않은 편	97	6.7%	7.2%
전혀 행복하지 않다	7	0.5%	
합계	1,450	100.0%	100.0%

※ 응답하지 않음 : 26명

[그림 98]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4)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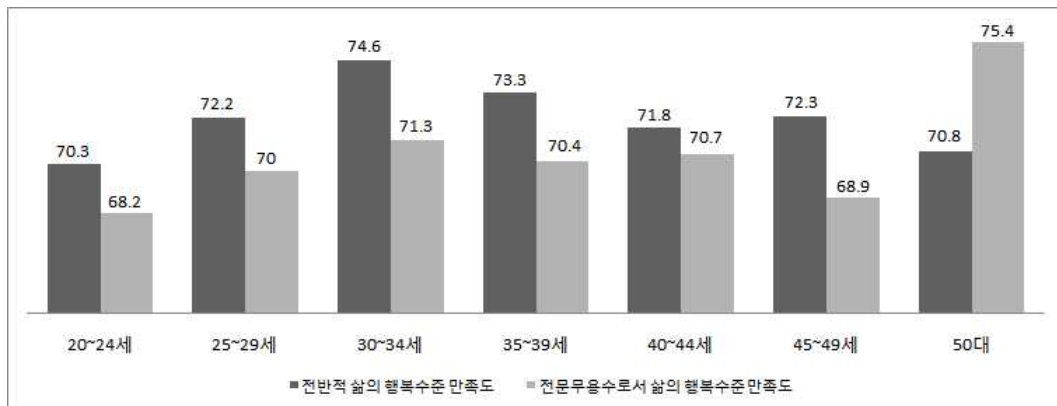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차이 결과,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는 20~24세인 경우 70.3점, 25~29세인 경우 72.2 점, 30~34세인 경우 74.6점, 35~39세인 경우 73.3점, 40~44세인 경우 71.8점, 45~49세인 경우 72.3점, 50대인 경우 70.8점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문무용수들의 행복 만족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만족함’으로 볼 수 있다.

[표 116]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대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70.3점	72.2점	74.6점	73.3점	71.8점	72.3점	70.8점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68.2점	70.0점	71.3점	70.4점	70.7점	68.9점	75.4점

[그림 99] 연령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5)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고용 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차이 결과,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는 ‘단체장’인 경우 68.3점, ‘정규직’인 경우 75.3점,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72.9점, ‘프리랜서’인 경우 72.0점, ‘기타’인 경우 70.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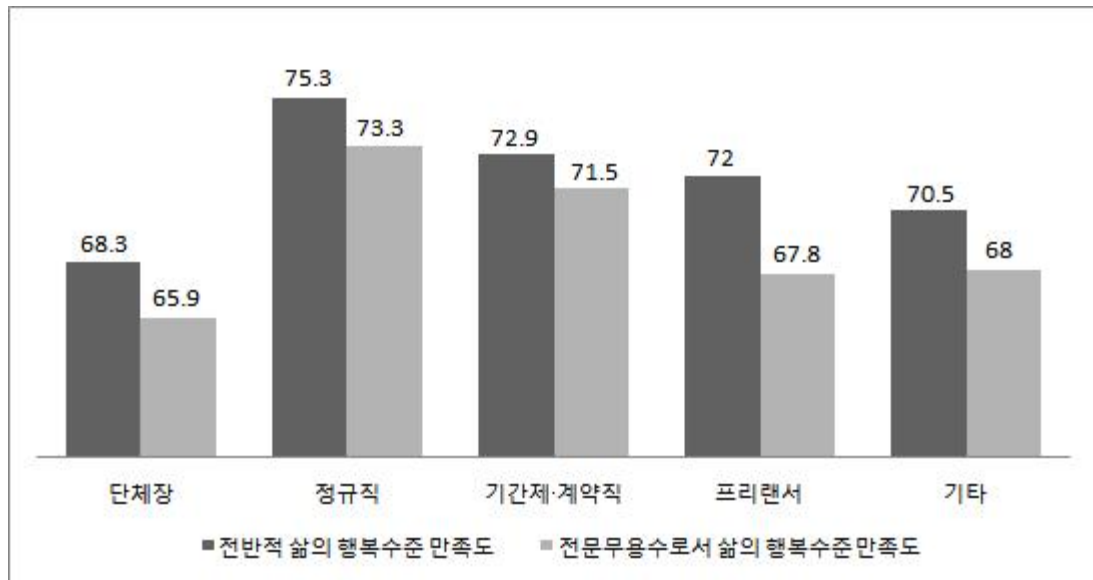
고용 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차이 결과,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는 ‘단체장’인 경우 65.9점, ‘정규직’인 경우 73.3점,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71.5점, ‘프리랜서’인 경우 67.8점, ‘기타’인 경우 68.0점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의 행복수준 차이 결과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와 ‘전문무용수로서의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모두 단체장에 소속된 경우 행복 수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정규직에 소속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17]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전반적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68.3점	75.3점	72.9점	72.0점	70.5점
전문무용수로서 삶의 행복수준 만족도	65.9점	73.3점	71.5점	67.8점	68.0점

[그림 100]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수준 만족도 차이



2. 전문무용수들의 스트레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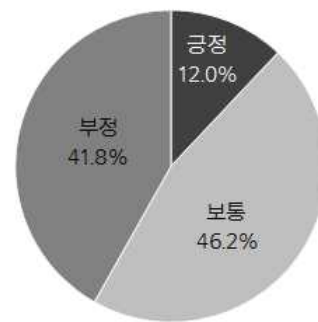
(1)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보통 46.2%, 심한 편 33.6%, 심하지 않은 편 11.3%, 매우 심하다 8.2%, 전혀 심하지 않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8]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전혀 심하지 않다	10	0.7%	12.0%
심하지 않은 편	164	11.3%	
보통	667	46.2%	41.8%
심한 편	486	33.6%	
매우 심하다	118	8.2%	
합계	1,445	100.0%	100.0%

[그림 101]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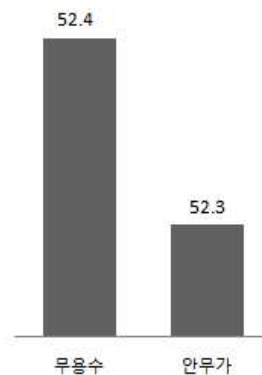


※ 응답하지 않음 : 31명

(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무용수는 52.4점, 안무가는 52.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용수와 안무가가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0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표 119]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구분	무용수	안무가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52.4점	52.3점

(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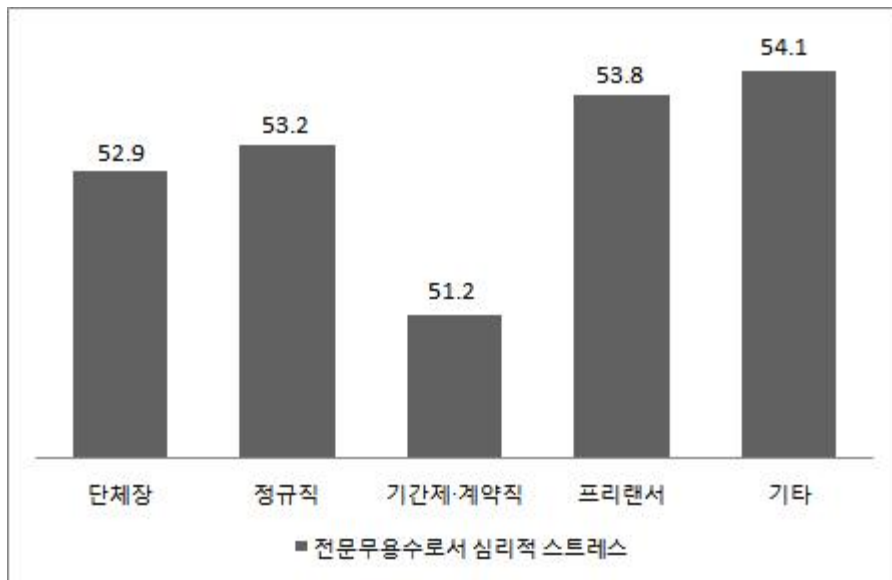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단체장인 경우 52.9점’, ‘정규직인 경우 53.2점’,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51.2점’, ‘프리랜서인 경우 53.8점’, ‘기타인 경우 54.1점’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이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걸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가장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났다.

[표 120]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차이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52.9점	53.2점	51.2점	53.8점	54.1점

[그림 10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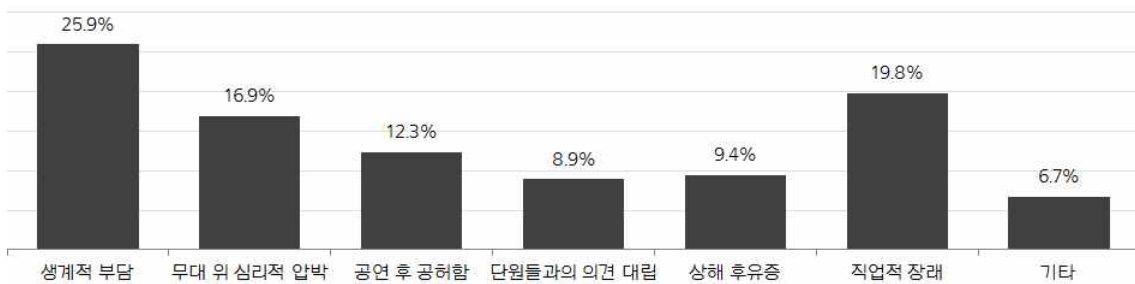
(4)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조사 결과, 생계적 부담 33.5%,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1.8%, 공연 후 공허함 15.9%,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1.5%, 상해 후유증 12.2%, 직업적 장래 25.5%, 기타 8.7% 로 나타났다.

[표 121]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생계적 부담	478	25.9%	33.5%
무대 위 심리적 압박	312	16.9%	21.8%
공연 후 공허함	227	12.3%	15.9%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64	8.9%	11.5%
상해 후유증	174	9.4%	12.2%
직업적 장래	364	19.8%	25.5%
기타	124	6.7%	8.7%
합계	1,843	100.0%	129.1%

[그림 104] 심리적 스트레스 원인



(5)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국·공립무용단체’인 경우, 생계적 부담 34.7%, 직업적 장래 25.6%,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0.8%, 공연 후 공허함 16.4%, 상해 후유증 13.4%,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2.1%, 기타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체 및 개인’인 경우, 생계적 부담 41.6%, 직업적 장래 25.3%, 무대 위 심리적 압박 16.3%, 공연 후 공허함 15.8%,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3.7%, 상해 후유증 13.0%, 기타 9.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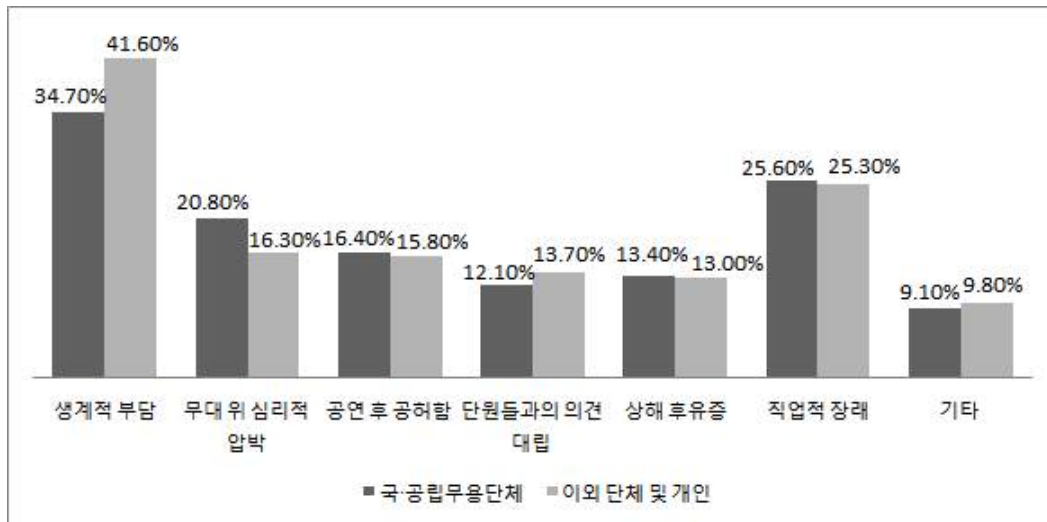
심리적 스트레스 다각도로 드러날 수 있으나, 다중 응답을 통해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122]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구분	국 공립무용단체		이외 단체 및 개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계적 부담	431	34.7%	179	41.6%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58	20.8%	70	16.3%
공연 후 공허함	204	16.4%	68	15.8%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50	12.1%	59	13.7%
상해 후유증	166	13.4%	56	13.0%
직업적 장래	318	25.6%	109	25.3%
기타	113	9.1%	42	9.8%
합계	1640	132.2%	583	135.6%

※ 다중응답 허용

[그림 105] 활동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 다중응답 허용

(6)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차이에 따른 조사 결과, '단체장'인 경우, 생계적 부담 30.4%,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0.0%, 공연 후 공허함 20.0%, 직업적 장래 20.0%,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7.8%, 상해 후유증 6.7%, 기타 5.2%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경우,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9.8%, 생계적 부담 25.9%, 직업적 장래 22.9%, 상해 후유증 17.6%,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4.6%, 공연 후 공허함 13.7%, 기타 12.7%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생계적 부담 32.1%, 직업적 장래 27.4%,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5.1%, 공연 후 공허함 15.1%, 상해 후유증 14.4%,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2.8%, 기타 7.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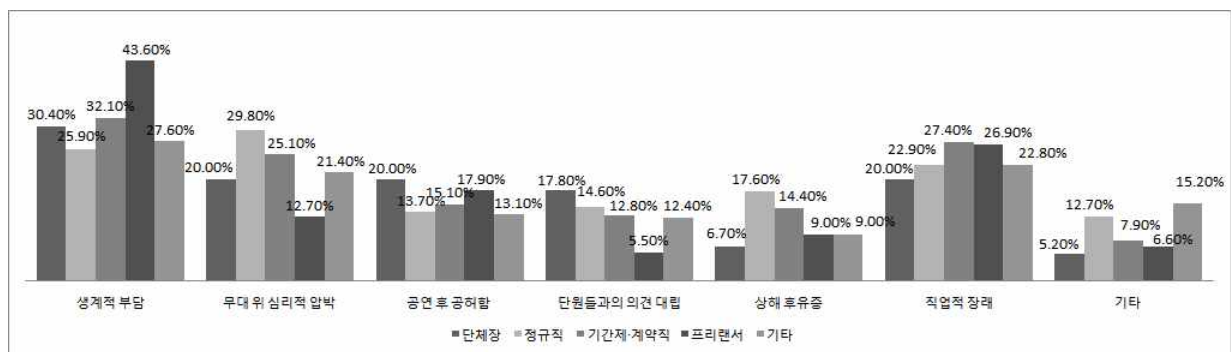
‘프리랜서’인 경우, 생계적 부담 43.6%, 직업적 장래 26.9%, 공연 후 공허함 17.9%, 무대 위 심리적 압박 12.7%, 상해 후유증 9.0%, 기타 6.6%,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5.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 생계적 부담은 27.6%, 직업적 장래 22.8%,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1.4%, 기타 15.2%, 공연 후 공허함 13.1%,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12.4%, 상해 후유증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3]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구분	단체장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프리랜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계적 부담	41	30.4%	53	25.9%	183	32.1%	151	43.6%	40	27.6%
무대 위 심리적 압박	27	20.0%	61	29.8%	143	25.1%	44	12.7%	31	21.4%
공연 후 공허함	27	20.0%	28	13.7%	86	15.1%	62	17.9%	19	13.1%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24	17.8%	30	14.6%	73	12.8%	19	5.5%	18	12.4%
상해 후유증	9	6.7%	36	17.6%	82	14.4%	31	9.0%	13	9.0%
직업적 장래	27	20.0%	47	22.9%	156	27.4%	93	26.9%	33	22.8%
기타	7	5.2%	26	12.7%	45	7.9%	23	6.6%	22	15.2%
합계	162	120.0 %	281	137.1%	768	134.7%	423	122.3%	176	121.4%

[그림 106] 고용형태에 따른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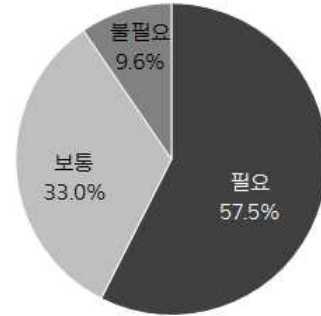
(7)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 40.3%, 보통 33.0%, 매우 필요하다 17.2%, 필요 없는 편 8.9%, 전혀 필요 없다 0.7% 으로 나타났다.

[표 124]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구분	빈도	비율	긍정/부정
매우 필요하다	246	17.2%	57.5%
필요하다	578	40.3%	
보통	473	33.0%	9.6%
필요 없는 편	127	8.9%	
전혀 필요 없다	10	0.7%	
합계	1,434	100.0%	100.0%

[그림 107]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원센터의 지원 필요 정도



※ 응답하지 않음 : 42명

(8)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응답자수 1,420명이며, 긍정 12.4%, 보통 36.9%, 부정 50.7%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50.6점이다.

‘무용발표 기회’의 경우, 응답자수는 1,419명이며, 긍정 7.1%, 보통 36.8%, 부정 56.1%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48.1점이다.

‘무용 활동 지원’의 경우, 응답자수는 1,417명이며, 긍정 2.4%, 보통 23.0%, 부정 74.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39.7점이다.

[표 125]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	긍정	보통	부정	점수
사회적 평가	1,420	12.4%	36.9%	50.7%	50.6점
무용발표 기회	1,419	7.1%	36.8%	56.1%	48.1점
무용 활동 지원	1,417	2.4%	23.0%	74.6%	39.7점

[그림 108] 국내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VII.

무용단체

Ⅶ. 무용단체

1.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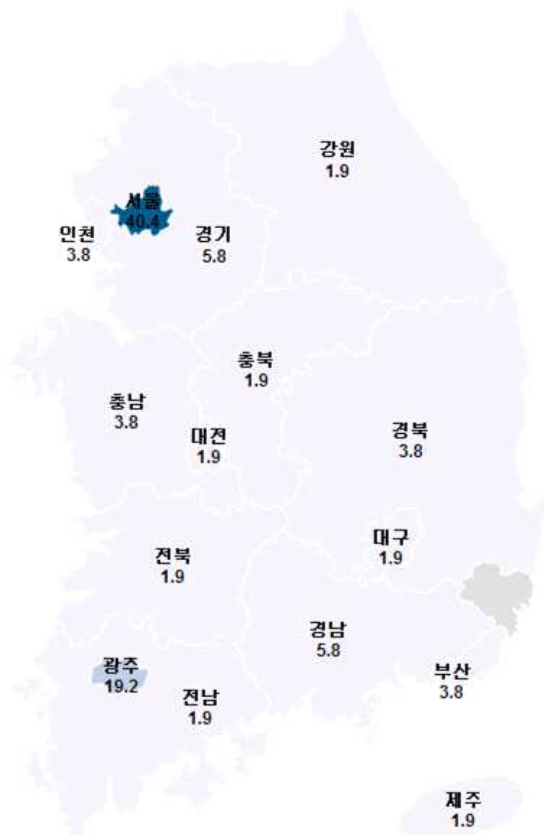
(1) 소재지

소재지에 따른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40.4%, 광주광역시 19.2%, 경기도 5.8%, 경상남도 5.8%, 부산광역시 3.8%, 인천광역시 3.8%, 경상북도 3.8%, 충청남도 3.8%, 강원도 1.9%, 대구광역시 1.9%, 충청북도 1.9%, 대전광역시 1.9%, 전라남도 1.9%, 전라북도 1.9%, 제주특별자치도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6] 무용단체 소재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강원도	1	1.7%	1.9%
경기도	3	5.0%	5.8%
경상남도	3	5.0%	5.8%
경상북도	2	3.3%	3.8%
광주광역시	10	16.7%	19.2%
대구광역시	1	1.7%	1.9%
대전광역시	1	1.7%	1.9%
부산광역시	2	3.3%	3.8%
서울특별시	21	35.0%	40.4%
인천광역시	2	3.3%	3.8%
전라남도	1	1.7%	1.9%
전라북도	1	1.7%	1.9%
제주특별자치도	1	1.7%	1.9%
충청남도	2	3.3%	3.8%
충청북도	1	1.7%	1.9%
계	52	86.7%	100.0%
응답하지 않음	8	13.3%	-
합계	60	100.0%	-

[그림 109] 무용단체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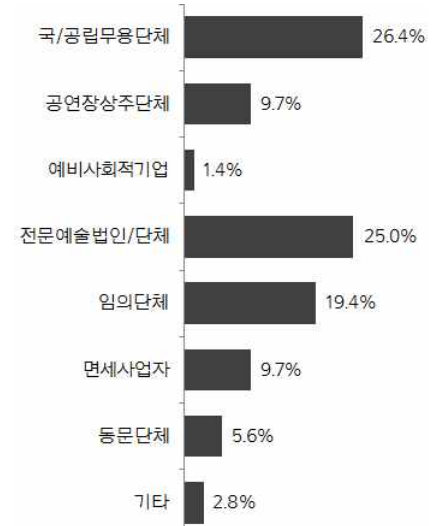
(2) 단체특성

단체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 국/공립무용단체 32.8%, 전문예술법인/단체 31.0%, 임의단체 24.1%, 공연장상주단체 12.1%, 면세사업자 12.1%, 동문단체 6.9%, 기타 3.4%, 예비 사회적기업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7] 무용단체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국/공립무용단체	19	26.4%	32.8%
공연장상주단체	7	9.7%	12.1%
예비사회적기업	1	1.4%	1.7%
전문예술법인/단체	18	25.0%	31.0%
임의단체	14	19.4%	24.1%
면세사업자	7	9.7%	12.1%
동문단체	4	5.6%	6.9%
기타	2	2.8%	3.4%
합계	72	100.0%	124.1%

[그림 110] 무용단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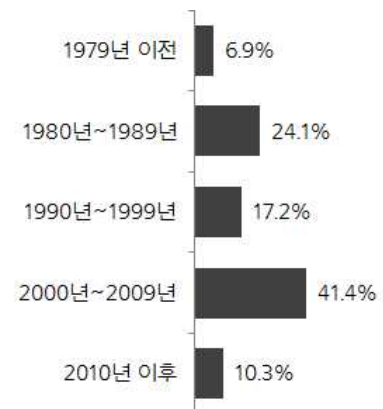
(3) 창립년도

창립년도에 따른 조사 결과, 2000년~2009년 41.4%, 1979년 이전 6.9%, 1980년~1989년 24.1%, 1990년~1999년 17.2%, 2010년 이후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8] 무용단체 창립년도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1979년 이전	4	6.7%	6.9%
1980년~1989년	14	23.3%	24.1%
1990년~1999년	10	16.7%	17.2%
2000년~2009년	24	40.0%	41.4%
2010년 이후	6	10.0%	10.3%
계	58	96.7%	100.0%
응답하지 않음	2	3.3%	-
합계	60	100.0%	-

[그림 111] 무용단체 창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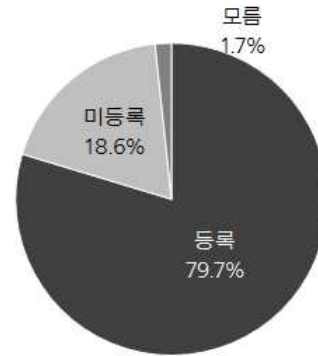
(4)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 79.7%, 미등록 18.6%, 모름 1.7% 으로 나타났다.

[표 129] 무용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등록	47	78.3%	79.7%
미등록	11	18.3%	18.6%
모름	1	1.7%	1.7%
계	59	98.3%	100.0%
응답하지 않음	1	1.7%	-
합계	60	100.0%	-

[그림 112] 무용단체 사업자등록 여부



(5) 주 활동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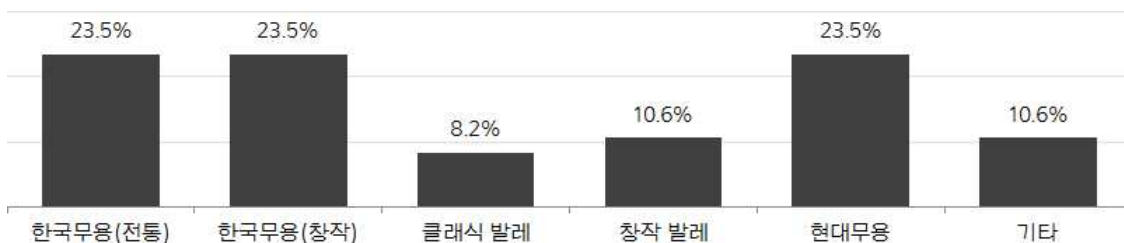
주 활동 장르에 따른 조사 결과, 한국무용(전통) 33.3%, 한국무용(창작) 33.3%, 현대무용 33.3%, 창작 발레 15.0%, 기타 15.0%, 클래식 발레 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0] 무용단체 주 활동 장르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한국무용(전통)	20	23.5%	33.3%
한국무용(창작)	20	23.5%	33.3%
클래식 발레	7	8.2%	11.7%
창작 발레	9	10.6%	15.0%
현대무용	20	23.5%	33.3%
기타	9	10.6%	15.0%
합계	85	100.0%	141.7%

※ 기타 : 댄스분야 6개 등

[그림 113] 무용단체 주 활동 장르



2. 고용 현황

(1) 단체 총 인원

단체 총 인원수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총 인원 수 1명, 최대 총 인원 수 120명, 평균 총 인원 수 27.3명, 최빈수는 총 인원 수 20명(14.0%), 8개로 나타났다.

[표 131] 무용단체 총 인원

구분	총 인원 수
최소	1명
최대	120명
평균	27.3명
최빈	20명
	8개
	14.0%

(2) 고용형태별 인원

고용형태별 인원수에 따른 조사 결과, '정규직'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100명, 평균 23.0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계약직(3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명, 최대 120명, 평균 27.7명으로 나타났으며, '단기 계약직(3개월 미만)'인 경우, 최소 2명, 최대 19명, 평균 6.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99명, 평균 19.3명으로 나타났다.

[표 132] 고용형태 별 인원

구분	정규직	장기 계약직 (3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 (3개월 미만)	기타
최소	1명	3명	2명	1명
최대	100명	120명	19명	99명
평균	23.0명	27.7명	6.0명	19.3명
최빈	1명	6명, 38명	5명	10명, 20명
	3개	2개	6개	3개
	17.6%	12.5%	60.0%	17.6%

※ 미가입 : 평균 5.5명

(3) 조직별 인원

조직별 인원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 인력(인원)’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16명, 평균 3.1명으로 나타났다. ‘창작 실연 인력’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80명, 평균 16.5명으로 나타났고, ‘지원 인력(사무, 기획, 기술)’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40명, 평균 6.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력’인 경우, 최소 2명, 최대 32명, 평균 8.4명으로 나타났다.

[표 133] 무용단체 조직별 인원

구분	경영 인력(인원)	창작 실연 인력	지원 인력 (사무, 기획, 기술)	기타 인력
최소	1명	1명	1명	2명
최대	16명	80명	40명	32명
평균	3.1명	16.5명	6.4명	8.4명
최빈	1명	1명	1명	5명
	12개	5개	13개	3개
	34.3%	13.2%	39.4%	37.5%

※ 미가입 : 평균 8.9명

(4) 근무 형태별 인원

근무 형태별 인원에 따른 조사 결과, ‘상근 단원’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60명, 평균 24.3명으로 나타났고, ‘비상근 단원’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60명, 평균 13.8명으로 나타났다.

[표 134] 무용단체 근무 형태별 인원

구분	상근 단원	비상근 단원
최소	1명	1명
최대	60명	60명
평균	24.3명	13.8명
최빈	11명, 15명, 20명, 31명, 44명	20명
	2개	4개
	8.0%	12.1%

※ 미가입 : 평균 8.6명

(5)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별 인원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별 인원에 따른 조사 결과, '작성했다'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80명, 평균 25.0명으로 나타났고, '작성하지 않았다'인 경우, 최소 1명, 최대 32명, 평균 10.4명으로 나타났다.

[표 135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별 인원

구분	작성	미작성
최소	1명	1명
최대	80명	32명
평균	25.0명	10.4명
최빈	1명, 6명, 10명, 34명, 38명, 44명, 50명	10명
	2개	4개
	6.9%	14.3%

※ 미가입 : 평균 7.9명

3. 예술·공연 활동

(1) 최근 3년간 작품 수

최근 3년간 작품 수에 따른 조사 결과, 최소 작품 수 1개, 최대 작품 수 300개, 평균 작품 수 37.6개로 나타났다.

[표 136] 무용단체의 최근 3년간 작품 수

구분	작품 수
최소	1개
최대	300개
평균	37.6개
최빈	10개, 15개
	6개
	11.5%

(2) 한 공연 당 공연 횟수 및 무용수 수

한 공연 당 공연 횟수 및 무용수 수에 따른 조사 결과, ‘횟수’인 경우, 최소 1회, 최대 315회, 평균 7.5회로 나타났고, ‘일수’일 경우, 최소 1일, 최대 315일, 평균 8.3일로 나타났다.

‘무용수’일 경우, 최소 2명, 최대 65명, 평균 20.3명으로 나타났다.

[표 137] 무용단체의 한 공연 당 공연 횟수 및 무용수 수

구분	횟수	일수	무용수
최소	1회	1일	2명
최대	315회	315일	65명
평균	7.5회	8.3일	20.3명
최빈	1회	1일	20명, 30명
	27개	24개	8개
	47.4%	41.4%	13.8%

(3)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에 따른 조사 결과, ‘연습장’일 경우, 소유 39.6%, 임대 39.6%, 없음 20.8%로 나타났고, ‘공연장’일 경우, 소유 20.9%, 임대 16.3%, 없음 62.8%, ‘사무실’일 경우, 소유 42.9%, 임대 32.7%, 없음 24.5%로 나타났다.

[표 138] 무용단체의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구분	연습실		공연장		사무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유	21	39.6%	9	20.9%	21	42.9%
임대	21	39.6%	7	16.3%	16	32.7%
없음	11	20.8%	27	62.8%	12	24.5%
합계	53	100.0%	43	100.0%	49	100.0%

[그림 114] 무용단체의 공연관련시설 보유 현황



4. 기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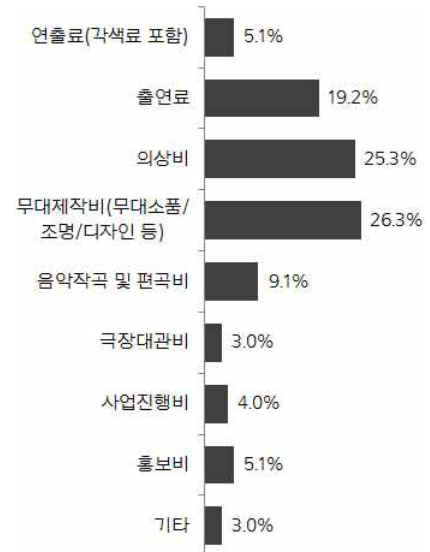
(1)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항목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항목에 따른 조사 결과, 무대제작비(무대소품/조명/디자인 등) 45.6%, 의상비 43.9%, 출연료 33.3%, 음악작곡 및 편곡비 15.8%, 연출료(각색료 포함) 8.8%, 홍보비 8.8%, 사업 진행비 7.0%, 극장 대관비 5.3%,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9]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응답비율
연출료(각색료 포함)	5	5.1%	8.8%
출연료	19	19.2%	33.3%
의상비	25	25.3%	43.9%
무대제작비	26	26.3%	45.6%
음악작곡 및 편곡비	9	9.1%	15.8%
극장 대관비	3	3.0%	5.3%
사업 진행비	4	4.0%	7.0%
홍보비	5	5.1%	8.8%
기타	3	3.0%	5.3%
합계	99	100.0%	173.7%

[그림 115]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예산 항목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건수 및 액수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건수 및 액수에 따른 조사 결과, ‘중앙정부’일 경우, 응답 건수 9건, 응답 액수 10건,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450만원, 최대 건수 6건, 최대 액수 320,000만원, 평균 건수 2.6건, 평균 액수 69,7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도·시·군 지자체)’일 경우, 응답 건수 15건, 응답 액수 10건,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900만원, 최대 건수 10건, 최대 액수 100,000만원, 평균 건수 4.1건, 평균 액수 1,8127.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회(문예기금)’일 경우, 응답 건수 12, 응답 액수 11,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100만원, 최대 건수 4건, 최대 액수 10,000만원, 평균 건수 2.5건, 평균 액수 3,122.7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일 경우, 응답 건수 11건, 응답 액수 10건,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200만

원, 최대 건수 16건, 최대 액수 15,000만원, 평균 건수 3.7건, 평균 액수 3,0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메세나 포함)’일 경우, 응답 건수 4건, 응답 액수 4건,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2000만원, 최대 건수 3건, 최대 액수 8,000만원, 평균 건수 2.0건, 평균 액수 4,6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후원자’일 경우, 응답 건수 8건, 응답 액수 9건, 최소 건수 1건 최소 액수 100만원, 최대 건수 84건, 최대 액수 11,800만원, 평균 건수 14.3건, 평균 액수 1,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40]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건수 및 액수

구분		응답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정부	건수	9	1건	6건	2.6건
	액수	10	450만원	320,000만원	69,785.0만원
지방정부 (도·시·군 지자체)	건수	15	1건	10건	4.1건
	액수	16	900만원	100,000만원	1,8127.5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건수	12	1건	4건	2.5건
	액수	11	100만원	10,000만원	3,122.7만원
기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건수	11	1건	16건	3.7건
	액수	10	200만원	15,000만원	3,080.0만원
기업(세미나 포함)	건수	4	1건	3건	2.0건
	액수	4	2000만원	8,000만원	4,625.0만원
개인 후원자	건수	8	1건	84건	14.3건
	액수	9	100만원	11,800만원	1,966.7만원

(3)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표 141]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구분
공연에 따른 예산 부족
공연현장예술단체나 현장에서 오래도록 활동하고 있는 중년 무용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안무자에게 고루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단체에게 직접 후원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무용분야인 '라인댄스'를 보다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출연료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수들의 출연료 제작비등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제작하는 시간과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무용수들이 은퇴 후 종신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무용단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간 무용단의 문제점,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민간 무용단의 대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무용수의 복지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 문항이 중앙 중심의 내용으로 기재됨.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무용단체의 경우, 정규극장공연 외 야외 및 사회봉사 형태 공연이 많으므로, 작품 수 또는 공연 규모 등의 질문은, 약 〇〇~〇〇의 형태의 답이 나오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한계가 있고 작은 사단체와 기업이나 개인후원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지면 좋을 듯싶습니다.

재단 지원금 5년간 받지 못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무슨 근거로 지원금 선출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출되는 팀은 계속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정말 근거 있는 이유와 심사하는 기준이 정확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원센터에서 정할 수 있었음 합니다.

재정지원 시 서류의 간소화

저희단체는 무용을 사랑하구 공연을 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순수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저희들에 자비로 공연을 주최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센터이기를 바랍니다.

전문무용수들의 비정규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합계

〈붙이는 자료〉

설문지

ID				
----	--	--	--	--

무용수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개선하고자 문을 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올해로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설립 당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무용수님들의 활동과 경제생활에 대해 알아 본 바 있습니다.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무용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조사로서 전국의 무용단과 무용수님들께 공연활동, 경제생활, 복지환경 등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여쭙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답변 하나하나가 전문무용수 지원정책의 기초 자료로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설문 참여자 몇%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식으로,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상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02.720.6202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대행): 문화리서치피오 02.588.7020

pio@thepio.co.kr

전문무용수란?

- 무용 활동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고, 또 공식적인 공연활동(단체, 개인 포함)을 통해 무용수로 인정 받고 있는 경우(대학 졸업발표회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무용 공연에 참여하여 그 대가로 경제적 수입(급여 또는 개런티 등)이 발생한 경우
- 국공립 무용단체나 직업무용단에 입단하여 정식 단원의 자격을 얻고 있거나, 그 공연에 참여한 경우(단원이 되었는데 아직 공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단원은 아니지만 직업무용단 공연에 객원무용수, 찬조출연 등으로 참여한 경우도 해당됨)

성별	여성() 남성()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⑥ 기타
연령	① 20~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④ 35~39세 ⑤ 40~44세 ⑥ 45세~49세 ⑦ 50대 ⑧ 60대 이상		
결혼 및 자녀	■ 결혼 여부: 기혼() 미혼() ■ 자녀 유무: 있다() 없다()		
지역	< 보기 > ① 서울 ② 경기 ③ 세종 ④ 인천 ⑤ 대전 ⑥ 광주 ⑦ 대구 ⑧ 울산 ⑨ 부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해외 ※ 위 보기에서 지역을 골라 번호를 입력하신 후 시/군/구를 입력해 주세요. 예) 서울 서초구일 경우 ①(번) 서초구(시/군/구) 경남 김해시일 경우 ⑯(번) 김해시(시/군/구) ■ 현재 거주 지역 _____(번) _____(시/군/구) ■ 무용활동을 주로 하는 지역 _____(번) _____(시/군/구)		

교육 과정

1. 전문무용수가 되기 위한 전문무용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① 취학 전 ② 초등학교 때 ③ 중학교 때 ④ 고등학교 때 ⑤ 대학교 때 ⑥ 대학원 때 ⑦ 기타()

2.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무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①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2-1. 최근 3년간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전승교육 ② 워크숍 ③ 기타 연수과정()
④ 기타()

2-2. 최근 3년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무용교육을 수강하신 **횟수**는 몇 번이십니까?

- 국내 _____ 회 ■ 해외 _____ 회

경제·직업 활동

※ 질문 1~3번은 옆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1. 월 평균 가구 소득 _____ 번

2. 월 평균 본인 소득 _____ 번

3. 월 평균 본인 지출 _____ 번

- 일반 생활비 _____ 만원
■ 무용관련 재교육을 위한 지출 _____ 만원

<보기>

-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4.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백분율로 봤을 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소득 비율은 몇 %씩 인가요?

4-1. 무용수 활동을 통한 수입 (/ 100)

4-2. 무용관련교육활동을 통한 수입 + (/ 100)

4-3. 기타 예술 활동(이벤트 포함한 타 장르) + (/ 100)

4-4. 예술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수입 + (/ 100)

합 계 = (100 / 100)

※ 4개 응답의 합이 100이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 위 4-3과 4-4에 응답하신 분만 답해 주세요.

5. 무용과 관련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인 이유 ② 비경제적인 이유()

6. 소득을 위한 총 경제활동시간을 100%라고 볼 때, 그 중 무용이외의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몇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7. 현재 본인의 경제생활에서 최우선적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무용활동 경비마련 ② 무용관련 재교육비용마련 ③ 무용 이외의 자기개발 ④ 노후대비
 ⑤ 자녀 교육비 ⑥ 주택문제 ⑦ 의료비 ⑧ 채무 해결
 ⑨ 기타()

8. 본인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유형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8-1. 국민연금	①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② 무용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③ 가족 직장 통해 가입 ④ 지역 가입자 ⑤ 가입하지 않음
8-2. 건강보험	①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② 무용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③ 가족 직장 통해 가입 ④ 지역 가입자
8-3. 산재보험	①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② 무용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③ 가입하지 않음
8-4. 고용보험	① 무용관련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② 무용이외 본인 직장 통해 가입 ③ 가입하지 않음

10. 평소 한 작품당 어느 정도 공연준비를 하십니까? 주 평균 일, 하루 평균 시간

10-1. 공연준비를 할 때 연습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 평균 일, 하루 평균 시간

10-2. 특별한 공연이 없는 평소에는 연습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 평균 일, 하루 평균 시간

11. 평소에 연습시간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강사로서 무용교육활동 시간	주 평균 ____ 시간
무용활동 외 기타 활동 및 자기개발	주 평균 ____ 시간
무용활동 외 수입활동(예: 아르바이트)	주 평균 ____ 시간
순수여가 시간	하루 평균 ____ 시간
가사활동시간	하루 평균 ____ 시간

12. 무용 공연활동을 근로 또는 노동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되셨습니까?

(주로 활동하는 단체)

- ① 단체장
 ② 정규직
 ③ 기간제/계약직
 ④ 프리랜서
 ⑤ 기타()

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기간제/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계약직 :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 되는 직위나 직무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14. 소속무용단체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주로 활동하는 단체)
 ① 작성했다 ② 작성하지 않았다 ③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는 계약했다
15. 소속무용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셨나요?(주로 활동하는 단체)
 ① 월급제 ② 연봉제 ③ 시간제 ④ 일당제 ⑤ 프로젝트 한 작품당
16. 최근 3년간 무용 공연활동을 통해 받은 경제적인 보상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최근 3년 간 참여한 전체 무용공연 중에서 개런티(액수와는 관계없음)를 받은 경우는 몇 %정도 차지하나요?
 _____ %
18. 무용분야와 관련해서 재능기부와 같은 공익적인 사회기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과거에 한 적이 있다 ② 현재 하고 있다 ③ 없다
19. 무용분야와 관련해서 향후 재능기부와 같은 공익적인 사회기여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겠다 ② 가능하면 하겠다 ③ 하지 않겠다 ④ 잘 모르겠다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사업

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① 설문조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②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③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다



※ ③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1-1.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 ① 소속 단체를 통해 ② 지인을 통해 ③ 홈페이지를 통해 ④ 언론 보도(□지면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⑤ SNS를 통해 ⑥ 기타()

1-2.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직업전환 지원 ② 무용 재활 트레이너 양성 지원 ③ 상해 재활 지원
 ④ 진료비 할인 ⑤ 댄서스잡마켓

6. 무용 활동 은퇴 후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①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6-1. 은퇴 후 진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무용 전공과의 연관성 ② 소득 ③ 고용 안정성 ④ 기타()

6-2. 은퇴 후 진로에서 무용 전공과의 연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필요함 필요한 편 보통 필요 없는 편 전혀 필요 없음

7. 무용수 은퇴 후 직업 전환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② 없다

※ ①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7-1. 전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무용수로서 비전이 없어서(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② 생계가 어려워서 ③ 무용에 싫증을 느껴서
④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⑤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⑥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 ⑦ 기타()

7-2. 전직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은퇴 후 3개월 이내 ② 은퇴 후 3~6개월 ③ 은퇴 후 1년 이후

7-3. 어떠한 직업으로 전직하시길 희망하십니까?

원하는 직업을 기록해 주세요.

()

8. 전직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9. 앞으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예 ② 아니오

10. [직업전환프로그램]에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길 원하십니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창작·예술관련 활동

1. 최근 3년 간, 무용수로서 공연하신 작품 수는 분야별로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 한국무용(전통) _____ 회 | ▪ 한국무용(창작) _____ 회 |
| ▪ 클래식 발레 _____ 회 | ▪ 창작 발레 _____ 회 |
| ▪ 현대무용 _____ 회 | ▪ 기타() _____ 회 |

2. 최근 3년 간, 안무가로서 공연에 참여하신 작품 수는 분야별로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 한국무용(전통) _____ 회 | ▪ 한국무용(창작) _____ 회 |
| ▪ 클래식 발레 _____ 회 | ▪ 창작 발레 _____ 회 |
| ▪ 현대무용 _____ 회 | ▪ 기타() _____ 회 |

3.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무용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횟수를 기록해 주세요.

- ① 있다(_____회) ② 없다

4. 현재 하고 있는 공연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위 4번에서 ④⑤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4-1. 공연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5. 공연활동 외에 강사로서 무용을 가르치는 본인의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문교육(무용수양성) | ② 전문교육(타 장르 예술가 대상) |
| ③ 커뮤니티(일반인 대상) | ④ 참여 안함(●▶ 설문 6번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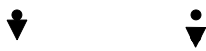
※ 위 5번에서 ①②③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5-1. 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100으로 볼 때, 그 중 무용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몇 % 정도 차지하는지요?

_____ %

5-2. 무용을 가르치는 본인의 무용교육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위 5-2번에서 ④⑤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5-2-1. 무용 교육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6. 최근 3년간 (소속된 단체 또는 개인) 지원금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수혜 경험이 있다면 **횟수**를 기록해 주세요.

- ① 있다 ●●●●●●▶
- ② 없다

※ ①에 응답하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6-1. 국고(지자체 포함) 지원 _____ 회
 협찬 _____ 회
 후원 _____ 회
 기타 _____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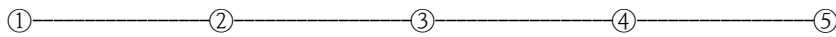
7. 평소 무용공연활동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십니까?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보기〉

① 오디션 ② 잡마켓아트마켓 ③ 제작진의 섭외(스카우트)
 ④ 은사의 추천 또는 권유 ⑤ 친구나 선후배의 추천 또는 권유 ⑥ 이전 작업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한 연결

7-1. 무용 공연 출연 결정의 자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의에 의한 출연 결정 자의인 편 자의반 타의반 타의인 편 타의에 의한 출연 결정

8. 100석 규모 공연장에서 30분 정도 공연하는데, 무용 공연 연습에서 출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 할 때, 군무 출연자인 경우 이 공연 출연료의 적정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원

9. 무용공연 활동의 전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공연활동 여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삶의 질

1. 전반적인 삶의 행복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 ③ 보통 ④ 행복하지 않은 편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행복 수준에 있어 전문 무용수로서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다 ② 큰 편 ③ 보통 ④ 작은 편 ⑤ 매우 작다

3. 전문 무용수로서의 삶에 대한 행복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 ③ 보통 ④ 행복하지 않은 편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

4.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심하다 ② 심한 편 ③ 보통 ④ 심하지 않은 편 ⑤ 전혀 심하지 않다

5. 전문무용수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생계적 부담 ② 무대 위 심리적 압박 ③ 공연 후 공허함 ④ 단원들과의 의견 대립
⑤ 상해 후유증 ⑥ 직업적 장래 ⑦ 기타()

6. 전문무용수로서 심리적인 부담감 혹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는 편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7. 전문무용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입니다.

7-1. 우리나라에서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
	매우 높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다
7-2. 우리나라에서 무용수에게 무용발표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보십니까?	①-----②-----③-----④-----⑤
	매우 높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다
7-3. 우리나라에서 무용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
	매우 높다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들과 늘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안내 등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함)

성함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코딩원 확인		검증원 확인	
--------	--	--------	--

ID			
----	--	--	--

전문무용수의 예술활동 지원과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무용단체장님들과 무용수님들께 공연활동, 경제생활, 복지환경 등을 상세하게 여쭙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답변은 무용수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주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02.720.6202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대행): 문화리서치피오 02.588.7020 pio@thepio.co.kr

단체 명		단체장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단체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단체 속성

1. 다음 중 귀 단체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국공립무용단체 공연장상주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임의단체 면세사업자 동문단체 기타()

2. 귀 단체는 언제 창립했습니까?

 년

3. 귀 단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등록 ② 미등록 ③ 모름

4.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장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무용(전통) ② 한국무용(창작) ③ 클래식 발레 ④ 창작 발레 ⑤ 현대무용 ⑥ 기타()

고용 현황

1. 귀 단체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1-1. **고용 형태별**

- ① 정규직 _____명 ② 장기 계약직(3개월 이상) _____명
 ③ 단기 계약직(3개월 미만) _____명 ④ 기타() _____명

1-2. **조직별**

- ① 경영 인력(임원) _____명 ② 창작 실연 인력 _____명
 ③ 지원 인력(사무, 기획, 기술) _____명 ④ 기타 인력 _____명

1-3. **근무 형태별**

- ① 상근 단원 _____명 ② 비상근 단원 _____명

-> 뒷면으로 계속



2.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단원 (_____ 명), 작성하지 않은 단원 (_____ 명)

3. 귀 단체가 소속 무용수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⑤ 해당 없음

예술공연 활동

1. 최근 3년 간 귀 단체는 몇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셨습니까? 총 공연작품 수 개

2. 한 공연을 무대에 올릴 경우 평균 몇 회, 몇 일간 공연 하십니까?

_____ 회 _____ 일

3. 한 공연에 평균 몇 명의 무용수가 참여합니까? (공연 규모) 명

4. 공연 관련 시설 보유 연습실(□소유 / □임대 / □없음) 공연장(□소유 / □임대 / □없음)
사무실(□소유 / □임대 / □없음)

기타 지원

1. 귀 단체의 공연예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연출료(각색료 포함) ② 출연료 ③ 의상비 ④ 무대제작비(무대소품·조명·디자인 등)
⑤ 음악 작곡 및 편곡비 ⑥ 장비대여료 ⑦ 극장대관비 ⑧ 사업진행비
⑨ 홍보비 ⑩ 기타()

2. 귀 단체는 최근 3년간 무용 활동 관련,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자	지원받은 건수	지원받은 액수
1) 중앙정부	건	약 만원
2) 지방정부(도·시·군 지자체)	건	약 만원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	건	약 만원
4) 기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건	약 만원
5) 기업(메세나 포함)	건	약 만원
6) 개인 후원자	건	약 만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딩원 확인

검증원 확인

2013년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발행월 _ 2013년 10월

발행처 _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조사기관 _ 문화리서치피오
